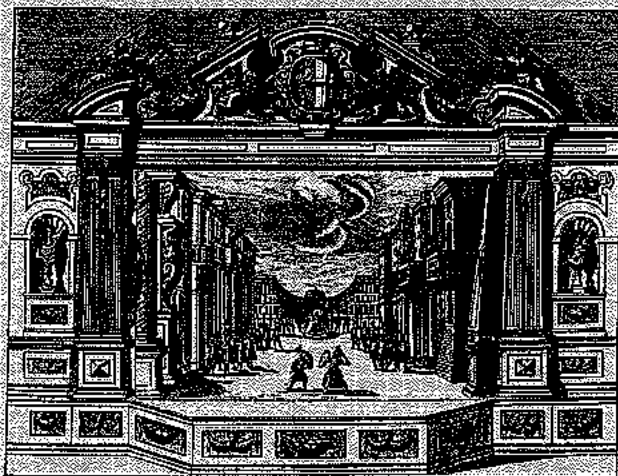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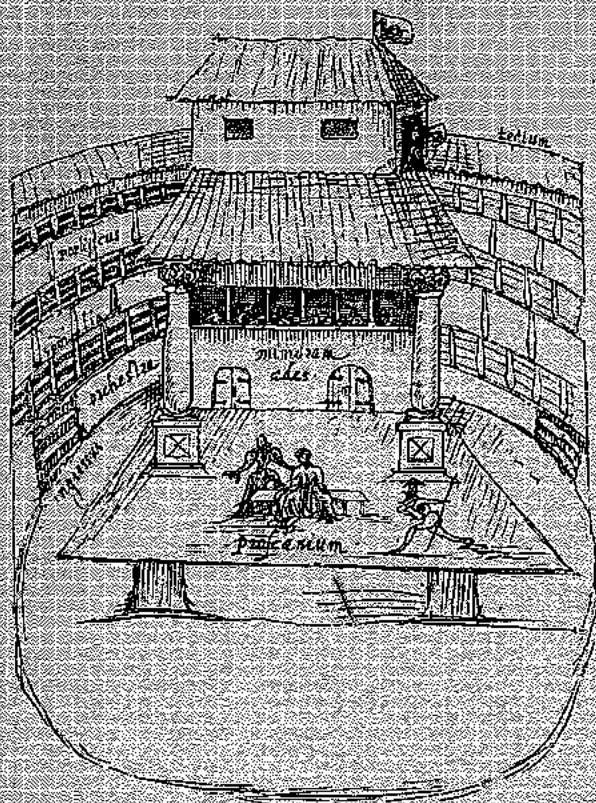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登録日字：1967年 3月 23日 登録番号 紀 安-1251 月刊「建築士」
発行日字：1975年 7月 30日 毎月1回発行 通巻 第78号

'75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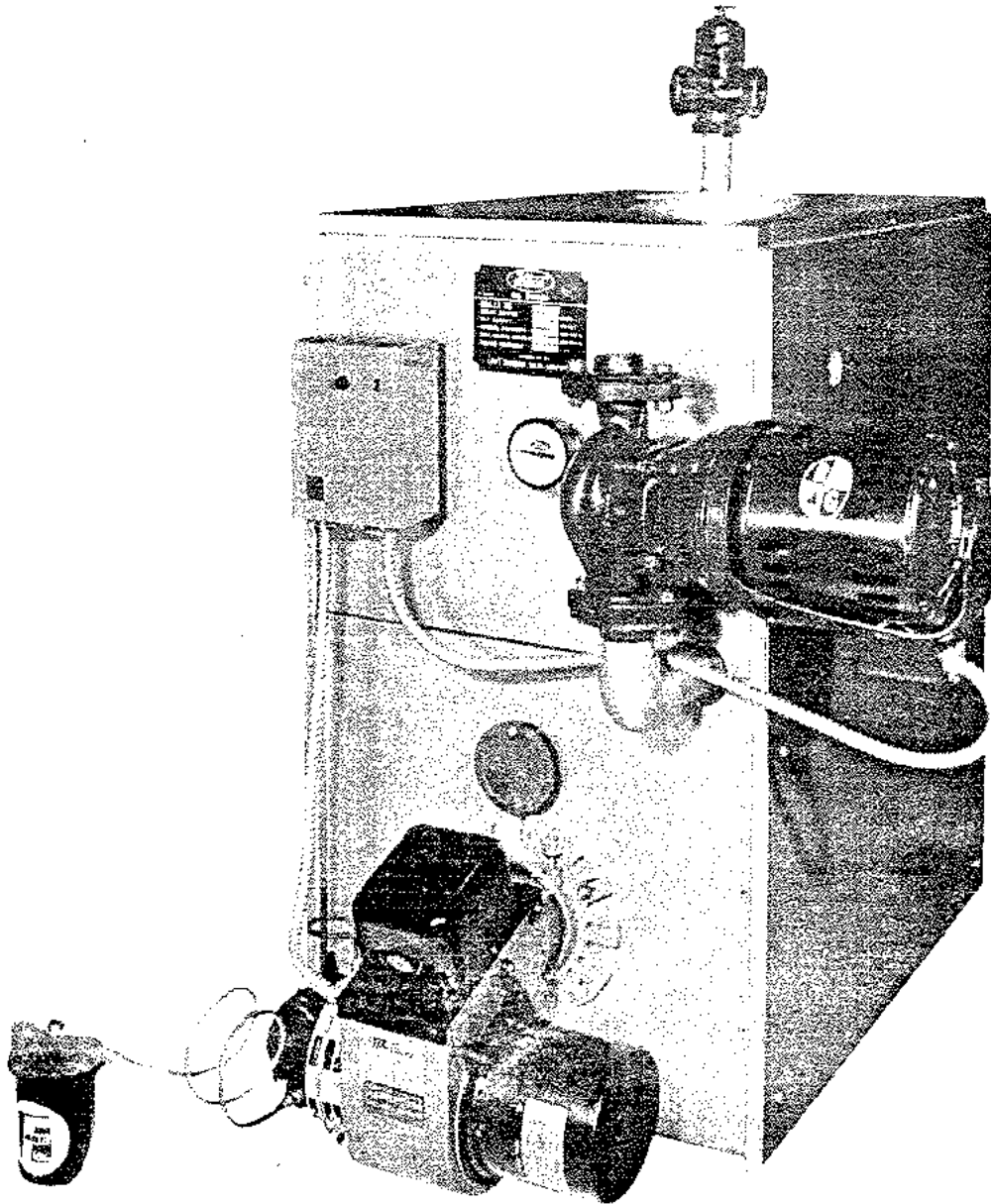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Cast Iron Boilers

놀라운 성능 · 연료비 절감 · 영구적인 수명

※ 난방 / 급탕 겸용 ※

Utica 유티카
자동 보일러 신제품



유티카商事

서울特別市 中区 忠武路4街 126의1號
進洋商街 라 102號

TEL. 26-2026, 2807

永一홀딩도아商社 FOLDING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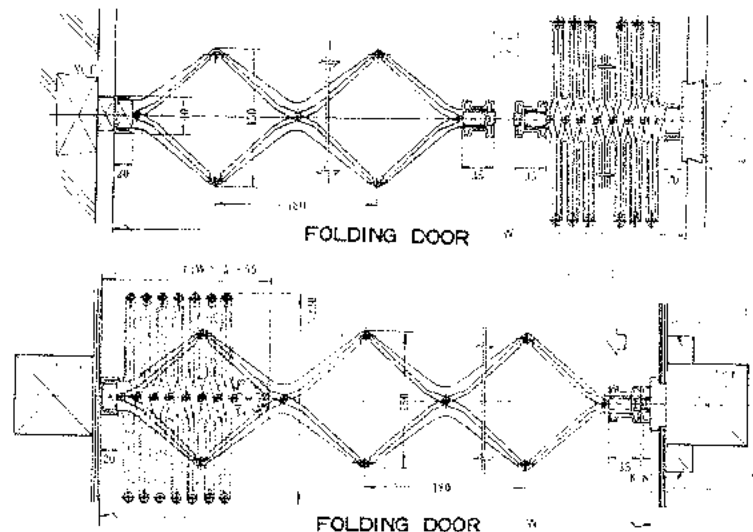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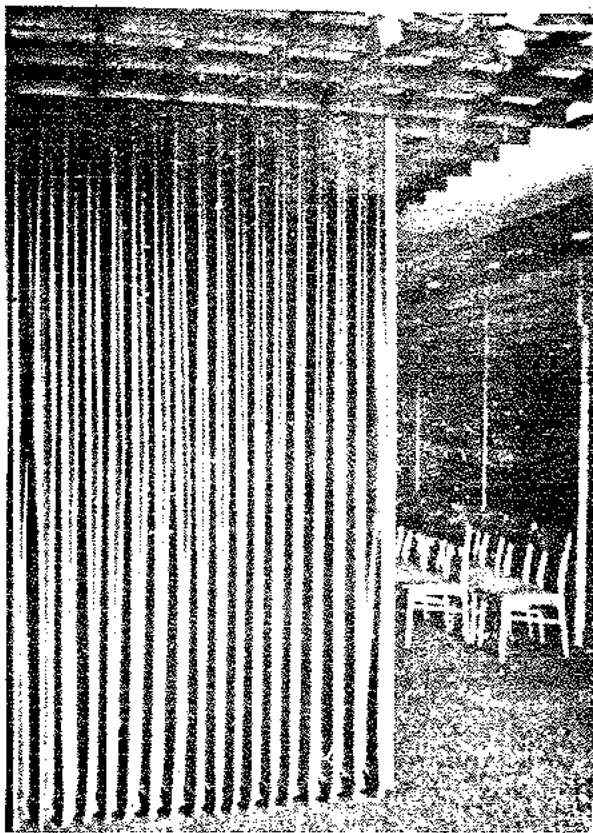
2 in 1의 벽

- 하나를 둘로 쓰는 現代의 벽
- 大와 小를 兼하는 移動하는 칸막이
- 스무스하게 開閉되는 優雅한 벽



영일 홀딩도아 (一名 하모니도아)

日本タチカワアコデオンガテン 会社輸出規格品임



홀딩도아
專門메이카



永一홀딩도아商社

事務室 서울市中区夢洞2街46-8
工場 永登浦区新道林洞1103-6

技術・日本タチカワアコデオンガテン会社
指導・日本アコデオンドア会社

事務室 26-0873-1658
工場 69-6110

접착성 및 보수성 · 유동성이 좋고 미장공사의 필수품!!
작업효과와 경제성이 뛰어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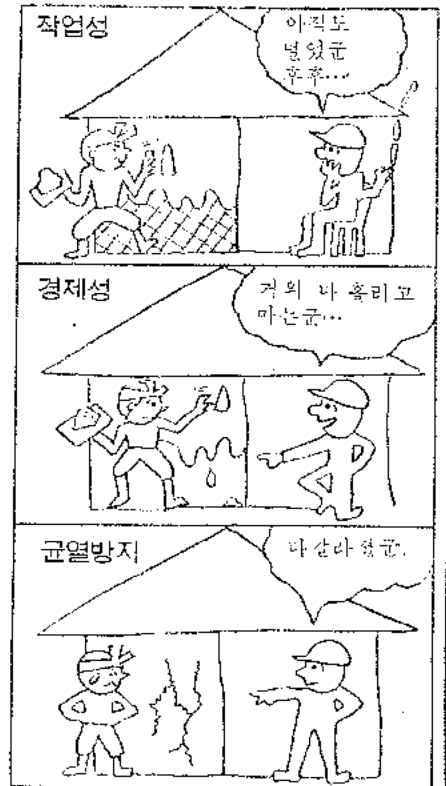
내알카리성 **메토로스** METOLOSE
물탈혼화제

모래+세멘트=물탈은 原始的인 工法입니다.

○메토로스를 혼합한 미장·타이루용 물탈은,

- 시공후에 방수효과가 있고 보기 좋게 마감됩니다.
- 작업성이 대폭 개선되고 단위시간당 작업면적이 20% 향상됩니다.
- 세멘트와 모래가 균일하게 분산하는 역할을 하고 보수성을 올려주고 하지에의 흡수와 증발에 의한 "드라이 아웃(dry out)"을 억제하므로 경화를 균일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수축현상에서 일어나는 균열발생을 방지합니다.
- 백화현상이 없는 하지 물탈이 됩니다.
- 메토로스를 첨가한 1:1 물탈은 부결가 1:2 물탈과 같은 미장 효과를 냅니다.
- 타일압착용 물탈은 완벽하게 밀착되고 백화현상으로 인한 오염이 없습니다.
- 선진 각국에서 미장·타이루용 물탈에 필수불가결의 물탈첨가물입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폐사에 직접 문의 바랍니다.



외장은 건물의 가치를 더욱 높여 줍니다.
天然石의 優雅함을..... 外装을 多樣하게.....
旭化成 (한·일 기술 제휴)

획기적인 내·외장제

뮤르코-트

MUR-COAT

○자연스런 색상과 부드러운 질감은

기존 내·외장제로서는 나타낼 수 없습니다.

- 다양한 색상의 自然砂利 또는 天然碎石을 사용하고,
- 물탈 5배의 강력한 접착력과
- 완전 투명한 日本 旭化成이 개발한 에마코·존텐(아크릴계)의 특수수지를 현장에서 혼합, 용이한 시공을 하여,
- 天然石의 美觀 表面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벽면 방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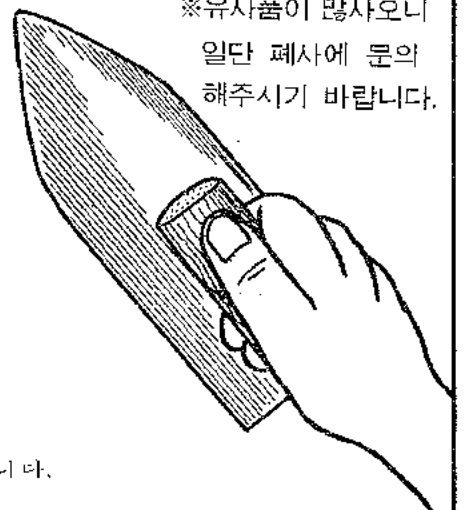
접착제가 硬化하면 下地面에 膜을 형성, 防水 역할을 하여, 雨期에 内壁 腐食防止와 冬期에 冷氣침투를 방지합니다.

○전국 각지 대리점 모집중

○東南亞 各국에서 선동적 인기 집중리에 시공중.

日本·此·아미 기타 각국에서 인기리에 시공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빌딩, 고급주택에 시공 놀라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사품이 많사오니
일단 폐사에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日本 旭化成
韓國總販賣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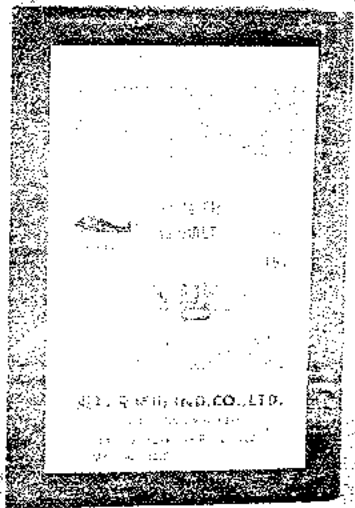


亞正産業株式會社

서울特別市鍾路區貴鉄洞45-1 大旺빌딩 9層

TEL. 72-5552
73-9753

아스팔트는 끓이는 시대에서 水溶性·아스팔트(ASPHALT·EMULSION)시대로!



완전 방수제 동방 포루마

■ 동방 포루마란? ■

수성페인트처럼 물에 용해하여 사용하는 수용성 아스팔트입니다. 일반액체 방수는 균열이 발생하고 모체와 방수층이 잘 떨어지지 않아 도재량이 많아 완전방수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아스팔트 엠ulsion 공법은 작업과정이 복잡하여 시공단가가 고액이며 우렁과 아스팔트의 불안전부착, 부러운 아스팔트 그 자체가 거울에 걸리치고 어중에 녹으며 신축력이 부족한 탓으로 일어나는 제반결점 때문에 장기간 수명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선진제국에서는 필요가 없고 또한 아스팔트의 모든 단점을 제거한 수용성 아스팔트를 개발하여 일반 방수, 방충(목관지)뿐 아니라 도로포장 및 선박도로 등 각종 건축분야에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시대적인 중요성에 따라, 회사에서는 아스팔트 수지원료에 특수 화학 약품과 안정제를 응용하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971년 부터 포루마를 생산하여 그간 수입되고 있던 外製(美·日製) 아스팔트 에말손을 품질과 가격면에서 능가하여 완전 국산화로 대체하였으며, 한편 방수, 방부 방청 밀착제등에 사용되어온 결과 그 우수한 성능으로 업계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균열 방지용으로 무한 타인 나이팅알(夜鳴) 사용하며 물에 타쓰는 아스팔트임으로 세멘트를 혼합 할 수 있어 방수 효과가 더욱 우수합니다.

■ 용 도 ■

1. 방수 : 옥상스라브, 벽면, 지하실, 실내공방이 및 습기제거, 온돌방습기 및 연탄 깨스 방지, 목욕탕, 물탱크, 연못, 터널.
2. 쏘인트(질석빠데), 스킨로폴 밀착, 균열개소 수리, 함석 지붕 등 일반 방수 방부 방청용.

방수 (설계) (시공) 문의는

東邦 포루마 IND. CO., LTD.

서울 : 29-1718 대전 : 3-5733

부산 : 43-4558

月刊「建築士」(通卷 78 号)

1975. 7

目 次

(公告) 大韓建築士協會賞 施賞 및 會員作品 展示会 開催要綱	2
論 壇 우리의 座標와 所望	4
構造物の 組立化에 關하여 ①	鄭 日 榮 5
푸리헤브 建築構造의 設計原理	金 德 在 11
現代建築의 起源 (The Rise of a Modern Architecture)	Peter Blake 18
日本の 諸建築法令 概要	編輯部 公 14
〈國際建築家聯盟 總會에 參席하고 ①〉	崔 昌 奎 26
西洋建築의 樣式比較 (7) 〈劇場編〉	24
(會員作品)	
出版文化會館	(嘉殿建築+洪淳寅) 洪 淳 寅 34
노랑진교회	(正林建築研究所) 金 正 澈 37
中央침례教會	(合成建築技術公社) 朴 成 圭 41
우신學校科學館	(新洋建築事務所) 李 春 相 43
잠사부녀생활관	(朴運旭建築研究所) 朴 運 旭 46
道高 칸트리클업하우스	() < > 46
朴氏住宅	(三寶建築設計公社) 朴 喜 元 48
(海外作品)	
20世紀 独逸教會 建築	49
規格資料使用指針	
全國建築許可統計	전 설 부 62
建築界뉴스	전 설 부 65
寄稿內規	67
75	
協會記事	69
會員動靜	71
月間協會動靜	74
大韓建築學會 公告	78
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支部 公告	79

表紙：西洋建築의 樣式比較

發行人兼 編輯人・韓昌鎭 / 登錄番号・第라-1251号

登錄日字・1967年 3月 23日 / 月刊「建築士」

発行日字・1975年 7月 30日 / 通卷 第78号

發行所・大韓建築士協會 / 住所・서울特別市 鍾路區 瑞麟洞 89番地 / 電話・73-9491~2

〈非売品〉

編輯委員會

委員長 李 丞 雨
委 員 金 仁 錫
金 昌 瑞
馬 春 景
愼 國 範
俞 景 哲
尹 道 根
李 文 輔
李 廷 德
韓 鼎 燮

大韓建築士協會賞 施賞 및 會員作品 展示會

開 催 要 綱

1. 趣 旨

올해는 本協會가 創立10周年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965年 不過 200餘 會員으로 發足한 本協會는 이제 1,500餘 會員이 모인 長足の 發展相을 보이고 團體의 年輪으로서도 成年期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成長과 發展은 會員여러분들이 其間 온갖 어려움을 克服하면서 協會를 아끼고 알뜰히 가꾸신 結實인 同時에 全建築界 여러분들이 本協會를 正성껏 보살피 주신 덕택입니다. 이 뜻깊은 해를 맞아 本協會에서는 建築界 發展을 加速化하는 하나의 礎石이 될것을 念願하면서 創立10周年紀念行事의 一環으로 會員作品 展示會와 아울러 “學術 및 技術論文” “建築界 發展에 크게 寄與한 業績”과 “優秀한 建築作品”에 對하여 施賞하고자 하오니 많은 應募와 推薦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 施賞 및 應募要領

摘要	建 築 作 品	建 築 論 文	作品 論文 以外的 業績
(1) 推薦 또는 應募作品	1974年以後 主로 國內에 竣工된 建築物의 設計(庭園, 其他 工作物을 包含한다)로서 技術 및 藝術의 進歩向上에 寄與하는 優秀한 業績.	1974年以後에 研究發表된 論文으로서 學術 및 技術의 進歩向上에 寄與하는 優秀한 業績	1974年以後에 完成된 다음에 該當되는 學術 및 技術의 進歩向上에 寄與하는 業績. (1) 施工技術에 關한 것. (2) 發明考案에 關한 것. (3) 都市計劃과 같은 計劃으로서 價値 있는 것.
(2) 推薦 또는 應募作品	(1) 會員이 推薦 또는 應募하는 것. (2) 本協會의 支部에서 推薦하는 것.	(1) 建築人으로서 推薦 또는 應募하는 것. (2) 本協會의 支部에서 推薦하는 것. (3) 研究機關, 建築團體 또는 職場에서 推薦하는 것.	(1) 左의 (1)과 同一 (2) 左의 (2)과 同一 (3) 左의 (3)과 同一
(3) 出品 書 및 資料	(1) 寫眞 및 主된 圖面과 說明書(圖面은 靑寫眞도 無妨함) (2) 審査上 必要할 때는 보다 詳細한 資料의 提出을 要求할 수 있음. (3) 資料의 作成費는 本協會에서 負擔하지 않음.	(1) 研究論文이 發表된 刊行物 또는 資料(論文은 內容을 간추려 發表한 刊行物도 無妨함) (2) 左의 (2)과 同一 (3) 左의 (3)과 同一	(1) 業績의 內容이 說明되는 資料 (2) 左의 (2)과 同一 (3) 左의 (3)과 同一

- (4) 接受期間……1975年 7月 1日～1975年 9月 30日
- (5) 接 受 處……本協會 事務處
- (6) 審 查……本協會 理事會에서 推薦依頼한 人士로 審査委員會를 構成하여 審査함 (接受期後 審査委員名單 發表)
- (7) 受賞者發表……1975年 10月 10日 (受賞者에게 個別 通知하고 本協會傘下 各市道支部와 有關機關에 通報하는 同時 會誌 “建築士”에 發表)
- (8) 施 賞 區 分
- | | |
|---|--|
| <p>Ⅰ. 大韓建築士協會 大賞</p> <p>建築作品 中 1點……賞牌・金메달</p> <p>Ⅱ. 大韓建築士協會 賞</p> <p>㉠ 建築作品 中 1點……賞牌・金메달</p> <p>㉡ 建築論文 中 1篇……賞牌・金메달</p> <p>㉢ 業績中 1人 ………賞牌・金메달</p> | <p>Ⅲ. 其 他</p> <p>㉣ 優秀建築作品 數點……賞牌</p> <p>㉤ 出品紀念메달 : 出品 및 応募者 全員</p> <p>※ (大賞 受賞者는 協會賞 受賞對象에서 除外한다.)</p> |
|---|--|
- (9) 施 賞 日……1975年 10月 23日 ((本協會 創立10周年紀念式席上)
- (10) 出品資料返還…出品圖書 및 資料의 返還을 希望할 때는 追後 定하는 期間內 返還함.

3. 會員建築作品 展示會

- (1) 展 示 對 象……出品된 作品 中 審査委員會에서 選定한 作品
- (2) 展 示 場 所……Ⅰ. 所 址 : 本協會 會館 1層 展示室
- Ⅱ. 地 方 : 展示會開催를 希望하는 支部所在地 (場所 日時 追後 發表)
- ※ 其他 詳細한 것은 本協會 및 傘下 各市道支部에 問議하시기 바람.
- (3) 展 示 期 間
- Ⅰ. 所 址 : 1975年 10月 15日～10月 30日 (16日間)
- Ⅱ. 地 方 : 1975年 11月 1日～12月 31日 (2個月間)

1975. 7

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鍾路區瑞麟洞89

電 話 { (74) 1 0 4 5 番
{ (73) 9491～2 番

우리의 座標와 所望

요즈음처럼 全國民이 나라를 防衛하고자 一心이 되어 總利를 이루워 본적은 일찌기 없었다. 新聞, 放送等 各 메스콤에서는 連日 防衛誠金獻納을 報道하고 있다.

우리 建築士들도 日前에 防衛誠金을 獻納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으로 滿足하지 말고 金錢보다도 더 貴重하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技術을 最大限 國家를 위하여 貢獻해야 할 것이다.

우리 建築士들은 財政적으로는 微弱한 存在이나 建築技術에 關하여서는 우리나라에서는 莫強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莫強한 힘을 最大限 發揮하여 漏費없이 國家經濟 發展事業에 活用한다면 北愧의 經濟力은 勿論, 國際적으로도 開發途上國이라는 現位置를 脫皮하는데 크나큰 役割을 할 것으로 믿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만 우리들의 이 莫強한 힘을 集約시킬 수 있으며 또한 活用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첫째로 우리 建築士 自身들의 精神的 武裝이라고 본다. 우리에게 賦課된 使命感을 痛感하며 建築士라는 矜持를 가지고 不正, 不條理를 過敢하게 除去하여야 되겠으며, 情性에 젖은 安逸한 思考方式에서 오는 適當主義는 우리 周邇에서 完全히 자취를 감추게 되어야 된다.

우리 建築士들은 科學의 一翼을 担当하는 사람으로서 萬事에 條理整然하게 맡은 바 業務를 遂行하며, 그 結果에 對하여서는 確固한 責任感을 가져야 할 줄로 믿는다. 또한 正確精密을 信條로 하고 過去부터의 “한치, 두치 程度의 誤差는 普通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粗雜한 觀念은 아예 우리 建築士들의 머리에서 追放하여야 될 것이다.

다음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建築士들은 充分한 報酬를 받아야 한다.

우리 社會에서는 外國에 支拂하는 用役費에 對하여서는 아낌없이 高額을 支拂하면서도 國內技術陣에 支拂하는 用役費에 對하여서는 大端히 人색한 것이 事實이다. 이러한 傾向의 一端의 責任은 우리 建築士들 自身들에게도 있다고 본다.

充分한 報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完全無欠한 設計를 하지 못하며, 따라서 外國人이 設計한 것보다 못하며, 建築主에게 絶對的인 信賴를 받지 못하며, 建築主는 報酬額의 多寡는 생각지도 않고 結果만을 따지는 惡循環의 되풀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問題의 解決策없는 우리 建築士들의 發展은 없다고 본다.

이의 解決策은 行政의 支援(設計報酬 料率引上等)은 勿論 絶對 必要한 것이지만, 그와 함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들 自身 完全한 設計를 하계급 努力한 것은 勿論이요 좀더 나아가서 우리 建築士들은 우리 本然의 業務에 對하여 좀더 많은 再投資를 하여야 된다.

現在까지 우리들은 業務以外에 많은 費用과 時間이 消費된 것은 事實이다. 이 不必要한 費用과 時間을 最小限으로 줄이고, 우리들 本然의 業務에 投資함으로써 外國書籍 1권이 라도 더 購讀하고, 研究開發에 힘 써야 될 줄로 믿는다.

月刊建築士 / '75. 7月號

技術은 日進月步하고 있다. 우리들은 先進技術을 習得하는 데 進取性을 가져야 하며, 한時라도 빨리, 또 보다 많이 先進技術을 導入하여, 우리의 것으로 同化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한 財源과 時間은 우리 建築士 스스로 마련하여야 하며, 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눈물나는 努力을 하여야 한다.

萬事は 一朝一夕에 安易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많은 努力과 忍耐가 必要하며, 그것을 爭取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建築士들을 再認識, 再評價하게끔 하여 建築主로 하여금 現在보다 많은 費用을 支拂하여도 보다 많은 利益이 建築主 自身에게 되돌아 온다고 느끼게끔 하여야 한다.

둘째로, 우리들의 이러한 前進과 國家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態勢과 함께 行政 當局도 보다 積極的으로 우리 建築士들을 支援 育成하여 주기 바란다.

爲先, 現在와 같이 不況時에는 顧慮增大란 있을 수 없으며, 自然히 失業率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失業率이 높아지면, 社會 不安의 要因이 된다. 따라서 現在도 當局에서는 積極的으로 이의 解消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兩斷된 國土를 가진 우리나라 實情으로서의 安保 第一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建設部分에 많은 投資는 어려운 것으로 안다. 그러한 狀況下에서도 政府는 第2次 5個年計劃을 樹立하고 實行하고 있는 點에 對하여서 우리 國民들은 政府에게 感謝와 絶對的으로 協助하고, 計劃을 完遂하여야 한다.

우리들의 立場에서 본다면 좀 더 過敢하게 建設 部分에 投資하여 줄 것을 바란다.

爲先 不況時의 顧慮增大란 問題를 크게 解決하여 주기 바란다.

벌리는 獨逸에서 第1次大戰 後의 最惡 不況期에 “AUTO-BAHN”等 建設로 失業者를 吸収하였으며, 가까운 現時點에 先進外國에서 많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問題는 經濟門外漢인 우리들의 立場과는 달리, 關係 當局에서 多角度로 檢討하고 實行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으며, 또 하루 速히 成果가 나타나기를 期待할 따름이다.

다음은 技術習得을 爲하여서는 좀 더 門戶를 開放하여 주기 바란다.

優秀한 人材를 選拔하여서 國費로 外國에 派遣함은 勿論, 自費로 技術研習할 사람은 積極支援하여 주기 바란다.

또, 外國의 著名한 人士를 많이 招請하여 講演會를 開催하거나 外國처럼 年中 월세없이 講習會가 開催되기를 期待한다.

또한 技術書籍도 많이 出版되게 어떠한 行政의 支援를 바라며, 이로 因하여 外國原書解讀에 따르는 時間과 努力의 節減을 가져오도록 要望한다.

끝으로 우리 建築士의 設計報酬料率은 마땅히 引上 改正되어야 겠다. 現料率은 첫머리에 말한 것처럼 設計業務에 對한 研究 開發은 既制定된 時間과 比較도 안되며, 複雜 專門化된 現狀況에 不適當하기 때문이다.

이 問題는 또 現稅制에 對하여서도 깊은 考證가 있기를 期待하여 본다.

結論으로 우리 建築士 自身들의 精神的 再武裝과 先進技術의 習得, 또 技術研究開發에 따르는 當局의 支援 등으로 우리 建築士들의 質을 向上시켜서 보다 合理的으로, 보다 經濟的으로 우리나라 經濟建設에 이바지하는 役軍이 되며 相國統一과 民族 經濟 發展에 參與하여야 하며, 또 많은 貢獻을 하여야 하겠다.

構造物의 組立化에 關하여(1)

鄭 日 榮

1. PC 組立의 原理

콘크리트는 壓縮力에 對한 抵抗력이 크나, 引張力에는 대단히 弱하기 때문에 鉄筋콘크리트部材를 設計할 때 에는 그림 1 (ㄱ)와 같이 引張力을 받게될 콘크리트部分 1, 2, 3, 4, 를 無視하고 鉄筋만이 引張力을 負擔한다고 假定하는 것이 慣例로 되어, 鉄筋콘크리트 断面은 力學的으로 全断面을 有効하게 適用할 수 없다. 따라서 그림 2 (ㄱ)와 같이 어떤 方法으로도, 미리 材軸方向으로 断面에 壓縮, 應力度를 導入시켜 놓으면 固定荷重 D.L. 및 積載荷重 L.L. 으로 中立軸아래쪽에 引張應力度가 增加하여도 그림 2 (ㄴ), 또는 (ㄷ)에서 알 수 있듯이 初期에 導入되었던 壓縮應力度만 減少할뿐 그림 2 (ㄹ)와 같이 断面에는 引張應力度가 發生하지 않는다. 이와같이 引張에 對하는 範圍가 大幅 擴大되었을 뿐 아니라 全断面을 有効適切하게 利用하는 prestressed concrete方式을 最近에는 広範圍하게 設計에 適用하게 되었다. 그런데 架構에 이方式을 利用하는 境遇를 思考하여 보자. 假令 그림 3 (ㄱ)에서 A, B는 힘을 加하여도 變形을 일으키지 않을 程度의 剛性이 큰 기둥으로서 보 C에 配置된 緊張材를 잡아다녀 各各 a, b에 錠着시켜도 기둥 A, B가 剛體이므로 보는, 縮少되거나 휘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보 C는 全히 緊張力이 導入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3 (ㄴ)과 같이 緊張材를 曲線狀으로 配置할 때 緊張材에는 上向의 應力度가 作用되어 軸方向力은 앞사와 같이 發生되지 않고 보에는 휨 모멘트가 有害하게 作用한다. 이 때 節點에 있어서의 기둥에 傳達되어 기둥 頂點에 不靜定 軸方向力 및 不靜定 휨 모멘트를 그림 4와 같이 일으킬뿐 아니라 보에도 緊張力이 完全히 導入될 수 없으므로 不經濟的이다. 萬一 기둥의 휨剛性이 적을 때에는 보에 對한 拘束影響이 적으므로 架構에 緊張力을 導入할 수 있다. 그런데 多 Span이 되면 各個의 기둥의 휨剛性이 적어도 기둥의 휨剛性이 加算되어 最外端의 보일수록 기둥에서 받은 拘束力이 커져 緊張力 導入이 어

筆者: 서울대학교工科大学 建築學科長

려워진다. 그런데 보에 緊張力을 導力할 境遇, 기둥 頂點에 있어서의 拘束을 적게 할 때에는 기둥에도 緊張力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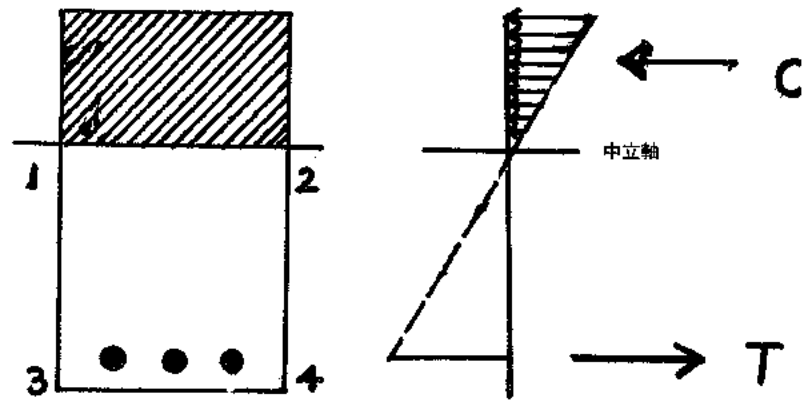


그림 1 鉄筋콘크리트断面 및 應力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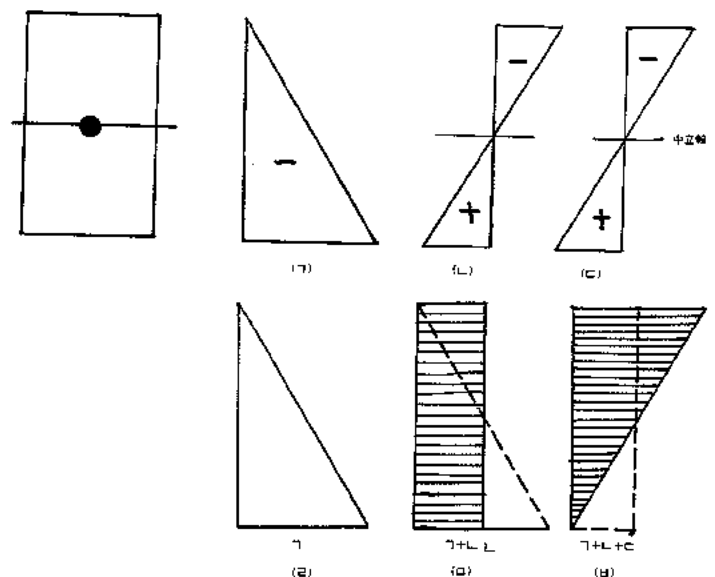


그림 2 휨材의 緊張力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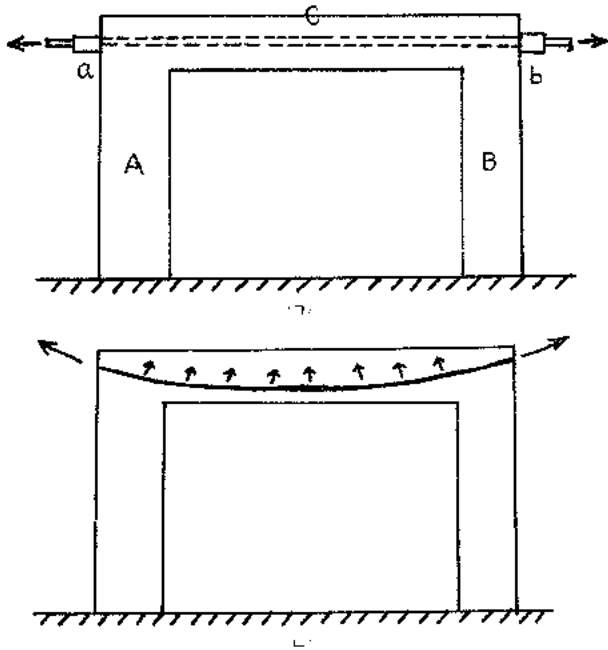


그림 3 緊張力 導入時의 部材의 縮少量 完全阻止 하였을 때 Prestr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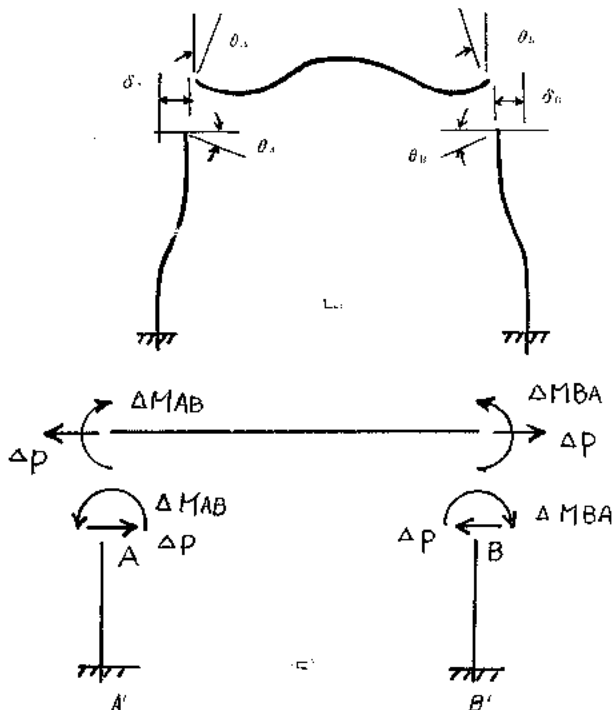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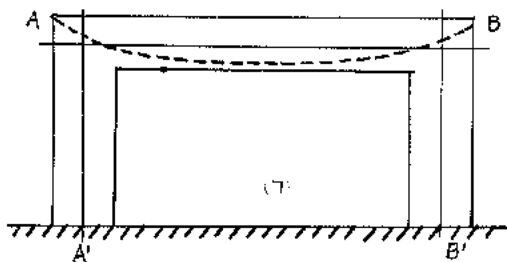


그림 4 一體式 架構의 緊張力 導入時의 舉動

導入하여 強制的으로 變形을 일으키면 된다. 即 그림 5
에서와 같이 기둥과 보를 分離시켜 생각하면 靜定構造이
므로 緊張力의 完全 導入이 可能하게 된다. 이때 節點 A,
B, C에 있어서의 迴轉角을 $\theta_A, \theta_B, \theta_C$, 節點의 水平
移動量을 각각 $\delta_A, \delta_B, \delta_C$ 라 하자. 그리고 기둥은 각
各 上向의 Cantilever 部材이므로 여기에도 緊張力을 導
入하면 이것도 完全 導入이된다. 기둥은 그림 (7)에 表
示된 바와 같이 緊張材가 配置되어 있으므로 각 기둥의
頂點 A, B, C에는 緊張力 導入으로 迴轉角 $\theta_A, \theta_B, \theta_C$
및 水平移動 $\delta_A, \delta_B, \delta_C$ 이, 일어난다. 따라서 기
둥과 보에 각각 表示된 바와같이 独立的으로 緊張力을 導
入하여

$$\theta_A = \theta_{A'} \quad \delta_A = \delta_{A'}$$

$$\theta_B = \theta_{B'} \quad \delta_B = \delta_{B'}$$

$$\theta_C = \theta_{C'} \quad \delta_C = \delta_{C'}$$

이 되도록 緊張材를 配置하여 緊張力을 導入하면 分離한
보와 기둥의 各 節點 變位の 連統條件이 스스로 滿足 되
여 緊張力 導入에 同伴되는 不靜定力이 일어나지 않게 된
다. 그리고 기둥, 보 等 單一 precast 部材를 現場에서
緊張力을 導入하여 一體式 架構로 組立하면 보에서 일어
나는 不靜定力이 기둥에 傳達되지 않으므로 經濟的인 設
計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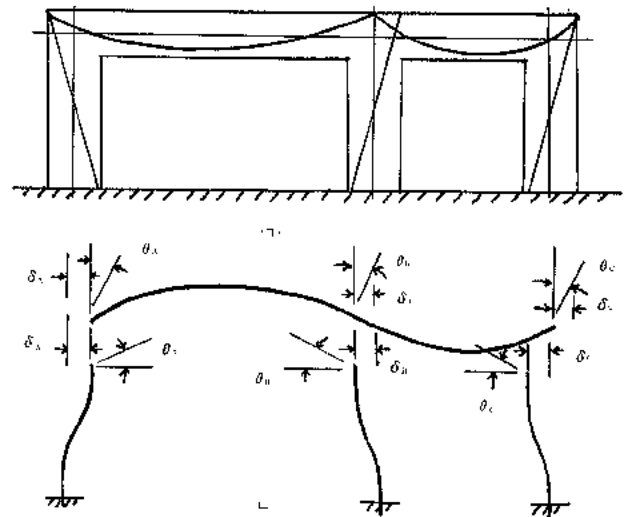


그림 5 2 Span 일 때 緊張力 導入時의 舉動

2. 組立化의 現況

앞서 論述한바와 같이 2 span 架構인 境遇, 現場에서
一體式 架構에 緊張力을 導入하여 PC 架構로 製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多span 架構일 때는 보에 緊
張力을 導入하여도 기둥의 剛性 때문에 보의 變形이 阻
止되어 所定の 緊張力이 보에 導入되지 않을 뿐더러, 기
둥에 휨 모멘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設計上 不經濟 이다.
이 때문에 기둥에도 緊張力을 導入하여, 기둥이 보에 처
한 變形阻止를 緩和시키는 方策이 必要하게 된다. 實際

로 部材에 緊張力을 導入하여 가장 效果가 있는 것은 纈材로서, 그 目的은 設計 纈 모멘트와 逆方向의 prestressing Moment를 部材에 作用시켜놓고 纈 모멘트에 견딜 수 있는 能力을 增大시키는데 있다. 기둥과 같이 設計荷重에 의한 軸圧縮力이 同時에 作用하는 部材에서는 纈 모멘트가 軸圧縮力에 比하여 顯著하게 클 境遇 PC柱로서 의 效果가 있다. 그러나 普通의 境遇에는 기둥에 緊張力을 導入할 必要性은 없을것 같다. 但只 組立化 過程에서 纈層의 기둥을 아래層 기둥과 剛結할 目的으로 기둥에 緊張力을 導入할 수는 있다. 多span을 가진 架構에서는 一体式 架構의 보에만 緊張力을 導入하는 것은 대단히 不便하다. 歐洲에서는 不靜定 架構의 기둥頂点, 기둥脚点 또는 그중하나에 hinge를 設定하여 靜定 또는 그에 가까운 狀態로 하여나後, 거기에 緊張力을 導入하고 hinge 部分을 콘크리트로서 固定하여 剛節 構造로 改造하는 方法을 가끔 쓰고 있다. 이것은 緊張力 導入에 同伴되는 不靜定力을 緩和 또는 全혀 없애는 方策으로서 工法의 延長 및 特定한 事情으로 緊張力 導入이 困難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多 span架構를 PS system으로 架設하는 方法 로 좋은 것이다. 이 方法은 現場치기, 工場 製作에서도 行할수 있으나, 한 個의 架構를 1 unit로 製作하여, 보에 緊張力을 導入한 後 現場에서 세워서 기둥 脚部 및 보의 接合部를 固定 시켜 多span 架構를 架設하고 있다. 이와 같 이 1. unit의 重量은 莫大하며 우리 나라 現 狀況에서는 架構를 架設하기 위한 建設 機械를 確保하는 것은 困難하다. 따라서 기둥, 보등 모든 單一部材를 輸送하는데 適合한 무게와 길이로 Block들을 만들어 이 precast 製品을 現場에서 組立하여 一体化하는 方法을 取하여야 한다.

그림 6 數個의 Precast Block를 連結한 Post tension 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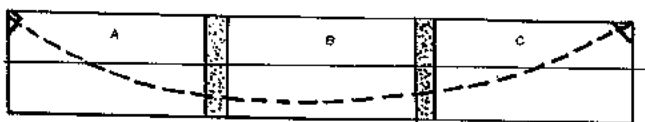


그림 6에서와 같은 組立部材는 一般의 接合部가 軟弱하기 쉬운 欠点이 있다. 特히 콘크리트는 乾燥收縮으로 인한 경우를 생각하여 剛接 構造가 要求되므로 接合部의 剛節方法이 問題된다. PS 構造物에서 2個의 部材를 나란히 놓고 이들 中間部分을 wet joint로 製作하여 이것을 兩쪽 2個 部分에 導入된 緊張力을 緩和시켜 이것으로서 圧着하면, 이 節点은 一体의으로 打設된 境遇와 같은 程度의 剛性을 갖는다. 이와 같은것은 이미 여러 實驗에서 確認되었나, 勿論 接合部는 圧着以外에도 剛節方法은 여러가지 있다. 이들은 그 나름대로 各各의 長点 및 短点

이 있겠다. 組立構造를 採用하여 架構를 組立하는 途中, 載荷하는 手段等으로 一体式과는 相異한 設計 纈 모멘트의 分布狀態를 얻게 되고 断面設計上 有利하게 되는것도 組立構造의 長点이다. 그러나 組立構造라 하여 全部를 組立工法으로 架設하는 것은 아니다. 現場 打設도 混用하여 要는 設計上, 施工上, 有劔한 部分만 PSsystem을 使用하는 組立構造 方式을 採用하는 것이 得策이다.

3. 두 部材의 剛接法

콘크리트 組立構造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은 그 接合部이다. 架構部材의 接合에서는 여러 原因에서 오는 纈 모멘트에 견디어야 하므로 特히 重要하다.

部材의 結合法으로는 部材端에서 突出된 鉄筋을 熔接 또는 겹침 이음을 하고 部材間의 틈사이를 現場 打設로 接合하는 鉄筋콘크리트의 接合法과 接合部에 緊張力을 導入시켜 두 部材를 圧着 接合하는 緊張力 接合法으로 크게 나누어 다루게 된다. 좀더 詳細히 剛接合 方法을 나누어 생각하면 다음 네가지로 分類된다.

- (1) 보 端部를 普通鉄筋으로 RC 接合하는 法(그림 7)
- (2) 기둥 위에서 보를 緊張力 接合하는 法(그림 8)
- (3) 기둥 側面에서 보를 緊張力 接合하는 法(그림 9)
- (4) 보를 節点에 緊張力 接合하는 法(그림 10)

첫번째 方法으로 보 端部를 普通鉄筋에 RC 接合하는 境遇로서 接合部에 緊張力을 導入하지 않으므로 龜裂發生이 予想되고 좁은 断面에 接合用 鉄筋을 配置할 수 있는지 또한 두個 以上の PS 보를 緊結할 때 問題點이 생기는 것이 欠点이다. 다음에 기둥 위에 보를 圧着 하는 方法으로 우선 緊張力을 導入한 Precast PS 보를 기둥 위에 놓고 기둥의 緊張材를 보 上端까지 延長하여 기둥에 緊張材를 導入하는 同時에 보를 기둥 頂点에 圧着하면 기둥과 보는 쉽게 剛接된다. 即 post tensioning 部材를 數個 Block으로 이어서 緊張力을 導入 製作하면 一体式으로 製作한 것과 같은 程度의 力學的 特性을 나타낸다. 이때 기둥은 現場 打設 또는 precast 製品이어도 無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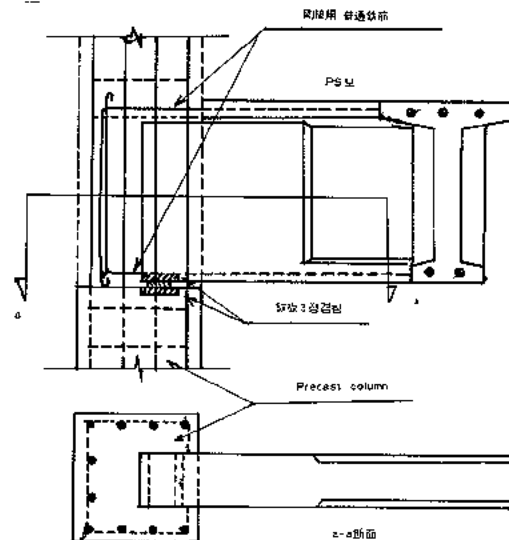


그림 7 普通鉄筋에 의한 보와 기둥의 接合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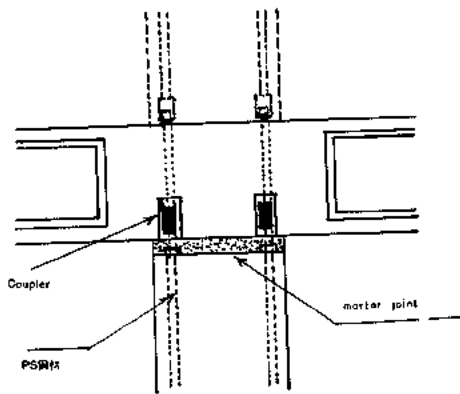


그림 8 Precast 기둥과 Precast보와의 圧着接合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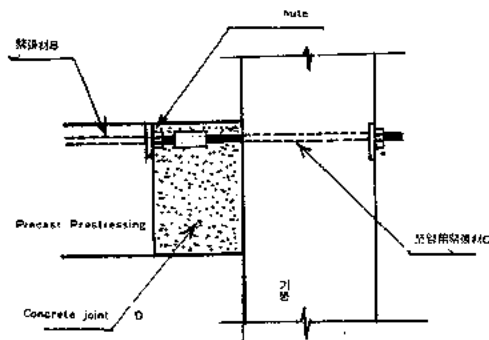


그림 9 기둥과 PS보의 接合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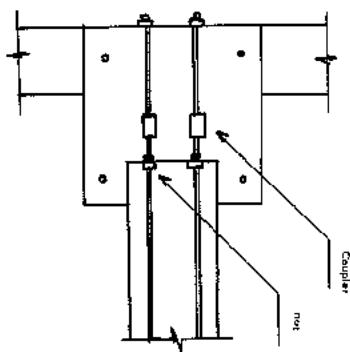


그림10 보를 節点에 緊張力 接合하는 方法

기둥의 緊張材는 기둥 頂部에서 充分히 突出시키고, precast 보에는 보를 지나게 되는 sheath를 材軸과 直角으로 묻어둔다. 그리고 緊張材를 貫通시켜 기둥 頂部に 놓고 PS 보 上端에서 기둥의 緊張材를 잡아다녀 旋着시키

고 기둥의 Sheath 안에 Cement paste를 注入하여 Grouting 하면 完成하게 된다. 그리고 기둥의 重心軸과 緊張材 重心이 一致하면 기둥에 緊張力을 導入하여도 不靜定力은 일어나지 않으나, 偏心되었을 때는 緊張力을 導入할 때 同伴되는 不靜定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에는 軸方向力과 휨 모멘트가 附加된다. 그림 8은 그 方法을 나타낸 것으로서 기둥의 緊張材는 coupler로서 接續하였다. coupler의 設置하는 場所는 그림 8에 表示된 바와 같이 凹部를 만들고 外部에 露出시켜 두면 作業하는데 便利하다. 2層以上の 高層 架構에서는 보 上端에 露出시킨 緊張材에 윗層의 기둥의 緊張材에 接續하여 나가는 方式을 取한다. 多 span 架構의 内柱일 때 그 바로 위에 PS 보의 이음이 올 境遇에는 앞서와 같은 方法으로 이어가는 것은 困難할 것이다. 이때에는 보의 절침이 알려져서 材端 휨모멘트를 伝達하기 어렵게 된다. 普通은 보의 이음은 기둥 頂部를 避하여 그림 11에서와 같이 長期応力에 의한 휨 모멘트의 적은 位置를 골라서 水平力에 의한 휨 모멘트가 作用할 때 견디도록 이음을 設計할 必要가 있다. 그림 12는 한 例로서 同図(γ)은 angle鋼을 旋着板으로 使用하여 angle 相瓦를 걸쳐서 熔接한 것이다. 다음은 기둥 側面에 보를 圧着하는 方法인데 휨 모멘트가 顯著하게 올 境遇以外에는 龜裂이 發生할 憂慮가 없으므로 일부러 緊張力을 導入하여 軸圧縮力을 增加시키는 것은 不經濟的이다. 勿論 앞서 말한 方法에서도 기둥의 緊張力은 單純히 기둥과 보를 剛接할 目的으로 導入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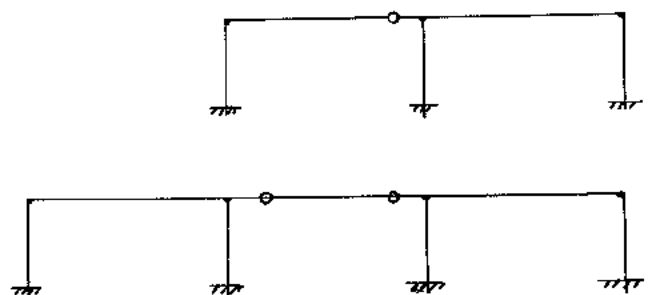


그림 11 보의 中間이음장소

PS 기둥으로서의 設計를 할 必要는 없으며 經濟的인 面에서 기둥에 緊張力을 넣지 않고 보와 기둥을 剛接하는 方法만 있으면 要望되는 일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보를 기둥 頂部에 圧着하는 代身 그림 9에서와 같이 기둥 側面에 보를 圧着하여 剛接하면 이것은 보의 緊張材를 기둥을 貫通시켜 기둥 外側面에서 조인것이 되고 기둥에는 緊張力을 導入할 必要가 없다 이와같은 方法은 多數 考案

되어 있으나問題點이 되는 것은 앞서 論述한 바와 같이 보에 緊張力을 導入하면 部材의 길이 縮少될 뿐 아니라 緯어져서 기둥이 이 作用을 阻止하여야 할 役割이 있으므로 기둥이 그만큼 負擔할 必要가 생기므로, 보는 計劃되로의 緊張力을 導入하기 위하여 보에 導入할 때 同伴되는 部材길이의 縮少나 휨을 기둥이 전혀 拘束하지 않고 보와 기둥이 圧着 가능한 方法을 採用하는 것이 重要하다. 그림 9는 Precast 보A를 假 支持台로서 支持하고 Precast Prestressing concrete 보에 配置된 緊張材B를 기둥에 조이는 目的으로 設置된 緊張材C와 Coupler로서 接續延長하여 Concrete Joint D를 打設한다. 그後 Joint D部分이 硬化할 때 緊張材B와 C에서 各各 緊張力을 緩和시켜서 Concrete Joint D를 壓着하여 剛接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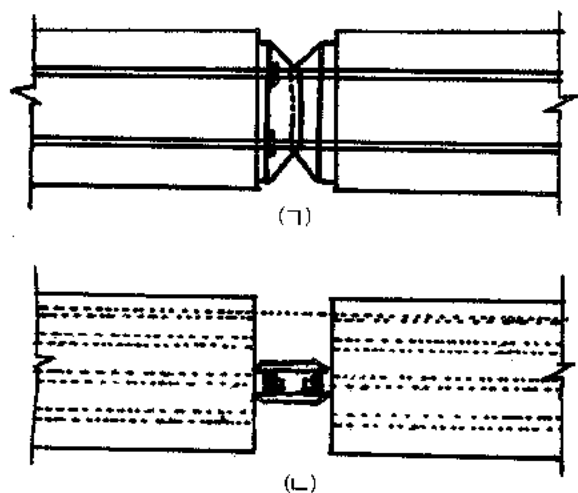


그림 12 보의 中間이음의 例

이 때 緊張材C의 引張力을 緊張材B의 引張力 보다 조금 크게 하므로써 緊張材B의 nut E가 뜨는 傾向이 생기고, 보A가 伸長하려고 하기 때문에 Concrete Joint D를 壓縮한다. 同時に 조임用 緊張材C의 引張力이 기둥을 伸介로 하여 Concrete Joint D에 傳達되고 Concrete

Joint에는 precast PS보 A와 같은 程度의 緊張力이 導入되어 剛接點을 形成한다. 조임用 緊張材C의 引張力을 故意로 크게 하지 않아도 precast prestressing concrete보 A의 緊張力은 Creep에 의하여 多少 減退하기 때문에 緊張材C의 引張力은 계획된 導入 引張力을 採用하면 된다. 이와같은 緊張力에 따라 Concrete Joint는 縮少되거나 Precast prestressing concrete보는 이미 緊張力이 導入되어 部材의 길이 變化 및 휨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둥이 内部側으로 緯어져 節點에 不靜定力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一體式 架構일때와 같이 보는 緊張力이 기둥에 의하여 阻止되어 不完全한 緊張力 導入이 되지 않는다. 剛接이 끝난後에 直時로 보 緊張材 B및 조임用 緊

張材C에 對하여 Grout를 施行한다. 이 方法은 조임用 緊張材C가 보는 緊張材B와 簡單히 接續될 수 있는 것이 必要하다. 따라서 Coupler에 의한 接續延長이 簡單한 PS 緊張材를 使用할 때 便利한 工法이다. 이 工法에 의한 剛節點의 性質에 關하여서는 實驗으로 研究되고 대단히 잘 된다는 것이 明白하다. 上記의 方法으로 PS 보를 기둥 側面에 壓着할 때 기둥은 鉄筋콘크리트 기둥이거나, 鉄骨柱이여도 無關하다. 또한 작은보를 큰보 腹部에 壓着하는 境遇에도 使用된다. 多 Span 架構의 境遇에는 그림 13에 表示된 方法으로 架構를 順次的으로 建設하여 간다. 同圖(가)은 現場 打設 PS보를 使用한 境遇로서 各 Span의 PS보와 기둥 사이는 最初 Concrete Joint 部分 A, B만 남기고 콘크리트 打設을 한다. 다음에 먼저 1 Span의 PS보 ①에 緊張力을 導入하고 조임用 緊張材를 接續하는 것이나, 이 境遇, 이것을 다음 Span의 PS보②를 貫通시켜서 Joint B까지 延長시킨다. Joint B에서 緊張하면 보②에 緊張力이 導入되는 同時に Joint A 에도 緊張力이 들어가고 A點도 剛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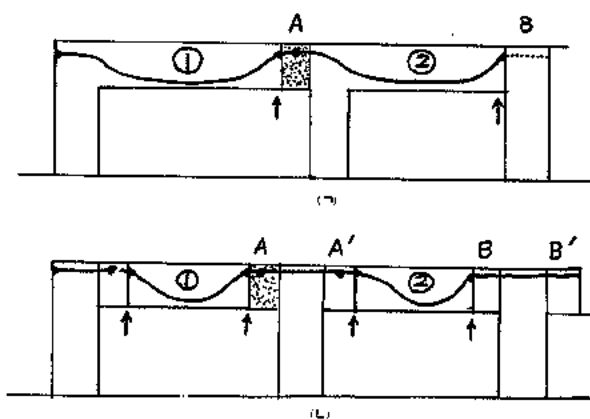


그림 13 多 Span을 가진 架構의 剛接法

同圖(나)는 Precast Prestressing Concrete 보를 使用할 때로서, Grout하지 않은 PS보 ②를 假 支持台로서 支持하고 Precast 보①의 緊張材와 보②의 緊張材와를 接合하는 緊張材를 기둥에 貫通시켜 붙이고, 보②의 緊張材의 引張力을 緩和시킨다. 그後에 直時 Joint A' 側의 nut을 充分히 緩和시켜놓고 Joint A 및 A'에 콘크리트를 打設한다. 그리고 콘크리트가 硬化한 後에 ②의 Joint B側에서 다시 緊張材를 所定の 引張力으로 緊張하여 礎着하여 剛接하면 끝나게 된다. 보②의 最初에 導入한 緊張力은 한번 開放된 것이므로 自重을 支持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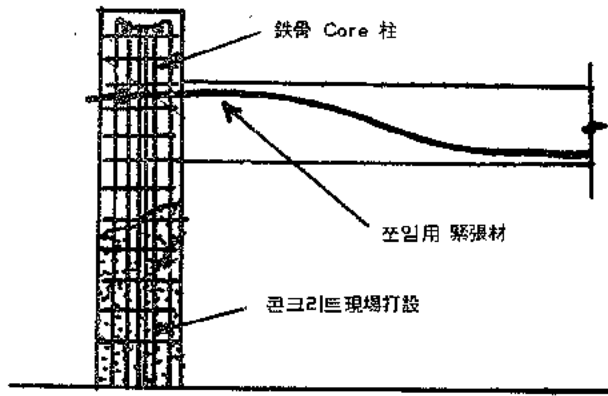


그림 14 鉄骨Core柱를 사용한 剛接法

을 정도의 緊張力을 導入하여 두면 充分하고 全 緊張材를 조이고 最終적으로 緊張力을 導入할 必要는 없다. 그림 14는 기둥 가운데 鉄骨 core柱를 設置하고 여기에 PS보를 剛接하여 假 支持柱로 하여 그 周辺에 Concrete를 打設하여 硬化後 기둥 外側面에서 다시 緊張하여 剛接하는 方法으로서 그림 9의 方法을 應用한 것이다. 即 먼저 PS보의 假 支持대가 되는 鉄骨 core柱를 세우고 同時에 PS보를 現場 架設位置에서 製作한다. 緊張材는 圖示한 바와 같이 鉄骨柱 外側面까지 延長하여 두고 콘크리트 硬化後 鉄骨柱 腹材를 耐圧板으로 하여 보에 緊張力을 導入한다. 이 때 鉄筋柱는 보 自重을 支持할 수 있을 程度의 軟弱한 것으로도 된다.

따라서 보의 緊張力 導入에 의한 部材 길이의 縮少 또는 힘을 거의 妨害하지 않고, 보에 緊張力을 完全히 導入시킨다. 다음에 보의 緊張材에 조임용 緊張材를 接續 延長하고 鉄骨 Core 柱 周辺에 콘크리트를 打設하고 硬化後 조임용 緊張材를 緊張 錠着하여 剛接을 完了한다. 이 方法은 長大 Span이고 重量이 큰 PS보의 架設에 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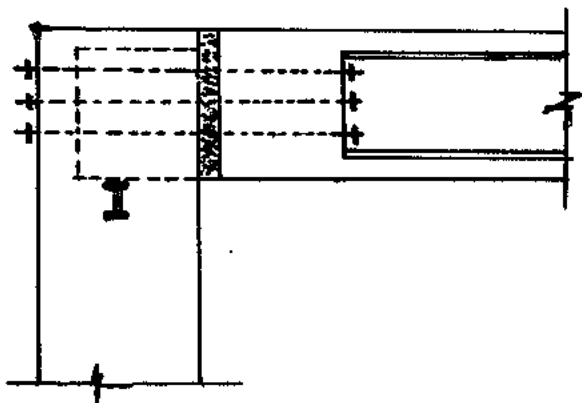


그림 15 조임용 緊張材를 사용한 美國의 剛接法の 一例

用되고 그림 9의 鏡遇와 같이 PS보의 假支持대를 特別히 設置할 必要가 없다는 點에서 잘 되어 있다. 鉄骨 Core 柱가 윗層까지 延長되어 있는 境遇로서, 特히 조임용 緊張材를 使用하여 緊接할 必要는 없다. 여러 學者들의 實驗에 의하면 PS보의 端部에 壓着되어 있는 鉄骨柱가 보의 端部 모멘트를 完全히 傳達한다. 그림 15는 美國에서 實施하고 있는 기둥 側面에 Precast prestressing concrete 보를 壓着하는 方法이다. 기둥은 PS보의 Stem 端部를 延長하여 걸쳐있는 狀態이고 보의 端部를 기둥에 걸친 狀態를 地上에서 製作하여 Grout한다. 이때 보를 所 定の 높이까지 올리고, 기둥 側面에서 짧은 rail을 插入하여 보를 받고 기둥과 보 사이는 물탈로서 매운다. Joint가 굳어지면 보端部の 擴大部와 기둥을 그림과 같이 조여 剛接한다. 이 方法은 鋼構造에서 보의 web angle에 의한 붙이는 方法과 類似하다. 조임용 緊張材는 길이가 짧고, 緊張力이 不確實하게 되는 欠點은 있으나, 보 는 인제나 兩端에서 기둥에 조이게 되고, 多 Span 架構에도 利用되는 利點이 있다. 美國에서의 工事例로는 Span 40m, 조임용 緊張材 길이 2.5m, 모두 Freyssinet cable을 使用하여 施工하고 있다.

〈新刊案内〉

建築構造力学 및 練習

정 일 영	4 × 6 倍版
김 근 덕	460 面
박 병 용	民音社
김 덕 재	發行
김 용 부	定価 4,500 원

共著

建築構造力学

鄭 日 榮 著

定価 2,200 원
東 明 社 發行

프리패브 建築構造의 設計原理

金 德 在

프리패브 (Prefab)란 建築의 生産活動의 일환으로 現場 工程에서 工場工程으로의 移行을 의미한다. 즉 建築의 産業化 過程으로 먼저 部分品을 生産하고 다음에 이를 組立하여 建物을 完成하게 되므로 프리패브 建築을 통하여,

1. 工期的 短縮
2. 材料의 經濟性(거푸집, 비계등)
3. 建築生産의 連續性
4. 工法의 効率性(規格化·機械化)
5. 國內生産資源의 活用
6. 建築의 質的向上

등 여러가지 利點을 구사할 수 있다.

물론 住居建築에 있어서의 個人性의 追求, 프리패브 建築의 機械的 單調모음등의 缺點은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實際 設計에 있어 建物의 方位나 配置, 가로환경 (Street Furniture), 마감材料等に 變化를 준다든가 建物의 크기와 形態를 變化있게 調節한다든가 wet cell, 階段室, 間壁, 가구 등의 位置나 이들 材料들에 대한 選擇의 多樣化등으로 内部空間에 變化를 줌으로써 建築費의 引上이나 其他 여러 利點에 拘束이 없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프리패브 建築의 構造方式은 表 1. 과 같이 一般的으로

1. 耐力壁構造
2. 骨組構造
3. 箱形構造

인 3가지로 大別되나 프리패브 建物을 設計한다는 것은 實際에 있어 매우 복잡한 課業이다. 새로운 構造 方式에 의한 프리패브 建物을 計劃하는데는 生産技術의 問題와 建設方法의 問題를 充分히 理解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프리패브는 大量生産과 깊은 關係가 있으므로 生産期間의 短縮이나 使用 材料量의 減縮은 生産價格에 크게 影響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設計者는 프리패브 建物의 構造概念에 대한 幅넓은 知識의 所有者이어야 하며 만일 이들이 Architect이자 Engineer라면 가장 理想的인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建築産業의 發展이 새로운 構造方式에 관한 研究와 그의 建設方法에 依存한다 하더라도 經濟的인 利得은 既存의 知識에 의해 實証된 設

筆者: 中央大學校理工大建築工學科 教授

計와 技術이 충분히 發揮됐을 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의 基本原理가 設計에 앞서 考慮되어야 하며 다음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표 1. 프리패브 建築의 構造方式

- | | |
|---------|---|
| 프리패브 構造 | 1. 耐力壁構造
(Bearing wall System) |
| | 2. 骨組構造
(Skeleton Construction System) |
| | 3. 箱形構造
(Box Unit System or Module) |

縱壁構造 (Long wall System)

橫壁構造 (Cross wall System)

兩壁構造 (Ring System)

보-기둥構造 (Beam & Column System)

無梁版構造 (Beamless Skeleton System)

開口式構造 (Portal Skeleton System)

開放形構造 (Open Module System)

閉鎖形構造 (Closed Module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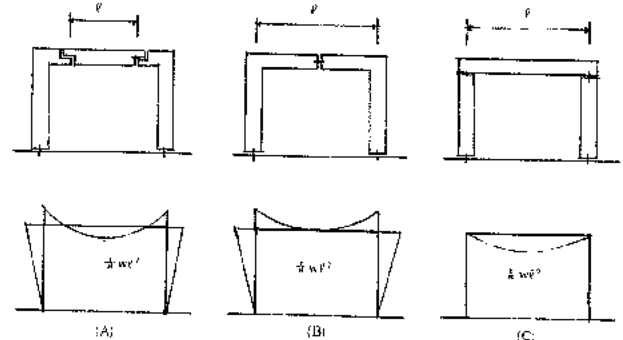


그림 1. 프리패브 構造의 單純化

1. 單純化(Simplification)

프리캐브(Prefab Unit)는 産業化된 建築生産에 기반을 두고 있다. 産業化 建築의 基本은 勞動力의 機械化, 大量生産, 生産의 利便性이다. 따라서 構造自体뿐 아니라 構造方式에 있어서도 모두 單純化되지 않으면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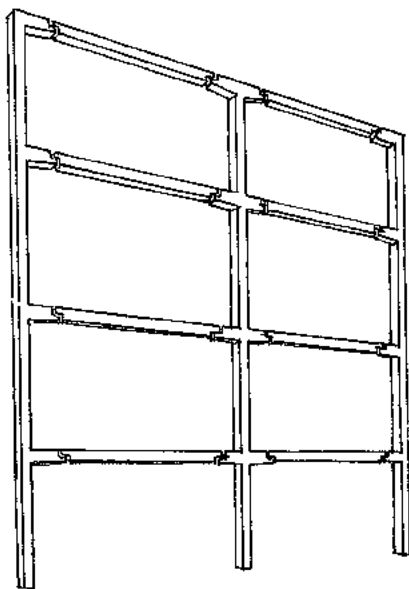
그림 1 에서 構造物을 프리캐브 構造로 解決하는 方法을 예로 생각해 보기로 하자.

(A)의 경우 휨모멘트(Bending Moment)의 크기는 적으나 部材를 세우고 맞추기 힘들며 이를 위해 타이바(Tie Rod)를 要하게 된다. (B)의 경우, 部材의 運搬이 어렵고 특히 水平連結 方式을 사용하기 때문에 部材의 세우기 맞추기가 힘들며 역시 이를 위해 타이바를 要하게 된다.

(C)의 경우, 휨모멘트는 크지만 간단히 세우며 맞출 수 있다. 따라서 모든 接合點은 그 數가 적고 單純해야 한다. 部分品 自体의 形態도 단순해야 生産工程의 短縮으로 Cost가 절감된다. 가능한 限 구멍이나 Insert, 모서리(Edge)등은 피해야 한다. 部分品の 組立이나 特殊工法을 위한 支柱(Support)도 단순해야 하고 거푸집 工事도 쉽게 수리 또는 철거할 수 있도록 简单地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同一 構造内에서는 同一方法에 의한 거푸집 工事와 同一 도구 및 장비의 사용으로 施工自体의 單純化를 기할 수 있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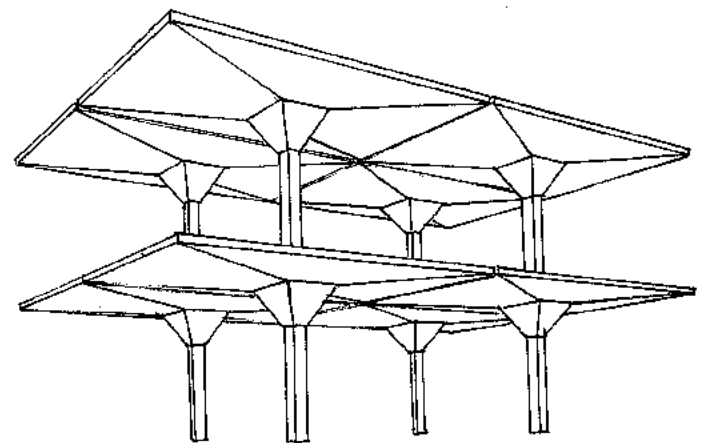
2. 最小部分品化(Fewer Elements)

프리캐브 建物에서 工期의 短縮, Cost절감을 위한 作業의 Routine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限 最小限의



Multi-story Lambda 構造

그림 2



버섯形 構造

3. 規格化(Standardization)

規格化는 靜的變化(材料 및 마감의 多樣性)에 대한 規制를 意味하지만 이러한 規制는 作業의 連續性을 增進하므로 오히려 變化에 의한 손실을 없앨 수 있다. 이 概念

의 適用範圍로는,

1. 生産品の 規格化
2. 生産過程의 規格化(作業條件・作業方法, 勞動力, Quality)
3. 生産價格의 規格化

까지 이르게 됨으로 部分品 生産에 앞서 다음의 여러 事項들에 關해 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 먼저 部分品の 生産은 尺寸調整 (Modular Coordination)이 그 先決問題 임은 말할 것도 없다. 部分品の 生産은 그 目標가 機械生産方式에 의한 大量生産이므로 同一 構造內에선 같은 장 비에 의해 作業이 可能하도록 모든 部分品の 크기와 무게 가 유사하게 規格化되어야 한다. 每 部分品에 要하는 구멍, insert, Recess 등은 가능한 限 모두 같은 位置나 같은 數로 配置하도록 計劃할 것이다. 部分品の 規格化는 보의 경우 이미 矩形, T형, I형, 逆T형 등 基本형태로 規格化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둥의 경우 여러가지 耐力構造上 規格化하기 어려운 點도 있으나 그림 3.에서와 같이 몇가지의 節點, 解析을 利用한다면 보에서와 같은 可能性을 發見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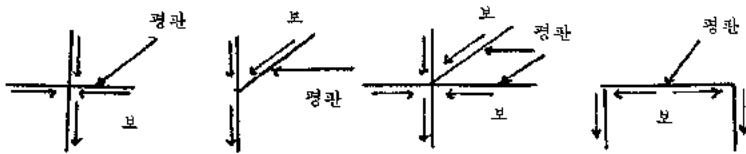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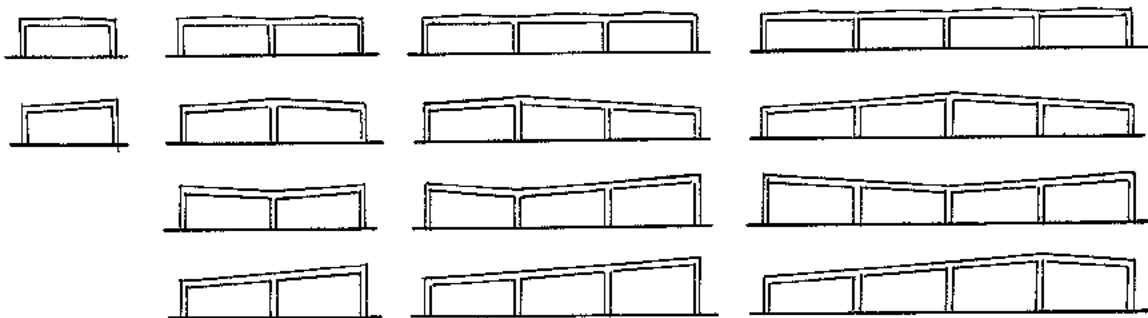


그림 3

또 그림 4는 3개의 部分品으로 무수한 Shed-type 單層建築物을 設計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그림 5는 같은 斷面, 같은 길이, 같은 配筋을 가진 한 Type의 部分品을 여러모로 組合, 活用할 수 있는 例를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建築設計에 있어서도 格子式構造 (Net work System)를 사용하는 등 이와 같은 構造方式의 채택은 프리 웨브 建築의 基本原理인 規格化의 좋은 結果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림 4. Shed type 프리웨브 구조



지붕·벽	
1	
2	
3	
지붕	
4	
5	
6	
마루	
7	

그림 5. 部分品の 組合과 規格化

日本の 諸建築法令 概要

本論文은 日本建築協會誌「建築と社会」5月号에 掲載된 内容으로서 日本國의 諸 建築法令에 對한 概要를 紹介한 것입니다.

—編輯部 註—

都市의 過密化的인 進展에 따라서 「市街地環境」에 對한 市民의 關心은 急速히 高潮되어 가고 있으며, 行政面에서는 지금까지에 없었던 多面的인 對應이 必要하게 되었다. 國家의인 水準도 이 數年間에 「市街地 環境」에 對한 各種의 法令을 制定하고 있으며, 各各의 行政的인 立場에서 環境問題에의 approach하고 있다. 本面에서는 建築基準法 集團規定을 中心으로, 市街地 環境의 整備 또는 保全을 目的으로 하는 代表的인 法律을 選定하고, 其의 趣旨, 内容들을 簡單히 紹介하고자 한다.

1. 國土利用 計劃法

國土利用 計劃法은 國土의 綜合的인 利用을 企圖함을 目的으로 하고, 土地利用 基本計劃의 作成, 土地 賣買의 規制에 對한 措置들을 定한 法律이다. 國土計劃 水準의 法律이므로 直接 市街地 環境에 對한 規定은 없지만 都道府縣 單位로 定하는 土地利用 基本計劃에 있어서 都市地域・農業地域・森林地域・自然公園地域・自然保全地域의 区分을 定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에 따라서 都市의 土地利用의 範圍가 明確하게 된다. 各各 地域內의 土地利用 規制는 都市・農業 등에 對한 別個의 法律에 委任하고 있다. 이 法律의 또 하나의 支柱인 土地의 權利移轉에 對한 許可 또는 届出은 土地의 投機的 去來를 防止하고 適正 價格에 따른 土地의 供給을 目的으로 한 것이며 健全하고 合理的인 土地利用의 形成에 間接적으로 寄與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2. 都市計劃法

都市 計劃法은 都市의 土地利用, 都市施設의 配置와 市街地 開發事業에 對한 計劃의 決定, 開發行為의 規制, 都市計劃事業의 施行에 對한 事項을 定하고 있다.

土地利用에 對해서는 類似한 用途를 될 수 있는대로 묶어서 純化시키는 것과 各用途를 될 수 있는대로機能上效率을 높이고 또相互적으로惡影響을 미치지 않게 配置하는 것을 基本으로서 생각하고 있으며, 具體的인 實現手法 으로서 市街化 區域과 市街化 調整區域의 設定, 用途地域, 特別 用途地域, 特定市街區, 風致地區 등의 地域地區가 마련되어 있다. 地域地區의 建築物의 制限은 一般的으로 建築基準法에 委任하고 있지만 臨港地區, 駐車場整備地區, 流通業務地區 등 特別한 整備 目的을 가진 地域地區에 對해서는 그 各各의 法律로서 制限 內容을 定하고 있다.

都市 計劃法의 都市 施設에는 道路・公園・下水道・河川 등의 公共施設 以外에 水道・電氣供給施設・學校・圖書館・病院・福祉施設等 都市 住民이 生活하는데 있어서 必要한 施設이 包含하고 있다. 都市計劃法에 있어서 이러한 「都市施設」의 位置 決定에 對한 事項, 都市計劃上 決定된 「都市計劃施設」의 事業認可에 對한 事項과 計劃決定 및 事業認可 施設內의 建築制限에 對한 사항이 定해져 있다. 都市施設의 計劃決定은 반드시 公的인 機關이 設置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으며 民間이 設置하는 病院・市場・教育施設・處理施設 등의 施設도 對象이 되지만 現實에 있어서는 民間施設이 計劃된 決定의 예는 적다.

市街地 開發事業은 都市計劃 區域內에서 積極적으로 整備하고 開發해야 될 市街地의 範圍와 그 整備의 方策에 對한 規定인 것이다. 그 種類에는 土地區劃 整理事業, 新住宅市街地開發事業, 市街地再開發事業, 新都市基盤整備事業과 首都圈 및 近畿圈의 工業團地 造成事業 등이 있지만, 이러한 事業은 特定한 區域에 따라 道路・公園・下水道 등의 都市 施設과 建築物의 整備改善을 企圖함을 目的으로 삼고 있으며, 都市計劃中에서 가장 積極的인 環境整備에 對한 規定이라고 할 수 있다. 各 事業의 進捗方法은 各事業法에 委任하고 있다.

都市計劃法의 또 하나의 큰 支柱는 開發行為의 規制이다. 이 規定의 趣旨는 建築物 또는 工作物의 建築을 目的으로 하는 土地의 區劃, 形質의 變更을 知事의 許可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用途・都市施設 등의 都市計劃에 알맞게 健全한 市街地化를 企圖하는데 있다. 許可에 對해서는 詳

細한 技術的 基準이 정해져 있으며 道路·公園·排水施設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水準이 担保하도록 되어 있다.

開發許可는 都市計画法中에서 完結되어 있는 制度이지만 地域·地區의 하나인 風致地區도 이법에 包含하여 都市計画法으로서 制限基準까지 規制하고 있는 것이다. 風致地區에 대해서는 「風致地區內에 있어서 建築등의 規制基準을 정하는 法令」(昭和44)이 정해져 있다. 이 法令에서 風致地區內의 建築規制의 概要가 정해져 있으며 具體的인 制限內容은 地方公共團體의 條例에 委任되어 있다. 風致地區의 指定에 따라 建築物의 높이, 建蔽率, 外壁의 後退距離, 建築物의 形態, 意匠등을 制限하는 것이 可能하다.

3. 建築 基準法

建築基準法에서는 第3章의 소위 集團規定이 環境에 대한 規定의 中心을 이루고 있으며, 그 內容은 敷地와 道路에 대한 規定, 建築物의 用途制限에 대한 規定, 建築物의 形態制限에 대한 規定, 建築協定에 대한 規定등의 4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接道에 대한 規定은 建築物의 避難과 通行의 安全을 確保하는 것을 目的으로 삼고 있으며, 建築物의 敷地는 너비 4m 以上の 道路에 2m 以上 接近한다고 하는 原則을 정하는 것과 함께 特殊 建築物, 中高層 建物, 大規模 建築物등에 대해서는 地方公共團體의 條例에 따라 制限을 強化하도록 되어 있다.

用途의 規制는 都市計劃에서 決定된 地域地區에 따라 施行되는 것이며, 住宅地의 環境保全, 商業上의 편리와 그 增進等 각 地域의 指定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建築基準法の 「別表 第2」에 따라 建築物 用途의 限定 또는 排除를 하고 있는 것이다. 用途地域에 따른 建築物의 用途規制를 補完하는 것으로는 特別用途地區의 制度가 있다. 特別用途地區는 區域을 限定하여 用途地域과 重複되어 指定되는 것이며, 當該地區의 土地利用의 特殊性에서 用途地域에 따른 制限만으로는 環境의 保全 또는 商業등의 業務施設의 편리한 增進을 企圖하기 困難한 경우에 活用된다. base의 用途地域 制限을 強化 또는 緩和함으로써 한층 더 詳細한 用途規制를 하는 것이 可能하게 된다. 具體的인 制限 內容은 地方公共團體의 條例에 委任하고 있다. 織物·金屬物등의 地域産業을 保護育成하기 위한 特別工業地區·學校·圖書館 등의 教育環境을 保護하기 위해서 文教地區를 많이 指定하고 있다.

形態의 制限은 都市的인 規模의 環境保全과 隣接地 등 局地的인 環境保全의 두가지 立場에서 정해졌다. 각 形態 制限은 상방의 目的을 가지고 있지만, 容積率 制限과 建蔽率 制限은 前者의 「웨이트」가 높으며, 第1種 住居專用 地域에 있어서 外壁의 後退距離, 隣地斜線制限, 北側斜線

制限은 「웨이트」가 높다. 그러나 容積率制限中的 前面 道路 너비에 따른 制限은 작은 道路에 面接한 敷地에 많

은 容積의 建築物이 세워짐에 따라 交通上의 問題를 配慮한 規定인 것이므로 都市的인 規模라기 보다는 오히려 局地的 環境을 配慮한 規定에 가깝다. 또 第1種 住居專用 地域의 絶對高(10m)制限, 壁面線에 따른 建築制限 및 道路斜線制限은 상방의 目的이 相反하고 있는 것이다.

建築基準法の 形態制限은 모두 用途地域과 關한 制限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用途地域이 單純히 建築物의 用途面에만 主觀點을 둔 地域뿐만 아니라, 用途에 關聯하고 形態面으로서의 市街地의 存立도 包含한 地域이라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建築協定은 住宅地의 環境保存, 商街의 편리 增進 등 建物の 利用增進과 土地의 環境改善을 할 必要가 있을 경우에, 土地 所有者등의 全員 合意에 따라서 建築物의 敷地

·位置·構造·用途·形態·意匠 또는 建築設計에 대한 基準을 協定할 수 있는 制度이다. 建築協定은 이와 같이 거의 建築物의 環境에 대한 事項은 무엇이든지 協定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市街地의 環境 保全을 기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有効한 手段이 되는 것이다.

建築協定을 締結하기 위해서는 市郡面이 建築協定할 수 있는 趣旨의 條例를 정하는 것이 必要하며, 더우기 個別의 建築協定은 特定 行政庁의 認可를 받아야만 効力を 갖게 된다. 協定, 그 自体는 어디까지나 個人人間의 契約이므로 基準法の 一般的인 規定과는 다르므로 建築主事의 確認, 違反是正등의 措置에 結付하지 못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手續을 거침으로써 特定行政庁의 指導를 받음과 함께 公的으로 認知된 協定이 됨으로써 協定の 遵守에 대하여 心理的인 效果가 期待된다.

4. 生産綠地法

市街地 區域內에 土地 所有者등의 合意를 얻어 生産綠地地區를 指定하고 建築物의 建築等 開發行爲를 抑制함에 따라 좋은 都市環境의 形成과 都市近郊農地의 計劃的인 保全을 꾀할 目的으로 삼은 法律이다. 生産·綠地 地區에는 區劃整理等の 開發行爲를 한 區域內에 있어서 0.2ha 以上の 規模인 區域에 대해서 指定되는 第2種 生産綠地 地區와 그 以外의 市街化 區域內에 있어서 1ha 以上の 區域에 대하여 指定되는 第1種 生産綠地 地區의 2種이 있으며, 地區 指定이 되면 建築物와 其他의 工作物設置, 宅地의 造成등이 實質적으로 禁止된다. 그 反對 結付로서 地區의 指定 뒤 5年 또는 10年이 經過한때는 土地 所有者로부터 賣渡申請이 있을 때는 市郡面은 生産綠地를 時價로서 買入하지 않으면 안된다.

生産綠地 地區 指定은 市街化 區域內의 農家に 따라 營農의 機會를 주는 것과 함께, 市街化 區域內에 있어서 市街化의 範圍를 한층 더 限定함에 따라 都市施設의 效率的인 整備를 가능케 한다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5. 都市綠地保存法

生産綠地法이 주로 農地의 保全을 目的으로 하는데 대 하여 本法은 樹林地를 中心으로 하는 都市의 自然的인 環境의 保全을 目的으로 하는 것이다. 本法의 中心은 綠地保全地區의 指定으로서

良好한 自然的인 環境을 갖고 있는 民有地를 地域地區로서의 所定된 手続을 거쳐 綠地保全地區로 指定할 수가 있다. 指定이 되면 建築物 其他의 工作物 設置, 宅地의 造成, 木材의 伐採 등이 實質적으로 禁止된다. 이 行爲의 禁止에 대한 損失의 補償으로는 都道府縣은 買渡申請이 있을 때는 土地 買收의 義務를 갖게 되어 있다.

都市綠地 保全法의 또 한가지의 特徵은 綠地 協定이며 土地所有者들은 建築協定과 같이 全員の 合意에 따라

市郡面 長의 認可를 얻어 樹木의 保存, 植栽등의 綠化에 대한 協定을 締結할 수가 있다. 綠化協定에서는 또 各個人의 土地 所有者들이 協定을 締結할 수가 있다. 所謂 個人的인 協定の 金을 トレ 놓고 있으며 이것에 따라 에로서 「레캐로퍼」가 綠化協定이 된 것의 宅地分讓을 할 때의 手続을 簡素化하고 있다.

6. 屋外 廣告物法

屋外 廣告物法은 美觀風致的 維持와 公衆에 대한 危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屋外 廣告物의 表示場所, 方法에 대하여 必要한 規制基準을 정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制限의 內容은 都道府縣의 條例에 委任되고 있지만 法律로서는 廣告物의 設置를 禁止시킬 수 있는 場所로서 ① 第1種・第2種 住居專用地域 美觀地域 또는 風致地區 ② 文化財 保護法에 따라 指定된 建築法의 周圍, ③ 道路・鐵道등의 沿道 ④ 公園・綠地등을 廣告物의 表示 등을 禁止할 수 있는 物件으로서의 橋梁・街路樹・紀念碑 등을 들고 있다. 또 公衆에 대한 危害 防止의 必要에 따라서는 廣告物의 設置를 禁止할 수가 있다. 그 以外의 廣告物 設置에 대해서 美觀 및 風致的 維持上으로 볼 때 廣告物의 形狀・面積・色彩・意匠等の 條件에 따라 制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違反는 正에 대해서는 知事は 命令權을 가지는 것과 함께 已定한 경우에는 스스로 違反是正을 行使하는 權限을 가지고 있다.

7. 大氣汚染 防止法

大氣汚染防止法은 工場과 事業所에 있어서 事業活動에 따라서 發生하는 煙氣의 排出規制, 自動車의 排出「개스」의 許容限度의 設定등에 따라 國民健康의 保護와 生活環境의 保全을 기함과 동시에 被害가 생겼을 때에는 事業者의 責任을 明確히 함으로서 被害者의 保護를 기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다음의 公害關係 法과 같이 公害對策 基本法을 上位法으로 삼고 있는 法律이다.

本法은 硫黃酸化物, 塵埃와 有害物質(窒素酸化物등)의 煙氣에 대한 規制, 粉塵에 대한 規制, 自動車 排出「개스」의 許容限度, 大氣汚染狀況의 監視, 損害등의 規定이 되어 있으며, 煤煙등의 大氣汚染 物質에 대하여 排出基準・届出등의 手続이 詳細히 정해져 있다. 排出基準은 排出口에 있어서 許容限度를 정하는 것과 같이 施設의 集合에 따른 大氣汚染을 防止하기 위하여 모든 總量規制의 基準을 정하고 있다. 또 公害關係法의 特徵으로서는 大氣汚染에 대하여 發生 原因者의 無過失 責任을 明確히 하고 있다.

8. 水質汚濁 防止法

工場과 事業所에서 河川・湖沼・港灣・沿岸海域등의 公共用 水域에의 汚水排出規制, 水質汚濁 狀況의 監視, 被害가 發生한 경우의 損害 賠償에 대한 事項등을 정한 法律이다.

9. 惡臭 防止法

工場과 其他의 事業所에 있어서 事業活動에 따라 發生하는 「암모니아」 其他의 惡臭物質의 排出規制에 대한 法律로서 住居가 集合하고 있는 地域에 都道府・知事が 惡臭을 防止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고 指定한 地域에 대하여 주로 適用된다.

10. 騒音 規制法

工場과 事業所의 事業活動에 따라 騒音・建設工事に 따라 騒音 또는 自動車 騒音を 規制함에 따라 더우기 生活環境을 保全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具體적인 騒音規制는 住居가 集合하고 있는 地域・病院 또는 學校의 周辺地域 其他 都道府縣知사가 住民의 生活環境을 保全하기 위하여 騒音を 防止할 必要가 있다고 할 때 指定한 地域을 中心으로 行使하게 된다. 工場騒音에 대해서는 規制基準이 告示되어 있으며 住宅地등의 種類에 따라 晝間・朝夕・夜間別로 정해진 範圍內에서 知사가 具體적인 規制値를 정하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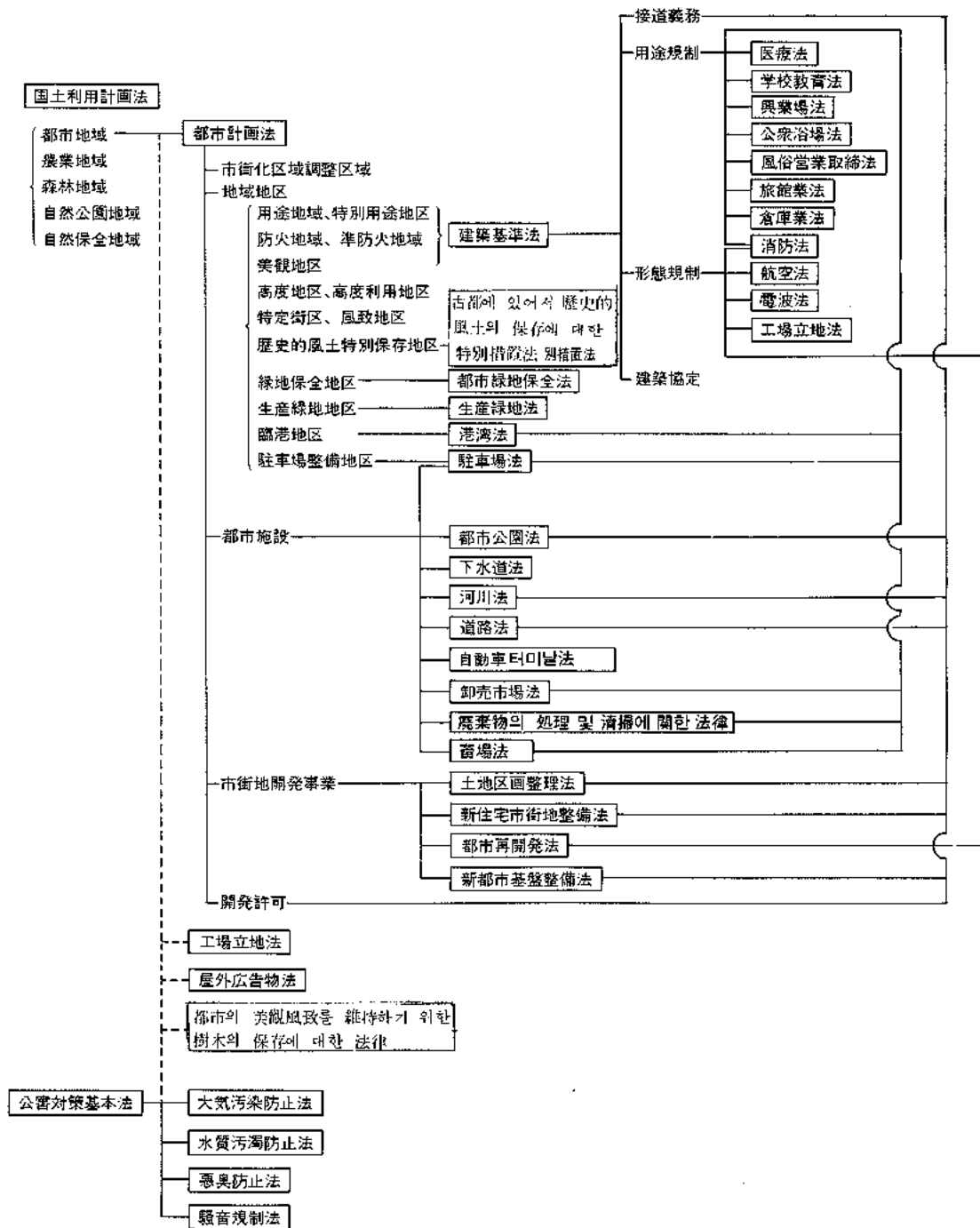
또 이 基準과는 別途로 公害對策 基本法에 따라 騒音의 環境基準이 바람직한 水準으로서 정해지고 있다. 前者가 特定の 發生源에 대한 規制基準인데 대하여 後者は 騒音を 받는 측의 受忍限界 基準의 性格을 갖고 있는 것이다.



以上 10가지의 法律의 概要를 說明하였지만 環境問題에 關聯하는 法律은 또 많이 있으므로 다음 圖表에 그것들중에서 重要한 것에 대하여 法律의 名稱과 其他의 關聯法令과의 關聯性을 圖表化하고 그에 대한 補充을 해 둔다.

(후겨가와가주다까, 建設住宅局市街地建築課)

市街地環境保全에 관한 主要法令



現代建築의 起源

Peter Blake



한 저명한 建築家이며 建築비평가는 建築의 결정적인원리들은 Le Corbusier, Mies van der Rohe, Frank Lloyd Wright 이 세 大家에 의해 규정 지어졌다고 했다. 그는 덧붙이기를 하지만 개인적인 영웅주의 시대는 지났다. 현 세대의 건축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새로운 과학기술과 새로운 설계 개념을 이용하는 문제이다.

Peter Blake는 10년동안 건축분야에서 미국잡지계의 선두권을 가지고 있었던 Architectural Forum의 editor였으며 지금은 Forum과 통합이 된 Architecture Plus의 editor이다. 그는 실제로 건축을 하는 建築家이며, 한때는 뉴욕에 있는 현대미술박물관에서 건축과 산업디자인의 총지휘자였다. 그의 저서 "Master Builders"는 건축의 현대적 동향에 관한 대표저서중 하나로 널리 애호를 받아오고 있다.

(編輯部)

建築歷史中 어느 時期도 19世紀에 있었던 만큼 많은 급진적인 變化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人口의 急激한 膨脹壓力속에서 人間努力의 모든 分野에서 새로운 開發이 進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開發로 建築分野만큼 팽창한 것은 어느 分野에도 없다.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지어야만 했고 또 대도시 중심지역에서 일해야만 했기 때문에 建築業者들은 垂直的인 建築을 알아야만 했다. 科學技術은 두가지 중요한 tool를 공급해 주었다. 지반면에 어마어마한 두께의 벽을 세우지 않고도 고층까지 올릴수 있는 鉄骨造 建築, 그리고 기계에 리베이터이다. 더욱 더 많은 商品들이 大規模의 作業過程으로 大量生産되기 때문에 建築業者들은 연속적인 支間으로 대단히 넓은 공간을 덮을 지붕 만드는 方法을 배워야 했었고 科學技術은 鉄筋과 유리로 된 큰 홀, 鉄筋콘크리트 궁륭이라는 문제에서 해답을 다시 만들어 내야만 했었다. 대중사회 技能을 円滑히 하기

위해서는 輸送手段과 交通手段은 필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建築業者는 큰 교량, 육교, 대철도, 운하, 항구등을 건설하는 것을 알아야만 했었다.

現在 우리 일상 생활에 일부가 되어 있는 빌딩 形態의 대부분은 1850年以前에 存在하지 않은 것들이다. 現代式工場, 現代式 高層建物, 쇼핑센터, 現代式 學校, 現代式病院 이 모든 것들은 19세기 중엽 전까지는 거의 없었던 完全히 새로운 發明品들이다. 建築家들이 새로운 形態의 빌딩을 처음으로 開發할 때에는 그들은 새로운 건물에 알맞는 스타일을 發見하느라고 무척 고심하게 된다. 19세기는 절충주의 時期였다. 모든 훌륭한 建物(建築家들이 생각하기에)은 中世的 낭만주의나 古典的 르네상스 式의 전례 스타일을 따라야만 했다.

새로운 어휘

중세나 르네상스時代에 高層建物에 對한 前例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강철 공장과 鐵路格납고의 前例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몇몇 建築家들은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建物は 純粹한 建築이라기 보다는 技術領域에 속한다고 아주 단순히 決定해 버림으로써 이 문제를 회피했다. 다른 建築家들은 절충주의 양식을 새로운 建築形態에 맞추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했다. 이 새로운 문제에 정면으로 부딪쳐서 이 問題들 속에서 그들의 창작活動에 큰 도전임을 發見했던 建築家는 극소수였다. 이러한 극소수의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은 어떤 다른 시대의 빌딩들과도 비할 바 없는 훌륭한 創作品을 보여주고 있다. 한 세대 동안에 이러한 소수의 개척자들은 빌딩형태의 새로운 어휘를 전적으로 만들어냈으며 또 이러한 각각의 빌딩형태에 특징적인 자재의 외관을 부여했다.

이러한 初期의 開拓者들은 建築歷史의 한 部分을 차지한다.

시카고 建築家인 Louis Sullivan은 거의 혼자서 高層建物形態를 建築에 導入했다. 1851년 런던 수정궁을 세

운 풍치적인 도시계획 디자이너 Joseph Paxton과 그의 전후 영국, 불란서, 독일, 미국 등지에 철강과 유리로 된 유명한 建築物를 創作한 몇 사람들이 있다. 드디어 金屬, 유리, 돌과 관련하여 純粹한 構造와 形態의 特性을 強調하는 理論家와 熟練家가 나왔으며 그들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現代建築의 基礎를 決定하여 주었다.

아직도 時代思潮, 과거에서 벗어나려는 이러한 建築家들의 마존과 엔지니어의 活動없이 는 또 세기의 전환점에 있었던 새로운 機構로 그들이 다루어야 할 것을 本能的으로 알았던 6명의 偉大한 建築家들의 出現없이 는 現代建築은 단순히 實用的인 解決策以上の 發展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나의 책 "Master Builders"에서 나는 이 3소그룹을 고찰하기 위해 선택했다. Le Corbusier로 더 잘 알려진 스위스 태생이며 후에 불란서 시민이 된 Charles-Edouard Jeanneret, 독일 Rhine 지방 태생이며 후에 미국 시민이 된 Ludwig Mies vander Rohe, 웨일즈 제통의 미국인 Frank Lloyd Wright이다. 단지 이들 세 사람만이 현대 건축을 이룩한 것은 아니다. 現代建築의 어떤 領域에는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功獻을 한 사람들이 있다. 1920年代에 獨逸의 Bauhaus學校를 總指揮했고 後에 하바드大學校 建築大學을 이끌 어왔던 Walter Gropius는 建築教育, 빌딩의 産業化, 社會的인 問題分析 分野에 現代의, 理論的인 근거를 수립하는 데는 이들 세 大家들보다 확실히 더 많은 공헌을 했다. Eric Mendelson, Alvar Aalto, Richard Neutra, 그리고 몇몇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뽑아낸 이 세 사람들 보다 實質的인 性質上의 많은 解決을 해냈다. 이 大家들이 때때로 대단히 원시적인 실험을 하고 때때로 굉장히 환상적으로 논의했던 새로운 建築技術의 可能性을 이들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Robert Maillart, Eugene Freyssinet, Pier Luigi Nervi 같은 엔지니어들도 있었다.

詩的인 Visions

Le Corbusier, Mies, Wright는 그들이 예술가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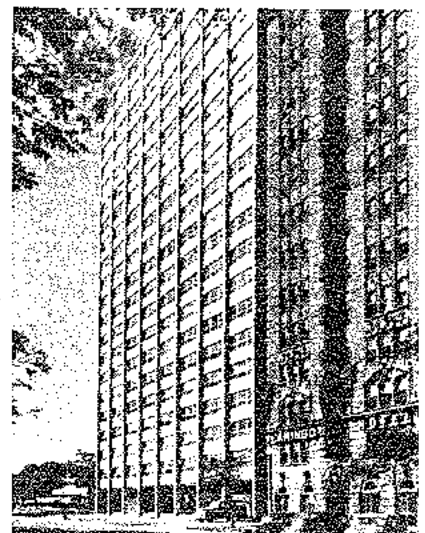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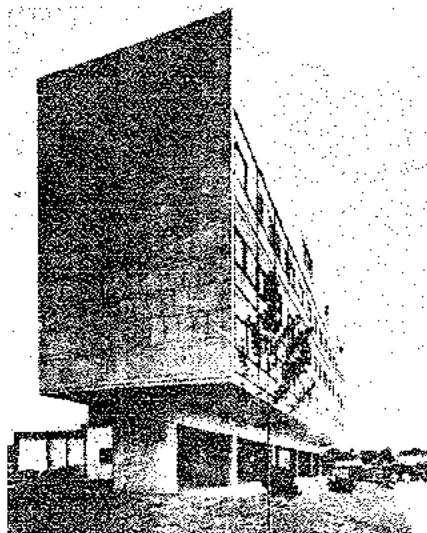
더욱 유명하기 때문에 그들의 時代の 어떤 인물보다도 중요하게 나타난다. 이들 세사람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하나의 詩的인 vision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詩的인 vision에다 형태를 부여하려고 노력하면서 어떤 평범한 한계점에 방해를 받곤하는 이론적인 사람들보다 좀더 진보적이었고 대담하였다. Frank Lloyd Wright의 초기의 평지붕중 많은 것이 새였으며, 아마 Chartres 도 새였을 것이다. Le Corbusier의 많은 콘크리트 작품이 굳이 갔다. Parthenon 신전도 그랬다. Mies vander Rohe의 건물도 항상 완전한 것만은 아니었다. Hadrian의 villa도 완전치 못했다. 중요한 건물들은 몇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다. 첫번째 생명은 그 빌딩이 完成됨으로서 始作되는데 그 빌딩의 成功, 失敗는 그 빌딩이 일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두번째 생명은 모든 사람이 예산, 안락도, 계획면에 있어 그 建物の 수행여부를 잊었을 때 즉 한 世帶나 두 세대후에 시작된다. 그때에는 그것은 單純히 하나의 作品으로 좋다, 나쁘다, 평범하다는 등의 평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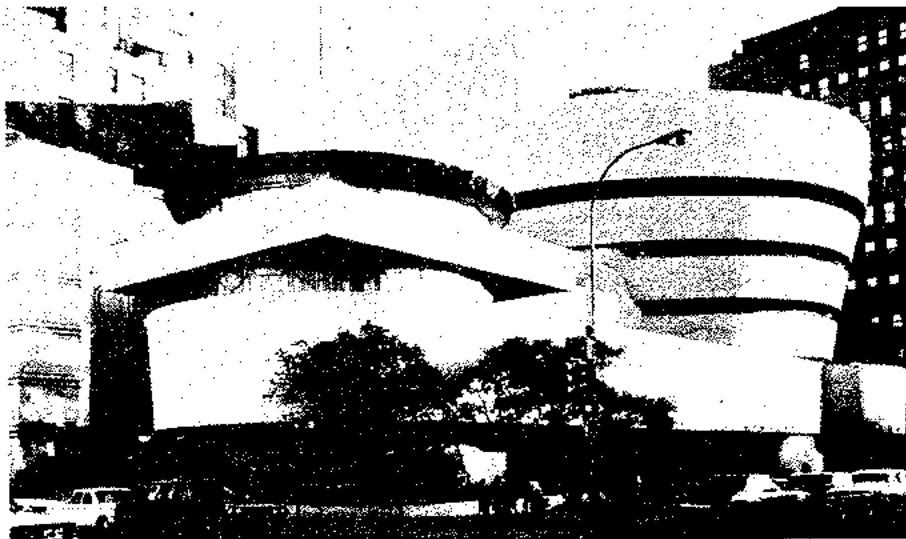
Le Corbusier, Mies, Wright에 의해 設計되고 建設된 빌딩의 대부분은 아직도 첫번째 生命의 일을 完遂하여야만 한다. 사람들은 아직도 그 建物들이 얼마나 비싸며, 얼마나 機能을 잘 發揮하는지, 그것들이 너무 덥거나 춥거나 하는지, 즉 지붕이 새는지의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세 사람을 選擇하여 이들을 그 시대의 代表的인 建築家로 부르는 것은 나소 危險을 內含하고 있다. 하지만 一生 동안일지라도 한 藝術家의 偉大함을 側定할 수 있는 하나의 基準이 있다. 즉 그가 자기 時代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한 影響을 주었는가, 또 그의 時代에 얼마나 눈에 띄는 業績을 남겨 놓았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이들 세 사람의 作品이 없었다면 오늘날 세워진 어떠한 現代의 빌딩도 그 方法을 찾지 못했을 것 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Manhattan에 있는 Leve House는 어떠한가? 그 토대들은 Le Corbusier에 의해 되어졌고 유리벽은 Mies에 의해 만들어졌다.

左 Le Courbusier: 파리, 대학도시의 Swiss Pavillion

右 Mies van der Rohe: 시카고 Promontory Apartments





Frank Lloyd Wright
뉴욕시의 Guggenheim 박물관

U. N 본부는? 최초의 計劃案을 그가 직접 말지는 않았지만 Le Corbusier 없이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Detroit 근처에 General Motors Technical Center는 어떠한가? 分明히 Mies Van der Rohe의 노작이다. 곡선의 shell형태 구조로 올라가는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은? 분명히 Frank Lloyd Wright의 유연성과 연속성의 概念의 새로운 解釋이었다. 즉 流動的 功果와 流動的 構造의 展開이었다. 불쑥 나온 지붕과 많은 面積이 유리로 된 單層 집 이것은 역시 Wright 작품의 부산물이다.

Le Corbusier, Mies, Wright는 대단히 다른 特性과 文化的 根原속에서 西部世界의 主要 傳統을 表現하고 있다. Le Corbusier는 古典傳統의 繼承者이다. Mies는 고딕전통의 詩的건축을 참고하기를 좋아하며 Wright는 永遠한 無政府主義者이며 절대적인 自由擁護者로 美國革命精神의 繼承者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表現하는 個人的인 特性과 그들의 作品에 表現하는 그들의 傳統과 思想은 建築以上の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建築은 單純히 좀더 나은 世界에 대한 그들의 思想을 表現하는 언어에 不過하다. 세 사람은 또한 20世紀의 政治的 文化에 관련되었었다. 하지만 이런 問題들은 이 세 建築家들의 作品活動을 活氣차게 하는 큰 vision에 비하면 별로 중요한 것은 못되었다. 藝術의 歷史는 藝術家에 의해 만들어지자, 壓力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Le Corbusier의 Ronchamp 교회, Mies의 Barcelona Pavilion, 또는 Wright의 Taliesin West을 창작한 것은 경제적, 사회적, 科學技術的인 어떤 壓力도 없었다. 우리가 알듯이 이러한 重要한 建築에 의해 表現되어지는 個人的인 創造的인 活動없이는 現代建築은 存在하지 못했을 것이다.

建築의 未來像

建築의 未來는 個人的 業績에 의해, 뿐만 아니라 가장 創

造的인 藝術家까지도 履行해야 할 어떠한 사실에 의해 表現되어 질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科學技術, 政治的 狀況, 人口統計學, 都市와 郊外 開發像과 함께 다루어야만 한다.

첫 문제는 科學技術인데 스트레이트 강철 또는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는 빌딩은 그것이 有用하고 經濟的이며 함께 容易하게 섞이기 때문에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즉 Mies에 의해 이루어진 장방형 鐵骨構造— 그러나 조각적 表現에 關心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제한성을 줄지도 모른다—는 앞으로 대단히 役려해 동안 빌딩의 대부분의 형태를 지배함이 틀림없다.

이 구형의 鐵骨造는 새로운 패턴을 形成할 새로운 재료로 싸여질 것이다. 예를 들면 유리제품에 대한 전념은 때때로 우스운 것까지도 태두리한다. 오늘날 몇몇 建築家들은 3~4층의 막으로 싸는 建物을 실지로 세우고있다. 안은 모두 유리이고 부차적인 막들은 열, 빛, 남의 눈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계획된 다양하고 복잡한 고안품들이다. 참으로 유리 벽이 쓰여지고 있을 때까지는 그것에 부수되는 부차적인 재료들이 대단히 많아져 그것의 총 두께는 Jericho 지방의 벽 두께를 훨씬 초과할 것이다. 유리로 된 빌딩은 아마 오랫동안 存在할 것이다. 그러나 技術科學이 유리사용의 좀더 만족할 만한 方法을 發見했으면 좋겠다.

國民과 都市

약아울 數年동안의 建築像을 지배할 두번째 問題는 人口統計學과 다루어야만 한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도시들 周圍의 郊外로의 膨脹은 수평적인 계획과 建築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다. 典型的인 미국의 교회지역은 1에이커당 4~5가구의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다.

Wright의 이상적인 Broadcaro시를 위한 계획안은 도시보다는 Village의 인구밀도에 가까운 에이커당 1가구가 좋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뉴욕등지에서의 새로운 高層아파트

계획안에서는 인구밀도도 에이커당 400~500 가구이며 그 이상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양극단의 어떤것도 의미를 갖지 못한다. 교외로의 팽침은 모든 美国都市에 완전하여 이제는 광활하고 깨끗한 교외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都市居住者들의 極少数뿐이다. 그리고 都市의 조밀함은 이제 극심해져서 대도시내에서의 生活은 거의 파멸에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問題와 經驗에서 나온 有一한 理論인 解決은 지난 40年동안 Le-Corbusier와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 주장된 것이 있었던 것 같다. 높은 건물과 공원 지역의 분포가 상상대로만 된다면 에이커당 400가구의 그 自体로는 非人間的인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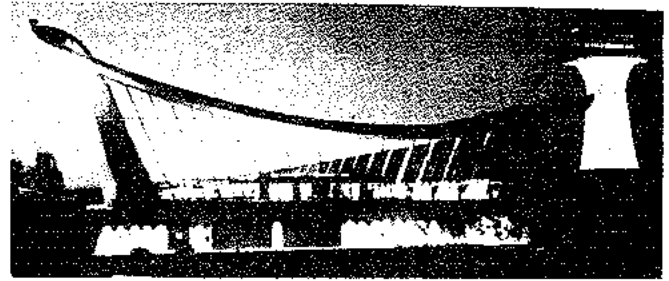
Frank Lloyd Wright가 主張한 都市分散은 아직도 空地가 많은 美国에서는 効果의일지 몰라도 유럽에서는 可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可能性이 희박하다. 하지만 이것은 적어도 확실할 수 없는 두가지 條件을 前題로 한다. 첫째 사람들이 都市에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가정한다. 두 번째는 事業과 産業이 小規模 單位로 분할했을때도 効果의일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의 어느 하나도 過去나 現在 經驗의 根據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分散政策이 圓滑하여지면 초고속輸送이 위성도시들과 다른 地域과를 往來하는데 모든 어려움을 克服할 것이며 모든 것이 가까운 곳에 있을뿐만 아니라 큰 都市도 강렬히 자극하는 어떤 動搖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都市를 좋아하는 사실을 무시해도 될 것이다.

“Background”와 “Foreground” 빌딩

이 모든 것은 未來는 Mies와 Corbusier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未來의 理想인 都市들은 公園情境을 해치며 쫓는 강방형의 유리, 강철 콘크리트 슬라브의 모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Wright의 진지한 努力이 아무 것도 아닌 結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까?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Yale 大學 建築課長 Raul Rudolph가 “Background”와 “Foreground” 빌딩의 創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안한 問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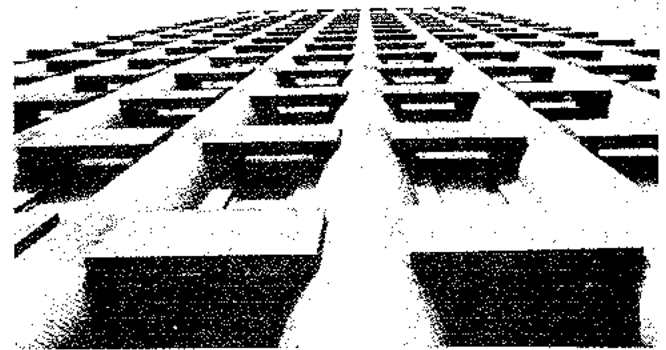
多細胞的인 構造의 빌딩 대부분—오피스빌딩, T場, 아파트, 病院—은 비교적 별 特徵이 없고 간단한 Background빌딩들인 것 같다. 이러한 큰 建物들은 空間形態를 만든다. 즉 都市의 形態를 만든다. 그 빌딩들은 큰 무대에 중심적이 되는 背景幕같은 것이다. 이러한 Background빌딩에 依해 만들어진 空間속에 여러 종류의 많은 建物들이 있을 것이다. 政府機關, 또는 宗教的, 公共團體를 象徵하는 建物들, 슈퍼마켓과 集會場所같은 연속적인 支間을 必要로 하는 建物들, 娛樂과 教育을 위한 建物들 이러한 “Foreground” 빌딩들은 Mies의 것과는 대단히 다른 構造—좀 더 彫刻的인 表現을 하고 있다. Le Corbusier는 이것을 대단히 잘 소화시켜 불란서 St,



Master Builders의 스타일을 개성화한 대표적 건물들

(上) Washington부근에 있는 Eero Saarinen이 설계한 Dulles공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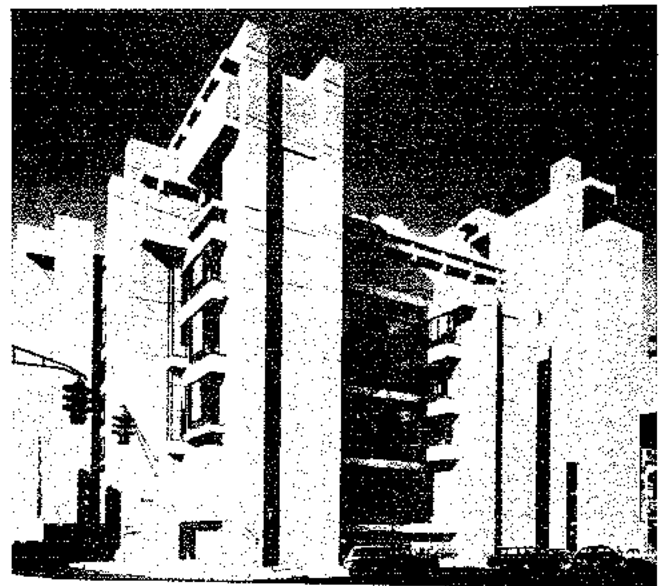
(下) Connecticut 주 New Haven에 세워진 Philip Johnson이 설계한 Kline Biology Tower



Die를 India Chandigarh를 위한 상상적 都市計劃案에서는 어떤 상징적 建物들은 核心的 배경막과 잘 대조시켜 큰 형태의 조각으로서 다루었다.

Eero Saarinen이 “형태에 대한 탐구”라고 부르듯이 現在 研究中에 있다. 이러한 탐구에서 Wright의 곡선작품은 굉장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으며 Le Corbusier 유연성으로의 침투도 그러했다.

이들 두사람은 이 새로운 형태는 어떤 훈련, 특히 보다 나은 技術의 訓練을 알때만 意味있다는 것을 주장해 왔다. 아직도 美国에서는 이러한 技術訓練을 위험할 정도로 무시해 왔다. 象徵主義 라는 이름아래 建築家들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技術原理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는 技能



Yale 대학에 세워진 Paul Rudolph가 설계한 건축과 미술관

的要求까지도 여기면서 큰 建築的 彫刻品을 만들어 내왔다. 저명한 이태리 엔지니어 Pier Luigi Nervi는 새로운 것과 技術에 대한 변태적 관심이 있을 것 같다고 지적해 뒀다. 두가지 점만으로 새로운 彫刻의 지붕모양은 建築에 있어 재빠른 손재주를 초월하는 建築的 모순이 있으며 이러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開發精神이다. 그들은 세기말에서 지금까지 근본적 건축의 원칙을 위반하면서 전개해 오고 있다.

새로움에 대한 요구

실지문제중 하나는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이다. 특히 美國에서 더 심하다. 6개월정도에서 새로와지는 것을 쫓아가지 못하는 建築家들은 뒤떨어졌다고 간주된다. 참으로 모든 藝術家들은 어느 정도 이러한 壓迫속에 있게 된다. 消費者에게 구매케 하고 市場을 원활케 運營하려면 정기적으로 새로운 스타일의 요구에 맞추어야 하는 소비 상품 지역에서는 이러한 압력에는 대단히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전에는 藝術에는 잘 적용되지 않았다. 過去의 偉大한 作品中の 몇몇은 사람들이 기억한다. 예를 들면 Florence에 있는 Chiberti가 만든 문들—이러한 作品들은 한 時代의 作品을 代表하며, 個人的인 創作性과 時代思潮사이의 基本的인 相互作用으로 하나의 內的確信을 끌어냈기 때문에 藝術의 方向을 決定的으로 전환시켰다. 象徵主義와 可塑性이라는 이름하에 오늘날 제시된 성급하고 화려한 형태들은 建築이라기 보다는 廣告나 販賣政策領域에 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새로운 것이 없어지기 시작할 때 Wright와 Le Corbusier에 의해 사용된 기술의 근본적인 原理들은 좀더 잘 理解되며 새로운 世帶의 建築家들에 의해 세워진 “Foreground” 빌딩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고유한 建築의 根本的인 原理로 돌아간다. 한편 한 문제가 더 남아 있다. 긴급히 요구되는 “background” 빌딩을 設計하는데 있어 충분히 만족될 수 있는가를 建築家가 어떻게 發見하는가 하는 것이다. 처음 10년동안의 現代의 움직임은 영웅이 있었다.

그 영웅들의 方法이 깊이 스며들었다. 영웅時代는 終末이 가까워오고 있다. 앞으로의 建築의 진정한 영웅은 都市 그 自体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建築은 都市의 要求에 따라야 할 것이다.

過去에서 거의 모든 세기동안 그랬던 것과 같이 都市가 建築의 주인이 될때다. 몇십년 동안은 都市는 個人主義者의 인 무책임한 자기 선전가들의 障礙物이 되어 왔었다. 이러한 광란을 자유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류이다. 그들의 무책임함 방비없는 것들에게 부과한 사람들의 면허권의 單純한 表現이었다.

美術은 彫工(공허, 공백) 속에서도 존재한다—한 고독한 藝術家의 創作品은 그에 의해 느껴지고 理解되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빌딩은 그렇지 못하다. 그것들은 끊임없이 비록 각을지라도 社會의 斷面에 부딪치게 된다. 建築은 대

단히 強力한 生活條件이며 강한 설복자여서 그것은 어떤 것—질서에 대한 혼돈에 대한 힘, 또는 대단히 지루한 無關心에 대한 壓力이 항상 있을 것이다.

調和된 文明社會를 만들기 위해서—이것이 建築의 目的이다—建築은 다시 秩序를 위한 힘이 되어야만 한다. 몇몇 비평가들은 建築的 秩序에 자유가 있을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 왔다. 事實上 秩序없이, 法則없이는 自由도 있을 수 없다. 現代建築의 많은 이야기를 썼던 3人들은 建築의 法則을 만든 사람들이다. 그들이 建築을 무시할 수 없는 物理的, 道德的 法則을 만들어 놓았다. 세 사람中 가장 自由主義者였던 Wright 까지도 르네상스 時代에 가장 規律를 嚴格히 지키는 建築家만큼 建築原理를 明白하게 적용했다.

새로운 통합

現代建築의 發展에 있어 다음 편은 Wright, Mies, Le Corbusier에 의해 展開된 概念들을 綜合해야 될 것 같다. 이 세 大家들은 그들이 한 때 나타냈던 것만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根源的인 建築의 Le Corbusier의 概念은 Wright의 낭만적 建築觀念보다 좀 더 지적인 것일지도 모르지만 어떤 文化的인 것과 기질상의 차이는 現在에 대단히 밀접하게 나타난다. 물론 Mies와 Le Corbusier사 이 어떤 투쟁도 있을 수 없다.

대부분 綜合함으로서 일해야 할 새 세대의 建築家들은 일하기가 힘들다. 綜合해야 될 대부분은 Mies와 Le Corbusier에 의해 증명된 것 같지만 단지 피상적으로 된 것 뿐이다. 실제로 Wright가 現代建築에 도입한 原理들이 再發見되어지고 再解釋되고 現代化되고 있다. Wright의 Scale에 대한 감각, 섬세한 것을 좋아하는 점, 빛과 공간을 다루는 습씨(이 두가지의 相互作用)들, 이 모두는 새로이 綜合해야 할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끌기 시작했다. 그러나 특히 繼續的인 가소성 建築에 魅力을 느끼고 있다.

Wright는 그가 建築이 되어질 수 있음을 아는데로 連續性과 가소성이 있는 建物를 실제로 建築하진 않았지만 그는 젊은 엔지니어의 作品속에 그의 꿈을 충족시키고 있다. Wright가 기꺼이 칭찬을 했던 當代의 有—한 建築物들은 스페인 엔지니어 Eduardo Jorroja가 만든 가소성 콘크리트 우산형과 아르젠틴 建築技士 Eduardo Catalano가 만든 쌍곡선의 포물면체이다. 이들 두 사람은 멕시코의 Felix Candela, 이태리의 Pier Luigi Nervi, 독일의 Frie Otto, 등 공동으로 作品을 하였으며 오늘 날 더 젊은 世代의 建築家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실제로 Wright의 理論을 現代化하고 合理化하고 실제로 만든 것이다.

美國에서는 고 Eero Saarinen이나 아직도 活動하고 있는 Philip Johnson과 Paul Rudolph같은 建築家 들은 Wright의 作品과 Mies와 Le Corbusier의 作品을 綜合

화하고 있다. Saarinen은 Mies를 위해 "Universal spaces"를 세웠지만 그것들은 Wright가 상상한 종류의 가상성 구조아래 두었다. Johnson은 아직도 建築의詩的表現에 苦心을 두지만 그 構造는 Mies의 철강 기둥과는 거리가 먼 점차 流動性的이고 조각적인 면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그리고 Rudolph는 실지로 細部的이고 空間組織, 빛의 혼합에 의한 빌딩 스케일을 樹立하는데 가장 關心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Mies를 찬양하면서도 Mies가 싫어하는 풍요함에 목적을 두는 Minoru Yamasaki가 덧붙여야 한다—제 2 세대의 중요한 建築家들속에 끼인다. 그들은 혁신가들도 아니다. 새로운 思想의 흐름이 압도적인 후 大革新이라는 것은 어렵다. 그들은 綜合하는 것 뿐이다. 그들이 Mies, Le Corbusier, Wright로부터 전수받은

세 가지 각각 다른 概念들 속에서 공통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일은 "Foreground"빌딩 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그들은 자존에 차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을 "background" 건축에 창작에 몰이고 있다.

構造와 機能의 原理

"Foreground" 건축에 중점을 두는 사람들은 신기함 그

자체를 위한 신기함에 너무 깊은 관심을 가질 위험성이 있다. 최근에 좀 더 널리 알려진 "Foreground" 구조들중 몇 개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지만 이 경우는 이 새로운 절충주의가 지나간 것이다. 建築家들의 세 世代는 Le Corbusier와 Wright가 그것들을 연관시키려고 했던 것 만큼 構造와 機能의 原理를 聯關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 것은 젊은 建築家들에겐 어떤 보기도 없음을 보여준다. 結局 Michelangelo는 그가 St. Peter의 dome을 디자인할 때 Florence의 Brunelleschi의 dome을 아주 기꺼이 따랐다.

우리 時代에 새로운 Michelangelo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위에 제시한 세 사람의 아이디어를 받아 들였을 거라고 믿는다. 첫째로 새 건축의 基本的 原理는 建築의 原則을 制定한 사람들에 의해 넓게 결정 되어지고, 둘째로 個人的인 英雄時代는 지나갔다. 셋째 未來의 英雄은 都市自体이다. 이러한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偉大한 藝術家의 새 世代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 原理를 전반적으로 理解함으로써 作品活動을 하고 새 方法으로 解積할

것이다. 建築이나 Disneyland나? 문명과 혼돈의 兩者擇一에 있다. "우리의 꿈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Le Corbusier는 말했다.

韓國建築史大系 全10卷

2. 韓國古建築斷章 上

申榮勳 著

- 各卷 352頁 46倍判
図版 及 図面 1,000余点収録
- 各種 新資料 豊富히 収録
- 新建築 設計, 施工에 応用될 切절한 図解의 収録

各卷 定價 6,000원

〈新刊案内〉 金 洄 建築評論集

우리時代의 거울

1975年 6月 1日 初版 發行

木口会出版委員會 發行

定價 1,000원

연락처 74-4622

「建築批評의 不毛를 안타깝게 여겨오던 우리의 建築街에 새 싹이 돋은 듯 本冊字의 孕胎를 祝賀해 마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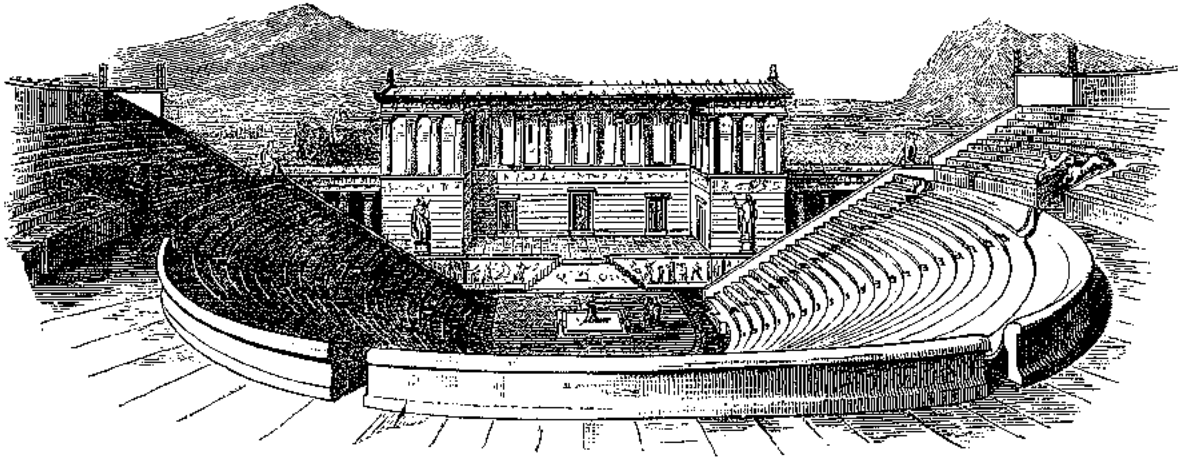
韓國建築의 正當한 批評의 發芽를 위해, 健全한 體系確立을 위한 對話의 討論을 기대하면서……

月刊「建築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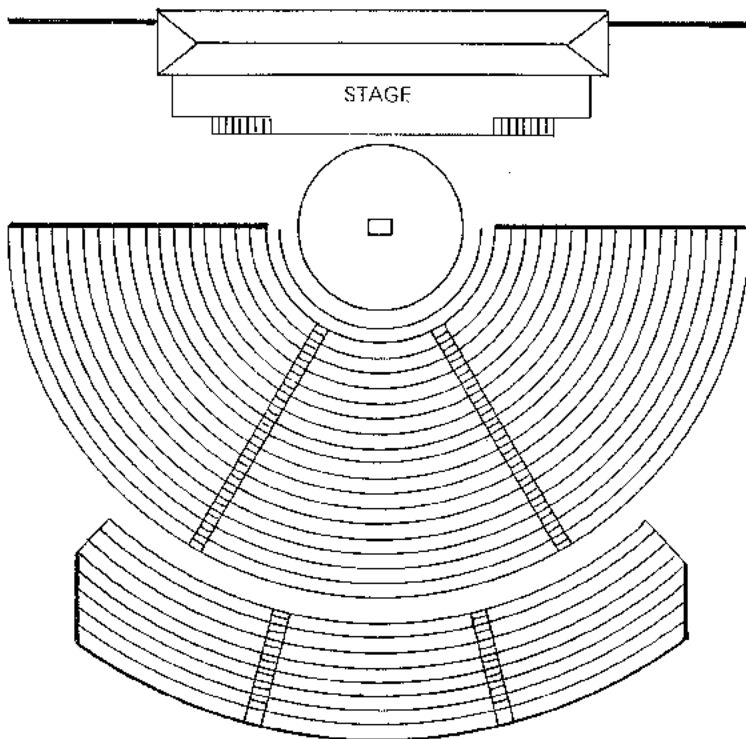
西洋建築의 樣式比較 (7)

劇 場 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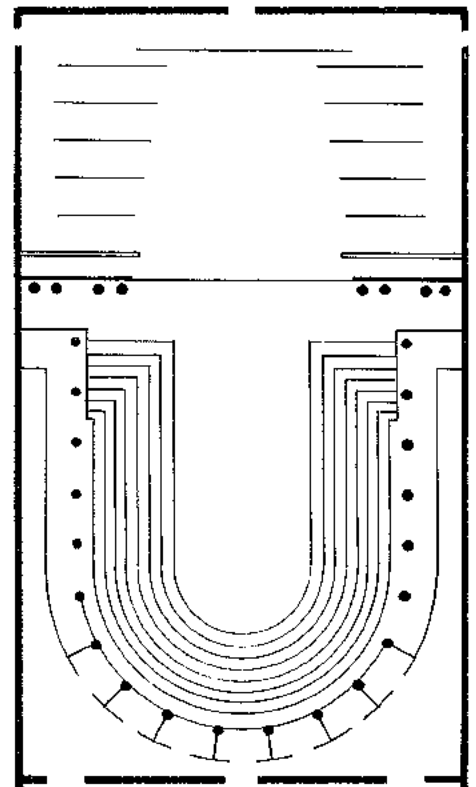
Theat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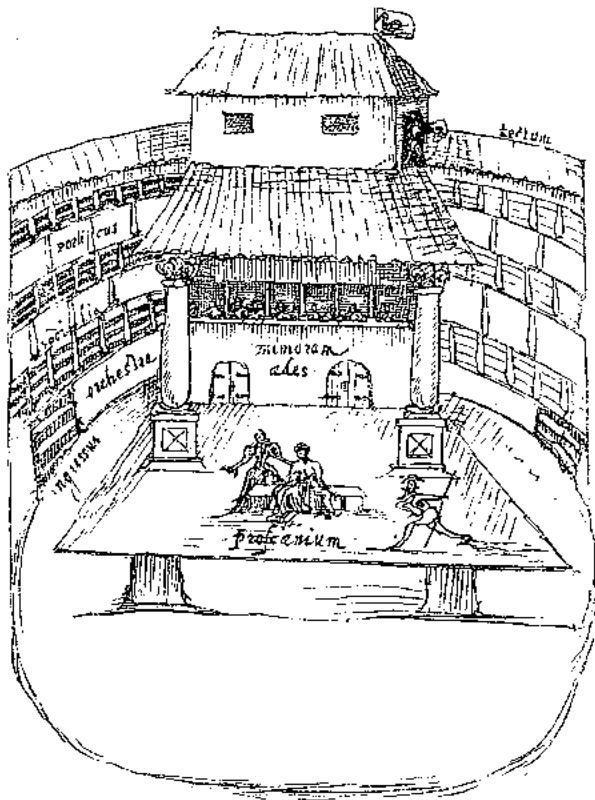
세게스타 극장의 재건 시시리 섬 (이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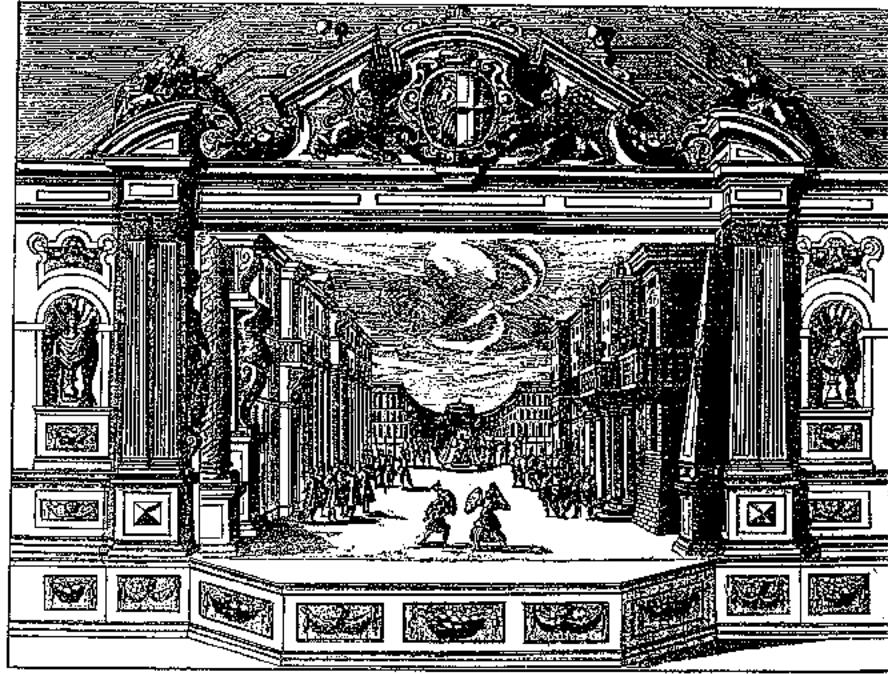
히람극장의 平面計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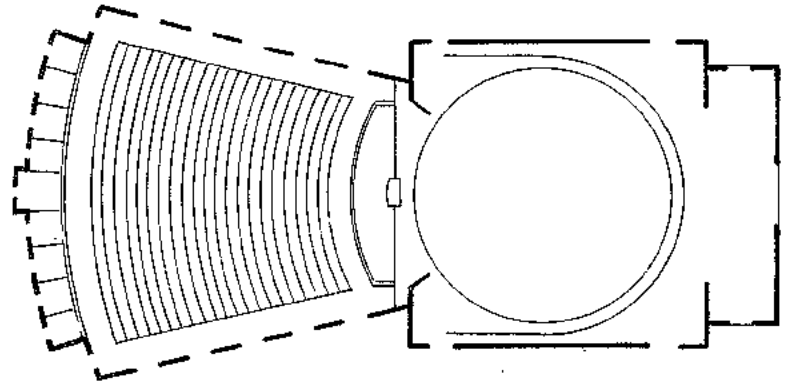
루네쌍스 극장 홀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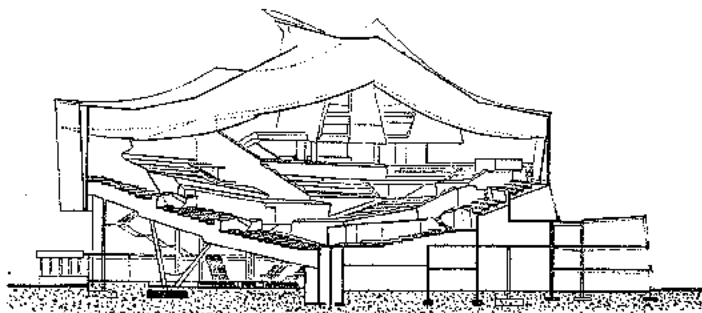
썅스피어 시대의 런던 소완 극장



유닉의 古代 오페라하우스 무대



현대식 극장의 회전무대와 층계식 관람석의 平面



베를린 훔하모니움 (콘크리트) 断面

XII U. I. A. 總회에 參席 하고 <1>

모스크바→프랑크푸르트→마드리드→바르세로나



崔昌奎

서울 發→마드리드 着까지

建築家協會가 1964年 Mexico 總회에 U. I. A. 에 加入되고 벌써 11년이 된다. 그동안 國內外 事情으로 被攔曲折도 많았지만 總회에 參席한 것은 理由야 많지만 겨우 2회뿐인줄 안다. 물론 共產國家에서 開催될 때는 못갔고 旅費, 人員 等 업무도 못내고 있다가 Argentina 總회에 3名의 代表가 갔고 Bulgaria 總회에 3名이 갔다가 巴里에서 入國交涉을 하다가 參席 못했고, 今般 1975年度 Venice 및 Madrid에 4名이 參席했고, 多幸히도 우리 建築界에서 歷史上 처음으로 國際機構의 理事國이 되었다. 나는 Venice總회에 旅券發給遲延으로 參席못했고 5月 5일부터 10일까지 있었던 Madrid大會에만 參席했었다.

도대체 우리 外務部는 國際會議에 가는 사람들의 旅券을 何 時間이 切迫해서야 주는지 모르겠다. 그저 準備만 하고 허둥지둥 달려가서 精神的으로나 肉體的으로나 차분히 參席할 수도 事前準備等이 全혀 不可能할 程度이니 말이다. 今般만 해도 5月 2日 午後 7時 出發해서 가장 빠른 코스로 가셔도 Madrid에 5月 4日 午後에 到着했으니 來日 아침 10시에 開會式이고 보면 눈코 뜰 사이가 없었다. 3月初 理事會에서 今般總會에의 參席과 人員이 議決되고 旅券手續이 시작되었지만 人員의 減員이니 外貨의 節約이니 文公部의 많은 制約과 書類節次가 複雜해서 겨우 5月 1日 午後에야 旅券을 받았다. 따라서 4月 29일부터 每日 1名씩 出發한 셈이 되고 내가 제일 마지막으로 5月 2日 午後 7시 KAL機로 出發했다.

KAL의 747편 보는 처음 타 본다. 신난다. 우리도 셈보를 가졌구나 생각하니 호뭇하다. 航空社(Lufthansa)가 提供하는 羽田東急 Hotel에서 자고 5月 3日 12시 發 Moscow

經由 Lufthansa를 탔다. 아라스카 北極線由便보다 3時間이 더 短縮된다. 이 飛行機는 東京에서 烏라지호스톡크 上空으로 해서 시베리아 平原을 直線으로 Moscow로 간다. 東京空港에서 購入한 Canon新型 Camera와 Seiko를 機上에서 說明書를 읽고 操作法을 알았고, 時計는 韓國時間을 맞추어서 右 손목에 차고, 腕 손목의 時計는 其時 其時의 Local time으로 맞추어 놓았다. 機內아나운서는 外氣가 영하 60℃라고 한다. 시베리아는 가도가도 눈과 얼음과 “툰드라”다. 저 유명한 솔제니친의 收容所群島가 생각나고, 가끔 森林속이나 강가에 작은 部落이 보인다. 저런 것이 아마도 收容所이리라. 森林伐採場인지 숲을 直線으로 구획해 놓고 順次로 伐採하는 모양이다. 얼어붙은 강의 얼음이 反射하고 기~1. 直線의 鐵道가 보이는데 저 것이 불림없이 露西亞의 東邊의 主脈이 되었던 시베리아 鐵道이리라. 나는 3ROLL의 Color필름을 消費하면서 寫眞을 찍어왔다. 처음 操作하는 新型寫眞機이니 이 寫眞이 잘 나와야 할텐데 꽤 걱정되나 마구 찍었다. 몇 時間인가 가다가 乘務員에게 지금 이더쯤이나고 물었더니 벌써 바이칼湖 北쪽便이다. 나는 感慨가 無量해졌다. 그것은 내가 26才때 北支戰場에 있을 때 “노몬한” 事件이며 그 유명한 노로高地나 호몬바야르 草原等 所經과 激戰地가 生뵈어 나고 日本의 陣中作家들의 詩 文이나 戰爭 文學冊을 읽은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飛行하고 있는 이 空中은 바로 그 當時 激烈한 空中戰이 있었던 곳이고, 저 푸르름한 砂丘와 平原에선 얼마나 많은 戰士들이 죽었는가를 回想하면서 나는 몇 時間만 더 가면 Moscow 空港을 밟는다는 興奮에서 어쩔줄을 모르겠다. 同席했던 캐나다의 젊은 新聞記者도 興奮한 語調로 Moscow는 처음인데 빨리 닿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그는 記者用 極小



12회 MADRID U. I. A. CONGRESS 本部席 左로부터 SPAIN建築家協會長
中 U. I. A 事務處長 右 UNESCO 事務局長

型 Camera를 두개씩이나 가지고 있다. 그는 그의 한 쪽 눈을 꺾어버리면서 그 Camera에 필름을裝填하면서 Moscow 空港寫眞을 찍고야 만다는 것이다. 그는 역사記者根性を 나타낸다. 職業은 역시 숙일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된다. 나도 역시 Moscow 上空에서라도 바시리寺院이나 크레무린宮만 보이면 寫眞을 찍으리라 마음 먹고 있으니 마찬가지로 이야기이다. 東京에서 Moscow 까지 바른 팔목時計는 10時間하고 5분이 걸렸다. 時差가 6시간이니 나는 오늘 5月 3일은 6時間 더 긴 날을 보낸 셈이 된다. 機内에선 案内嬢이 잠을 자라고 눈가리개를 나누어 준다. 나는 興奮해서 잠수가 없다. 飛行機가 東歐 쪽으로 갈수록 地上의 永雪은 적어지고 우랄山脈의 白雪을 끝으로 눈이 없고 漸漸 草綠平野와 森林이 많아진다.

小都市와 集團農場같은 것이 보인다. 直線의인 道路가 꼭 무슨 製圖板에 금 그은것 같다. 저런 集團農場이 点点이 이어져서 결국은 群島같이 보이니 收容所 群島라고 부르는게 제格일게다.

東京時間 10時 40分 正刻에 待望의 Moscow 에 着陸했다. 그런데 滑走路 舗裝이 나빠서 飛行機가 자칫하면 곤두박질 할 것 같은 충격을 받았고, 近郊에서 부터 氣流가 나빠서 몹시 動揺해서 大部分의 乘客이 멀미가 날 地境이었다. 空港가까이 오니 이제 부터는 사진을 찍지 말라고 拡聲器가 발한다. 모—든것이 不愉快해진다. 겨우 着陸했더니 制服을 입은 女子 3명이 들어와서, 짐과 Camera는 座席에 놓고 내리라고 하며, 先頭와 中間과 後尾에 1명씩 監視하며 引率해서 空港 Lobby에 들어갔다. 나는 Lobby 까지 가는 사이에 飛行場 周圍를 둘러 보았더니 숲이 우거져 꼭 둘러싸여 있어 空港밖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Taxi way나 모든 舗裝도 엉성하고 特히 空港建物이 이제 國際空港이야 하고 놀랄 정도로 貧弱하고 엉망이다. Lobby內도 殺風景이다. 軍服의 女子軍人이 大部分이고 男子는 極히 少数이다. 밖의 트럭 運轉하는 사람이나 막 일을 하는 사람들은 男子나 女子나 作業服이 아주 초라하다. 飛行機에서 내릴 때 캐나다記者가 그 적은 Camera를 포켓에 넣고 내리기에 나는 저 親旧實力을 불려고 그를 注意해서 보고 있었다. Lobby內的 Shop에서 “隊長 부리바”가 쓰던 것 같은 털帽子和 넥카치무 1枚와 싸구려 목걸이를 美貨로 샀더니 끝錢은 獨貨로 준다. 나는 그 賣店 女軍人에게 英語로 나의 이번 旅行엔 獨逸은 안들어있으니 너희 돈으로 달라고 했더니 그녀는 어디로 가느냐기에 Spain이라고 했더니 Spain貨로 끝錢을 준다. 나는 소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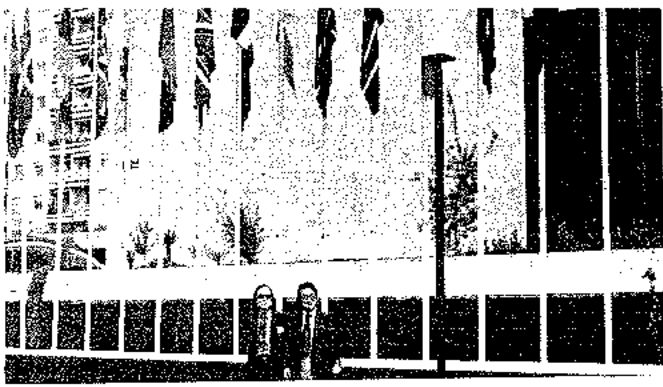
會議場 光景 各國代表들의 모습

코인은 없느냐고 했더니 規定에 못주게 되어 있다고 잡아낸다. 나는 하는 수 없이 그림 葉書を 몇 장 사서 그 자리에서 서울에 便紙를 썼다. 韓國까지 郵票가 얼마냐고 했더니 冊을 뒤적거리다가 얼마라고 하며 郵票를 준다.

“어메다 이 葉書를 넣느냐?” “저기 箱子에 넣어라” 아무런 表識도 없는 木箱子에 집어 넣었다. 觀光案内冊이 있는 곳에 가서 冊을 보았더니 소련의 各自治國의 言語로 따로 따로 內容이 같은 것을 알았다. 한 卷을 뽑아서 주머니에 접어 넣었다. Coffee는 없느냐? 없다. 무얼 마실 것 없느냐? 오렌지 汁스 뿐이다. 그것 한 잔 다오! 식의 對話를 하면서 의자에 앉아서(木의자) 마시면서 캐나다記者를 보았더니 이 親旧 술썩 술썩 女軍人이 안 보이는 사이에 室内, 窓밖을 寫眞찍는다. 이윽고 事故는 일어나고 말았다. 한 女軍人이 그것을 発見하고 “백” 외마디 소리를 지르니 5, 6명이 달려와서 그를 兩쪽에서 꼭 잡고 모퉁이 房쪽으로 끌고 간다. 나도 따라 갔다. 房內에 무슨 Computer 같은 機械가 있고 男子가 2명이 있다. 門이 닫혔다. 걱정이 된다. 그가 當하는구나 했다. 15分쯤 되니 그가 어색한 表情으로 小型 Camera(勿論 필름은 메웠겠다)를 흔들면서 나온다. 나는 달려가서 어찌된 거야. 했더니 그는 웃으면서 필름은뺐겠다 라고 한다. 그 다음이 멎었다. 그는 필름 없는 寫眞機로 마구 찍는 시늉을 한다. 女軍人의正面에다도 카메라를 마구 드리운다. 모르는 女軍人이 또 잡는다. 잡으면 그는 寫眞機의 뚜껑을 열어서 필름이 없다고 보이면서 짹짹 웃어대고 또 찍는 시늉을 한다. 軍人들도 그의 어처구니 없는 장난에 웃고 있다. 모든 乘客들이 웃어댔다. 이걸 장난인지 놀리는건지 분간을 못하겠다. 確實히 그記者는 익살꾼임엔 틀림없다.

나는 窓가에 가서 밖에서 일하는 한 女子人夫에게 싱긋 웃었더니 그 女夫人도 傭크를 보낸다. 가슴이 선뜻했다. 그 女子人夫는 무지하게 크고 뚱뚱했고 傭크가 무서울 정도로 징그러웠다. 대개의 女軍들도 巨軀인데 皮膚色은 아주 희다. 豐滿한 肉體派들이다. 그런데 왜 이 空港의 勤務者가 大部分이 女子이고 軍人일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번 旅行이나 전번 旅行에서도 空港에 軍人이 있는 곳은 “안카라지” “뉴—데리” 뿐이었는데,

우린 조금 전과 같이 一列로 引率을 당해서 다시 飛行機에 올랐다. 離陸하자 모두가 約束이나 한듯이 寫眞을 찍어댔다. Moscow 經由란데에 興奮했던 自身이 猝스러울 程度로 簡單히 離陸해 버렸다. 지금 생각하니 그 空港



国际會議場 玄關앞에서 金壽根 氏 와 筆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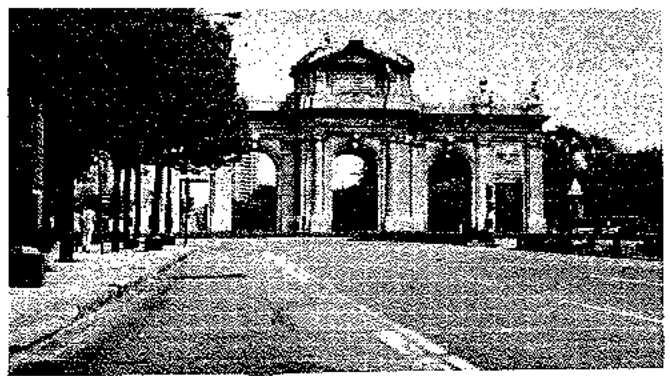
은 아마 臨時로 國際寄港機들을 爲해 Moscow 市 에서
면 곳에 만든 것만 같다. 그렇게 엉성하고 貧弱할 수야
있겠는가.

Local Time 7時 10分 Frankfurt에 到着해서 두 번째
航空社 提供의 Air port hotel에 投宿했다. 氣溫은 19
℃. 가랑비가 내린다. 旅情이 가슴을 뚫고 돈다. 이
렇게 조용하고 清潔하고 아늑한 氣分의 空港이다. 施設이
나 造形設備가 다 기막힌 程度로 잘 되어 있다. 勤勉한
獨逸人들이 機械的으로 움직인다. 窓밖에 소나무가 보인다.
젊은 恋人 한 쌍이 숲속을 거닌다. 가랑비 속을 걷는
그들의 幸福한 모습이 부러워진다. 홀로의 旅行은 외롭구
나. 旅行은 역시 마음맞는 二三人의 同行人이 있어야 맛
이 난다. 5月 4日 아침 4時 韓國時間은 5日 아침 10시
이다. 어제의 興奮으로 잠은 못 이루었다. 일찍 空港에
나가서 두리번거렸다. 7時 飛 Riveria air line (Spain
航空)을 탔다. 3時間이면 Madrid에 닿는다. 알프스山脈
의 萬年雪을 보면서 Spain平原에 들어섰다. 양色이 歐羅
巴와는 다르다. 더욱 赤褐色으로 보인다. 졸려서 약간 잠
에 들었다 깨니 Madrid에 到着했다. 午後 2時 (Local T.)
이다. 韓國과는 8時間 差이다.

Madrid는 아름답다. 아니 空港부터가 아름답다. 하늘
은 紺靑色이다. 구름은 높고 微風이 분다. 溫度는 約 20℃.
濕度는 알맞는 快適溫度이다. 國際會議場 近處의 Hotel
을 잡고 來日 開會式을 할 會議場을 찾았다.

“Parecio de Congreso”

Spain語로 써 있다. 벌써 玄關앞에 各國旗가 세워져 있
다. 우리 太極旗가 멋있게 휘날린다. 北韓旗, 中共, 소련
旗도 있다. 84個國旗가 다 서 있다. 우선 市街地圖를 사
서 街名이며 方向을 살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얼마나 文明
의 나라인가는 거리명에 나타나 있다. 政治家보다도 軍
人보다도 藝術家들의 이름을 딴 街名이 많다는데서 알 수
있다. Goya, Berascues, Boshe, Cervantes 街等
이다. 우선 먼저 Spain하면 情熱의 나라, 闘牛의 나라라
고 알고 있다. 事實은 라틴系 國家는 거의 情熱의이고 樂
天的이다. 南美가 그러하다. 闘牛도 Mexico나 알제티나
에도 있다. Spain은 確實히 라틴系의 宗主國임엔 틀림없
다. 그 옛날 六大洋을 뒤흔치는 無敵艦隊는 名實共히 無
敵이었다. 地球上 到處에 殖民地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
서 航海術, 天文学, 砲術等이 越等해서 他國의 追從을 不
許한 時代가 있었다. EL CID 같은 不朽의 英雄도 있었



MADRID 中心에 있는 太陽의 門. 이 門을 中心으로 放射線꼴로
街路가 뻗어 있음.

다. 中世紀의 華麗한 思想家, 藝術家들이 不知其數이다.

우리 建築界에서만 해도 Antonio, Gaudi가 있다. Barc
elona에 있는 그의 13個의 傑作은 象徵主義와 裝飾主義
建築에 준 影響力은 無視할 수가 없다. 近來 日本에서는
Gaudi가 正統이나 異端이나로 論爭이 紛紛하다고 들었으
나 나는 敢히 말한다. Gaudi는 正統이라고 장난도 奇拔도
아니다. 그의 幻想的 建築樣式은 오히려 童話의 建築이라
고 하고 싶다.

Madrid市는 中世紀의 建築物이 많다. 그러나 國際派
現代 建築도 대단한 Design으로 共存하고 있으면서 어색
하지도 않고, 어떤 意味에선 잘 어울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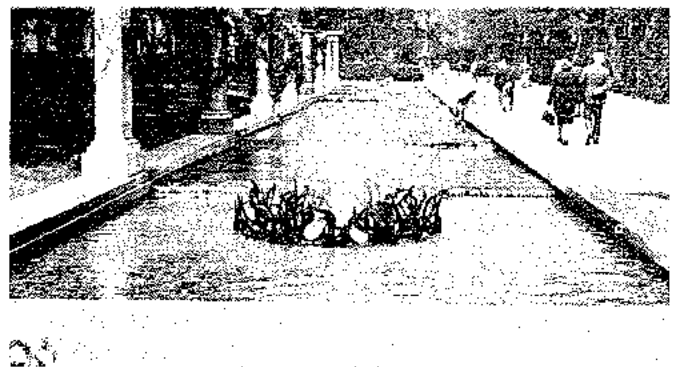
저 有名한 Franco 獨裁者가 市街中心部에 어마어마
한 大路를 貫通시키고 兩側을 公園化시켜 놓았다. 과연
權力이란 쓰면 쓸수록 強大해 지는 것이구나 하고 實感했
다. 二次大戰後 게리라大尉가 少數의 兵力으로 攪亂戰術
을 쓴 것이 요즈음 各國에서 特別 共產陣營에서 잘 쓰는
게리라戰術이다. 이도 바로 Spain의 한 無名의大尉의 이
름인 것이다. “동키호테Don Quixote와 Flamingo 춤은
Spain에서 배어 늘 수 없는 名物이다. 지금도 Ispania広
場에 Cervantes와 Don Quixote의 銅像이 많은 觀光客의
눈을 끌고 있다. Spain은 確實히 緯度上으로 보면 亞熱
帶에 屬해 있으면서 시원한 二季節의 氣候이다. 그것은
全國이 700M 際高의 高原國임으로 우리나라 大閑嶺 程度
의 高原이니 선선한 氣候가 될 수 밖에 없다. 하늘과 바
다, 바람이 다 부드럽고 아름답다. 人心도 나쁘지 않다.
女人은 아름답고 中年이 되면 風土病的으로 보기 좋을
程度로 뚱뚱보가 된다. 젊은 女人들은 皮膚色이며 體格이
며 豐滿하고 性的인 魅力도 지니고 있다.

Spain語는 물론 라틴語이다. 아니 라틴語가 即 Spain
語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故로 라틴語 通用地域은
廣大하다. 玆개의 國際會議에서 Spain語가 使用된다. 아
마도 地球上에서 四大語(英·佛·西班牙·中國語)가 90
%以上을 차지할 것이다. 今般 12回 U. I. A大會도 中國語
代身에 소련語가 使用되어 四個國語로 進行되었다.

Poster나 案内文에서 講演도 四個國語 同時 번역으로
나온다. 나는 Madrid의 第一夜를 홀로 거리를 徒步로 무
작정 거닐었다. 밤은 약간 추울 程度의 氣溫이었다. 여기
선 午後 四時만 되면 官庁이고 商店이고 다 門을 닫는다.
오직 食堂, 酒店, 劇場 程度가 營業하고 있을 뿐이다. 日
曜日엔 百貨店이고 모든 商店이 門을 닫고, 오직 Black
Market (뚝배기市場)만이 열린다. 따라서 日曜日엔 市民



PLADO博物館 正門앞에 있는 巨匠(美術) GOYA의 銅像



中央大路邊에 있는 清水의 公園化된 歩道가 兩側에 있음.

이고 觀光客이고 간에 다 이 黑市에 모인다. 여기선 에누리도 되고 없는게 없다. 骨董品도 日用品도 하여간 고양이 똥도 있다 할 程度이다.

Show window 구경을 하면서 2時間以上 거닐다가 Hotel에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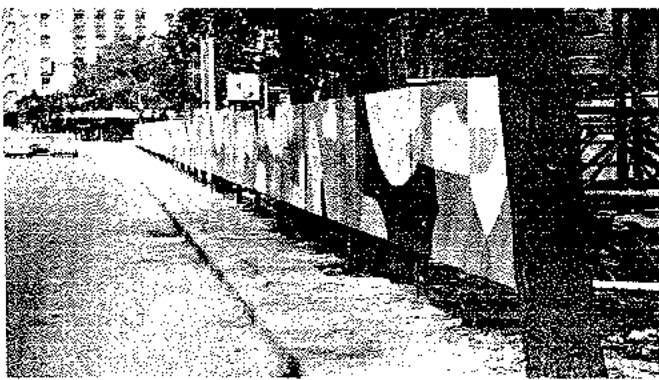
5월 5일 아침이다. 故國에선 端午節이라. 10시에 開會式인데 9시에 會議場에 갈다. 玄關서부터 두리번거렸다. 그것은 이태리 Venice에서 鄭寅國, 金壽根, 羅相紀 三氏가 왔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인다. 會議場內에 들어 갈려고 하니 U.I.A. 名牌가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것이다. “나의 同行이 안에서 내 名牌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까 中世紀 武士의 甲衣같은 華麗한 服裝을 한 憲兵이 들어 가라고 한다. Lobby에 들어서니 놀랐다. 各國에서 온 4,000名 程度의 建築家들이 Lobby에 꽂 차 있다. 人種市場같다. 나는 2층 Secretary에 가서 名單을 찾아서 살펴보니 鄭, 金, 羅 氏의 이름만 있다. 안되겠다. 생각하고 Lobby에 내려와서 日本 代表를 찾았었다. 마침 進來氏를 만나 Venice 이야기를 詳細히 듣고 우리가 理事國이 된 것과 鄭寅國氏가 몸이 不便해서 巴里로 갔다는 것과 金壽根, 羅相紀氏가 Madrid로 온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나는 다시 Secretary에 가서 내가 鄭이다 名牌를 달라고 하니 登錄金을 92弗 내라기에 即席에서 支拂했더니 名牌와 가방에는 一切의 5日間 會議의 Schedule과 說明書, 案内書等 한 아름 준다. 金, 羅 兩氏가 아직 登錄을 안 한 것을 보니 到着 늦구나 했다. 이윽고 音樂이 나오고 場內가 웅성 이드니 카루로스王子 夫妻가 나타났고 開會式이 始作되었다. 開會辭와 人事, 祝辭 등 지루한 時間이 가고 Coffee Time, 後 다시 講演이 있고, 會議順序案内等 몇 時間이 지났다. 午食後 各室別 各種 行事가 進行된다. 建築映画競演, 建築雜誌競展, 學生作品展示 등.

저녁 7時 大 Hall에서 王子가 베푸는 Reception이다. 4,000余名の 各國 建築家와 300名の 女性建築家 300名の 學生 Observer. 마시고 먹고 談笑하고 모르는 사람과도 툭툭치고 말을 걸고 男女區別도 없다. 自己나라 銅錢을 들고 다니며 交換하는 사람, Poster裏面에 Sign을 모우는 사람, 고래고래 마시는 사람, 과연 壯觀이다. 나는 東洋人이니까 그들은 神奇로운지 또 가슴의 名牌가 Corea라고 써 있으니 말을 걸어오는 親旧도 많았고 특히 印度의 新任 U. I. A. 會長 Mr. Barha氏나 U. I. A 事務總長 Mr. misell weill氏는 반가워하면서 人事를 한다. M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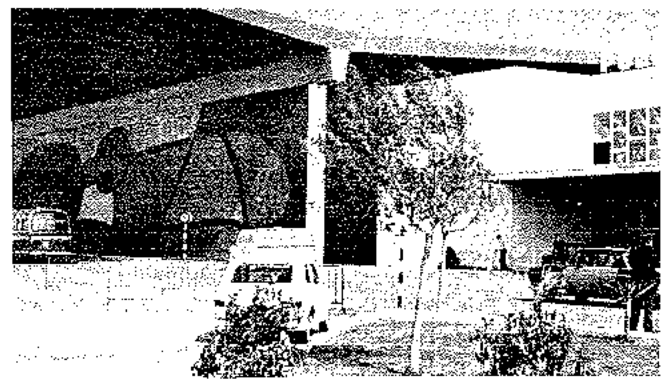
weill은 感慨無量하다는 듯이 '72年度 巴里에서 우리가 Bulgaria로 못 들어갈 때 일부터 Moscow 에 電話를 걸어 주었고 Bulgaria까지 갔다 왔다 모진 애를 써 준 사람이다. “아... 이번엔 參加했군요.” “아이구 72년엔 혼이 났지요.” 한다.

“나를 記憶해 주니 고맙소.” 하고 어깨동무하고 술잔을 들었다. 카이로大學生이 와서 當身이 丹下健三氏가 아니냐?고 공손히 묻는다. 나는 韓國의 丹下다. 日本의 丹下가 아니어서 未安하다. 日本의 丹下는 나보다 눈이 저다. 했더니, 얼굴을 붉히며 寫眞에 본 丹下가 當身の 옆모습과 꼭 같다고 한다. 나는 이런 일을 六回나 當했다. 특히 女性建築家가 3名이나 나더러 丹下냐고 물어 왔다. 事實 서울事務所에서 언젠가 職員들이 丹下の 옆모습 寫眞을 보고 “先生님과 약간 닮았네요.” 하던 생각이 난다. 이처럼 丹下는 國際의 人物이 되어 있구나 했다. 이 많은 建築家들은 같은 職業과 같은 會議에 參席했다는 점에서 親한 旧面의 親旧처럼 談笑했다. 특히 比, 泰, 東京, 香港 親旧들은 아주多情하게 對한다. 나도 그러했다. 같은 東洋族이라는 점이리라. 처음 듣는 나라의 사람들, 베네주엘라, 혼두라스, 게니야, 에멘 등 皮膚色과 言語가 다른 人種끼리라도 손짓발짓 하는 몸짓言語와 英, 佛, 西, 中, 日語를 混合한 소위 國際語도 意思와 感情이 通한다.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어깨동무하고 거리로 나간다. 女子를 꼬셔서 같이 나가는 伊太利 親旧! 존중처럼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는 日本人, 自由活潑하게 떠드는 브라질人, 놀란 토끼처럼 멍하니 求景만 하고 있는 아프리카人, 나는 내담하게 브라질 女性에게 말을 걸었다. 이 親旧 東洋人이다. 이거 재미있다 하는 表情으로 應한다. 나는 그녀와 팔장을 끼고 거리로 나왔다. 散步를 하고 Bar에 갔다. 나는 술을 못하는데 이 Socorino女史는(事實은 未婚女였다) 몹시 취했고, 춤도 잘 추었다. 이거 첫날부터 나쁘진 않다 생각했다. 그리지 않아도 혼자서 외로웠는데 이거 무슨 떡이나 하는 式이다. 우린 밤늦게 까지 소위 메이트란걸 했다. 그녀는 Hotel Room No.며 電話를 다 알려준다. 나도 그랬다. 이 귀엽고 아름답고 까만 머리의 라틴處女는 왜 半白의 東洋人에게 이 처럼 好意를 베풀며 好感을 가졌는가 지금도 疑問이다. 如何間 旅行이란 하고 볼 판이다.

5월 6일 아침 會議場에 가서 Secretary에서 Mr. 鄭은 몸이 아파서 巴里의 病院에 있다. 내가 代身 왔다. 나는 鄭이 아니라고 崔다라고 하니 名牌를 잘아준다. 結局은



都心の工事場の 울타리엔 建設会社の 広告가 아닌 이런 抽象畫가 그려져 있다.



BARCELONA 空港

어제까진 나는 鄭寅國 行勢를 한 셈이다. Lobby에 오늘 의 會議와 行事表가 時間과 室番号까지 明示되었다. 各 者가 들어가고 싶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다. 案内書에 丹 下도 니마이야도 오게 되어 있었다. 그들은 缺席하고 英國의Starrin과 美國의Rudolf가 와 있었다. 丹下는 講演 을 錄音테이프로 보내왔다. 모두가 전방지다고 속덕거린 다. 英語發音도 대단치 않다. 물론 錄音이어서인지 니마 이야도 錄音으로 했다. 氣分나빠서 建築빌름 Contest 場 에 가서 各國에서 出品한 建築映画를 보았다. 점심 時間 後 Coffee를 마시고 있는데 金壽根氏가 온다. 소리를 질 러서 “야— 이제 왔어! 어떻게 됐어!” 오! 羅相紀氏 가 온다. 서울서 가지고 온 필름筒을 안고 있다. 나는 빨 리 그 필름을 庶務에 갔다 등록해야 來日이라도 上映할것 이라고 하니 달려간다. 金壽根氏는 Venice이야기를 해주 었다. 어제 日本人 進來氏에게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이야 기다. 如何間 理事國이 되었으니 多幸이다. 歸國해도 体 面도 선다는 등 이야기를 하고 있노라니 羅相紀氏가 와서 필름 上映 Schedule 이 짜여져 있어 우리것은 登錄되 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事務總長에게 말하고 巴里 우리 大使館에 伝達하라고 하고 말하고 왔다는 것이다. 긴 旅行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왔는데 上映 못하게 됐으니 딱 섭섭했다. 우리 셋은 午後에 學生作品展示場에 갔다. 4, 50点 程度 各國 大學生 作品이 展示되어 있다. 서울大 學에서 出品한 것이 32番의 NO. 로 展示되어 있다. 우편 그 앞에서 寫眞을 찍었다. 저녁 때 中國집에 가서 無事히 서로 만난 것을 自祝했다. 밤에 Spain 固有의 風俗춤 후 라밍고를 구경했다. 이들은 어제저녁에 到着해서 어제밤 에 某處에서 후라밍고를 보았는데 황홀할 程度였고 그 眞 摯함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한번 더 본다는 거다. Taxi로 들고 들어서 한곳에 갔다. 손님이 거이 없다. 이윽고 애급 學生 男女 10余名이 우루루 들어 온다. 이들은 나완 벌써 익숙한 親旧들이다. 나를 보고 “오! Mr. Choi”하며 웃는다. 그들을 金・羅 兩氏에게 紹介 했다. 羅氏는 애급식으로 女學生의 양분을 대는 人事를 했다. 모두 웃어냈다. “아니 崔先生은 하루 먼저 와서 언 제 이런 女學生들을 다 사귀었소? 普通이 아닌데…….”

후라밍고 춤은 눈물은커녕 콧물도 안 나올 程度로 시시 했다. 후라밍고 춤이란 Folklore 우리 古典 唱 같은 것 인데 哀切한 Story가 노래로 불리우고 한 쪽에서 兩손에 木製 Castanet “카리오카”라고 한다)를 “딱딱” 치며 발을 구르고 動作律動을 한다 댄스의 始祖같기도 하고 소련

춤 같기도 하다. 나는 金氏에게 “이런 걸 보고 어제 눈 물을 흘렸느냐” 했더니 “아니 어제 본곳으로 다시 가자 해 서 다시 가보았다. 과연 格이 다르다. 紳사의 表情과 眞 嚴한 律動 色調와 音律, 唱 모두가 호흡이 맞는다. 황홀 했다.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것은 本고장에서 眞字를 보아 야 한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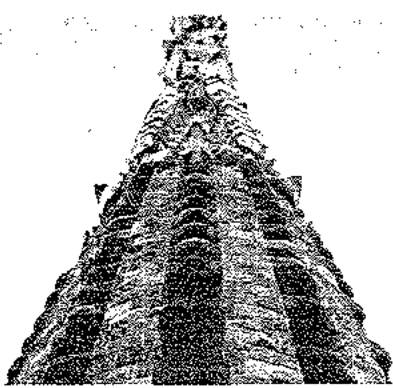
金, 羅兩氏는 學校와 事務室 일이 바빠서 來日中으로 Ma- drid를 出發해야 한다면 나더러 한 사람이라도 閉會까지 남아야겠으니 附托한다고 하며 사정한다. 나는 8日 午後 엔 吳雄錫氏가 到着할 것이라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南美 쪽을 돌아서 特히 Mexico 에 들어서 마야文化遺跡을 보고 갈 予定이었다. 來日 아침 9시에 Spain 國內線으로 Barcelona에 갈 予定이어서 밤 2시 30分頃에 우린 서 로 離別人事를 나누었다. 밤거리를 걸어서 Hotel로 돌아 왔다.

좀 前에 본 후라밍고 춤이 눈에 선하며 걷는 걸음에 춤 흥내를 내면서 걸어왔으니 지나던 行人들이 異常한 걸음 거리의 사람도 있구나 하는 눈초리로 나를 쳐다본다. 나 는 혼자 속으로 킁킁 웃었다.

5월 7일 Taxi로 國內線空港에 가서 Barcelona행 을 탔다. 왕복 200\$이나 된다. 무척 비싼 값이다. 그래 도 Spain에 와서 Gaudi를 안 보고 갈 수야 있나.

Barcelona는 Spain의 東北쪽 海岸의 港口都市이며 第 2의 大都市이다. 그런데여기사람들도 地方色이 強해서 Madrid와는 서로 아웅다웅하는 사이다. 運動試合도 適手 이지만 옛부터 사이가 나쁜 모양이다. Gaudi도 Madrid엔 作品이 없고 Barcelona에만 有名한 것이 13個所나 있다. 觀光案内에 番号를 1番서부터 13番까지 記入되어 있다. 觀光客의 大部分이 建築系統人事들이고 Barcelona의 觀 光은 오직 Gaudi의 建物들이 主가 되는 모양이다. 空港에 서 運轉手에게 Gaudi를 아느냐 했더니 “사구라다래미리아, 바라케” 등 Gaudi의 建築作品을 더러 엮을 程度이다.

나는 Taxi를 한 台 完全 貸切해서 1番서부터 13番까지 順次로 巡回했다. 冊에서 본 作品들을 實物에 接해 보니 과장된 것도 있지만 “사구라다래미리아”와 “바라케”엔 完 全히 精神을 잃었다. 傑作이구나! 이것을 어떻게 設計했 는가” 하는 느낌이다. 到處에 日本, 独逸의 建築 科學生 을 많이 만났고, 나처럼 Madrid서 온 各國의 建築家들로 불린다. 陶磁 조각의 모자이크로 그림과 圖案을 建物에 다 十分 發揮했고 全体立面이 크로테스크할 程度이고 어떤것 은 Fantastical ((幻想的)이고 童話의 나라같기도 하다.



“사구라다데마리아” 尖塔頂의 彫刻(모자이크)

우리 建築界에서도 Gaudi를 正統이나 異端이나 하는 異論도 있지만 今般 나는 나대로 確證하고 싶었다. 特히 “사구라다데마리아” 寺院앞에 섰을 時 山中 오솔길에 독사를 만난 那와 似하는 感覺이었다. 形과 色이 그러했다. Gaudi가 죽고도 이 建物은 아직도 建築中이다. 50년째 접어드는 것이다.

나는 공원벤치에 앉아서 쉬면서 生覺했다. Gaudi는 異端이 아니다. 正統이다라고 斷定했다. 그의 作品 傾向이 近世의 建築에 준 影響力!/. 特히 象徵主義와 裝飾主義派가 얼마나 그의 影響을 받았는가. 美術이나 音樂에도 前衛派가 있다. 建築에 그런 特異한 流派가 안 나온다고 누가 말할 것인가. 아니 藝術이란 共同分母가 있는 限 建築에도 “소레리”니 今井廉次(이마이 겐지)가 있듯이 Gaudi가 왜 異端이며 장난이란 것일까 라고 생각했다.

Spain 建築學徒와의 對話中에서 나는 Gaudi를 幻想이 아니고 童話의이라고 했더니 그는 손뼉을 치며 그저 좋은 表現입니다. Gaudi는 確實히 先生님 말씀대로 童話的 建築의 作家입니다. 네에, 童話이지요!/. 하녀 強調한다. 나는 그 公園에서 日本人 父子 建築家들과도 Gaudi에 對한 討論을 해 보았다. 그들도 今井廉次가 그의 影響을 받았다는 것을 是認했다. 소레리—는 若干 性格이 다르다고 한다. 同感이다. 누가 무어라 해도 Gaudi는 巨匠임엔 틀림없다. 페미리아寺院 한 쪽 큰 房에 그의 博物館이 있다. 그가 設計한 過程이 스케치로 寫眞으로 展示되어 있다. 이 寺院設計에 쏟은 그의 精力은 놀랍다. Free sketch 만 해도 數百枚나 된다. 最終의 Elevation까지 押縮해 온 努力과 過程이 歷歷히 보인다. 若干의 記念品과 寫眞을 찍고 바라케로 갔다. 이 公園建物은 옆에 小學校가 있다. 개구장이 꼬마들이 이 公園을 運動場이나 놀이터로 使用하고 있다. 이 建物群은 建物이라가 보다 오히려 彫刻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迴廊의 自然石積柱며 그 列柱가 가진 陰影과 꽃과 숲, 모자이크 繪面며 마치 童話의 나라에 있는 듯한 錯覺을 일으킨다. 더구나 어린 꼬마들이 참새배처럼 지저귀니 小人國에 온 氣分이다. 파란 하늘 아래 極色彩의 모자이크 그림들이며, 亜熱帶의 이름 모를 植物들이 이 格에 맞게 調和되어 있다. 完全한 綜合作品이다. 아! 이런 것을 異端이니 奇拔이니 장난이니 할 수 있을까 말이다. 곰곰히 생각하니 別의 別 思念이 오간다. Gaudi도 훌륭하지만 그의 設計를 받아들인 Barcelona 市民이나 敎人들 卽 建築主들이 더 훌륭했다고 본다. 만일 50年前에 아니 지금 이런 設計圖를 내 놓는다면 우리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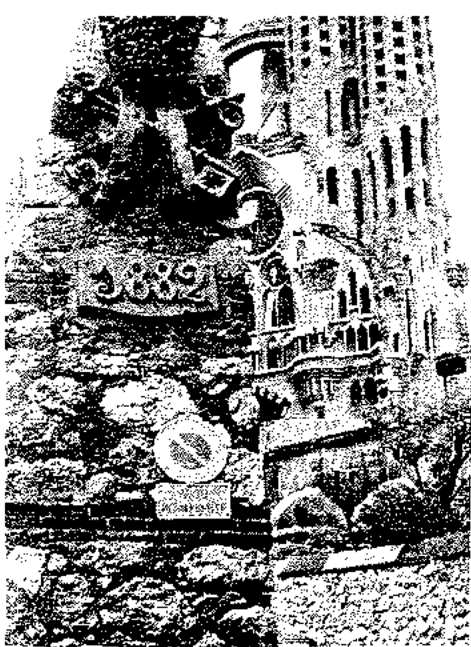


바라케 公園 石積迴廊(完全히 石築으로 되어 있음)

울에서 누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미친놈이라고 하지 않으면 多幸일제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大膽한 Design을 받아들여서 建築했고 그만큼 建築이나 美에 對한 見識이 높았을 것은 틀림없다. 그러기에 지금 그들은 世界에 向하여 큰소리를 치고, 市도 크게 자랑하고 觀光客도 많이 오지 않는가! 나는 이 多樣한 公園에 앉아서 建築을 工夫한 것을 多幸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現實이 너무도 暗鬱함을 實感했다. 外國人이나 Spain人들이 다 같이 驚異와 滿足의 눈으로 建物을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 서로가 背信하고 料率을 넘핑하고 建築主에게 苛酷하고 얼마나 非劣한가.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學術, 技術, 才能을 動員한다면 現在보다 더 次元이나 格이 높은 建物이 서울에도 이룩될 것인데 왜 이보다 몇十倍나 低俗한 建物이 즐비한가. 그 原因은 물을 것 없이 權力과 金力의 囹圄와 獨善과 無知와 耽慾이 그렇게 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 막지 못하는 限 우리가 하고 싶은 建築을 이룩할 수 없을 것이다. 아 悲慘함이어!/. 그래도 나는 지금 異國의 傑作앞에 앉아서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으니 幸福하다. Gaudi의 住宅, 官庁, 燈台 등을 모조리 돌아보고 Madrid에 돌아와 보니 밤 9시 30분이다. 온 종일 興奮했던 탓인지 이날 밤은 깊은 잠에 들 수가 있었다. 오늘 낮에 金窮根, 羅相紀氏가 떠났으니 나는 외톨이가 된 셈이다. 몹시 쓸쓸하다. 旅行이란 벗이 있어야 하겠다. 한 밤중에 電話가 왔다. 부라질 女性이다. 오늘 낮에 會議場에서 나를 몹시 찾았으나 보이지 않아서 電話를 건다는 것이다.

Barcelona에 Gaudi를 보고 왔다 하니 쉴쩍 뛰면서 자신도 꼭 가 보아야겠는데 혼자 말도 없이 가다니 너무 하다는 것이다. 그러고보니 그렇다. 그녀와 같이 갔더라면 더 재미있었을 것을 후회가 난다.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5월 8일 會議場에 나갔다. 하루 缺席, 다음날(學校 다닐 때) 學校에 나간 氣分이다. 어제 分の 書籍이며 案内冊을 今日分과 같이 받았다. 4日分の 冊子들이 너무도 많아서 午後에 郵便局에 가서 船便으로 서울에 小包로 부쳤다. 韓國은 멀어서 5kg以上은 別包로 해야 한나기에 三個로 나누어서 12\$式 36\$이나 내고 發送했다. 約 2個月 걸린다고 한다. 여기 郵便局에서 놀란 것은 會議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이어서 數百名이 와서 小包를 부치니 郵便局이 마치 會議場과 같다. 서로가 모르는 사람끼리도 包裝을 도와주고 말을 通訳해 주고 한집안 食口처럼 多情하다. 談笑가 그칠줄을 모르고 같은 連



“사구라다메리아” 寺院 定礎石 (GAUDI 作品)



바라게公園 正門 (完全 GAUDI 의 童話的建築의 標本임)



“사구라다메리아” 後方 玄關앞에 선 筆者

築人들끼리 그버하겠지만 瞬間적으로 親해진다. 兄弟같은 氣分이 든다. 午後에 學生作品展示場에 가 보았다. 昨日 審査해서 入賞작을 決定한다고 했으니 結果가 나왔으리라. 우리 서울大學校 것이 어제 되었다 궁금도 했다. 가보니 카이로大學校 것이 入賞했고 서울大學校 것은 入選이다. 섭섭했지만 별수 없다. 落選한 Madrid 大學生 4, 5명이 自己들의 作品 앞 땅바닥에 손수건을 깔아 놓고 “we are begger” (우린 거지들이다)라고 써 놓고 銅錢 몇 개를 던져 놓았다. 觀客들에게 積善하라는 거다. 그 앞에서 웃어 매고 있는 그들의 장난이 하도 웃으워서 모두들 돈을 던져주고 웃어댔다. 相當히 많은 돈이 되었으니 틀림 없이 오늘밤에 그 돈으로 鬱憤의 酒盞을 기우리리라 생각된다.

저녁 6시에 團體로 Bus를 타고 某劇場에 후라밍고 (Folklore)를 보는 順序이다. 이것은 Spain 政府의 Service라고 한다. 안토니오란 名優의 춤이다. 前日 본 것은 이야기도 안 된다. 이것이 진짜이다. 놀랐다. 과연 눈불이 날 정도이다. 滿場의 建築家들이 全員起立해서 拍手와 喝采를 보냈고 앵콜을 5번이나 시켰다. 그는 구슬땀을 흘리며 熱演을 했다. 과연 建築에 못지 않은 傑作이다. 前日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린 金壽根氏가 이것을 보았다라면 自殺이라도 했겠지! 이런 民俗藝術은 본바닥에 가서 진짜를 보아야 한다는 말은 名言이라고 생각했다.

오늘에도 吳雄錫氏가 오지 않았으니 來日은 印度大使館에 Visa를 申請해야지, 南美行은 斷念하고 (Madrid엔 Mexico 大使館이 없음) 72, 73년에 못본 나라를 돌아서 歸國하기로 했다. 모레 9日 저녁이면 大會는 閉會된다. 10日 아침에 出發해야지 계획했으나 9日이 土曜日이어서 印度大使館에서 月曜日 午後에야 visa가 나온다기에 不得已 하루 더 묵고 11日 午後에 出發하기로 航空社에 가서 飛行機票을 變更시켰다. 이로써 Madrid엔 4日 午後부터 11日 午後까지 8日間 머무른 셈이 된다.

5월 9일 午前中에 會議場엔 別 行事가 없고 映画가 있을 뿐이다. 午後 4時부터 Spain 建築家協會 (開催者)가 예

우는 閉會式과 Reception이 있다. 午前中엔 거리를 쏘다니다 2시에 가서 建築映畵를 보고 閉會式과 送別宴에 參席했다. 꼭 開會式날 같다. 한가지 다른 것은 서로를 住所交換이 많았다. 나도 그동안 親해졌던 사람들과 住所를 서로 써주고 받았다. 離別은 슬프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 것이 常情이다. 人間의 東西洋을 막론하고 같은 心情임이 틀림없다. 모두가 그런 表情이다. 벌써 歸國길에 오른 사람도 있어 開會式날 보다 人員이 픽 적어 보인다. 나는 Mr. Barha와 Weill氏에게 理事任이 되는데 대한 協調를 感謝한다고 人事를 했더니 또 자주 만날것이라고 한다. 興奮했고, 華麗했고, 新奇하기만 하던 5日間の 大會도 終章이다. 音樂이 離別의 曲을 울려댄다. 이젠지 가슴이 뭉클해진다. 나는 會議場玄關에서 우리 太極旗를 한번 만져 보았다. 各國旗의 下降式이다. Madrid大學 建築科 學生들이 모여서 Spain 國歌를 불렀다. 난생 처음 參席해 본 國際會議이다. 즐거웠고 대견하기만 하다. 옷깃을 여미고 太極旗가 下降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바로 여기엔 大韓民國人은 나 혼자다. 國旗는 외롭지 않았으리라.

한 사람의 國民이지만 뚝어지게 지켜보았으니, 가슴에 뭉클 오른손에 힘이 간다. 내가 하는 것을 본 外國人들도 自己네 國旗가 내려올 때 敬禮을 하기 始作했다. (各樣各색의 敬禮法이다) 7시에 Hotel에 돌아와서도 흐뭇했다. 그래도 끝까지 한사람이라도 남아 있었으니 體面은 차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世界各國建築家親舊들이여 즐거웠다. 平安히 가시오! 나도 歸國하면 이 이야기를 우리 벗들에게 꼭 하리라고 가슴속으로 다짐했다. (계속)

會員作品

- ① 出版文化會館.....(嘉殿建築+洪淳寅).....洪 淳 寅
- ② 노량진교회.....(正林建築研究所).....金 正 澈
- ③ 中央침례教會.....(合成建築技術公社).....朴 成 圭
- ④ ○○學校科學館.....(新洋建築事務所).....李 春 相
- ⑤ 잠사부녀생활관+道高칸투리클업하우스
.....(朴運旭建築研究所).....朴 運 旭
- ⑥ 朴氏住宅.....(三寶建築設公社).....朴 喜 元

出版文化會館

設計：金麟十 洪淳寅

(가전건축연구소)+(大宇建築研究所)

建築設計担当：成 昌 平

構造設計担当：李 昌 男

機械設計担当：申 吉 雨

電氣設計担当：鄭 夏 植

施 工：正友開發(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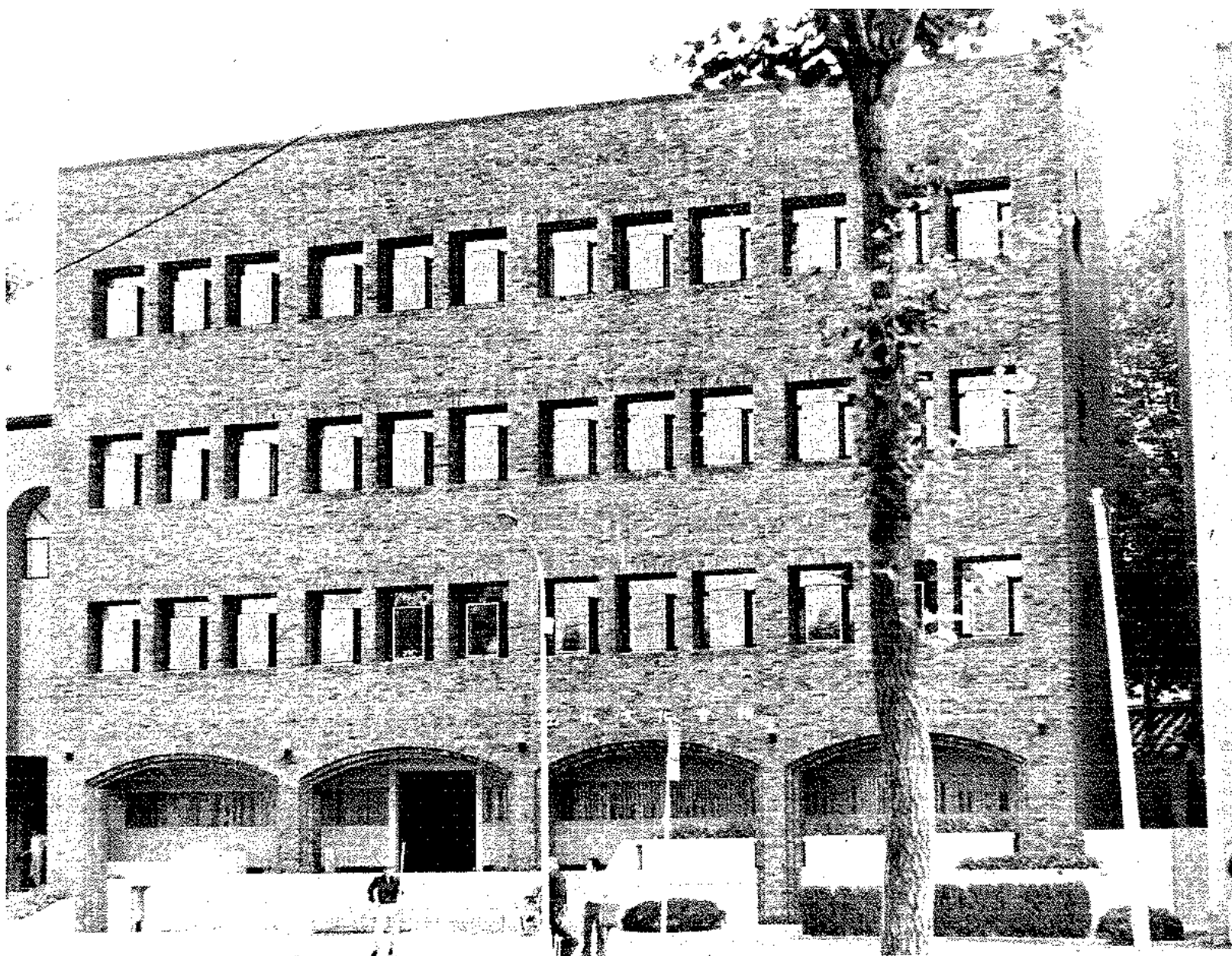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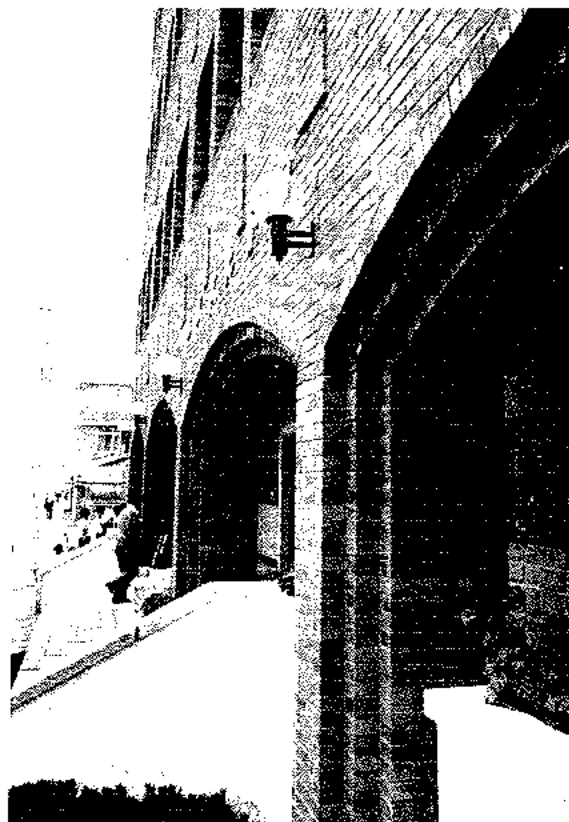
出版文化會館建築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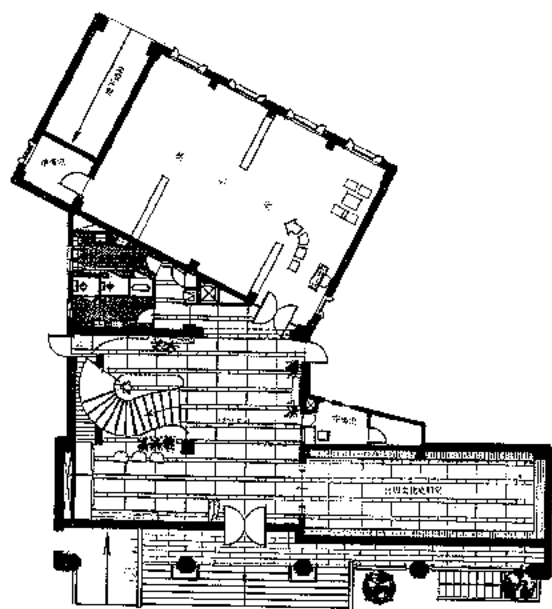
1. 建 築 主：大韓出版文化協會(會長 韓萬年)

2. 坐 地：서울 特別市鍾路區司諫洞1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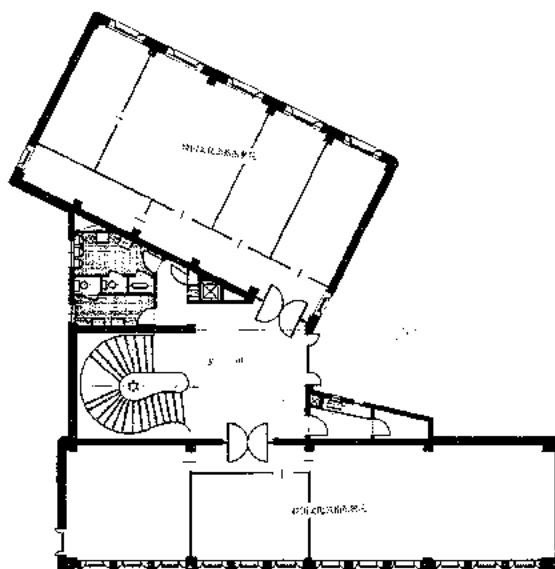
基地面積3,180 坪

4. 建物面積	地下層	100坪,	5. 主要用途
	1 層	102坪,	地下層：駐車場, 機械室, 出版3층
	2 層	102坪,	1 層：出版文化 史料展示室, 展示場(畫廊)
	3 層	102坪,	2 層：事務室(文藝振興院)
	4 層	102坪,	3 層：세미나室, 貴賓室, 事務室
	屋 上	40坪	4 層：講 堂, 事務室
	計	548坪	6. 主要設備
			冷暖房 設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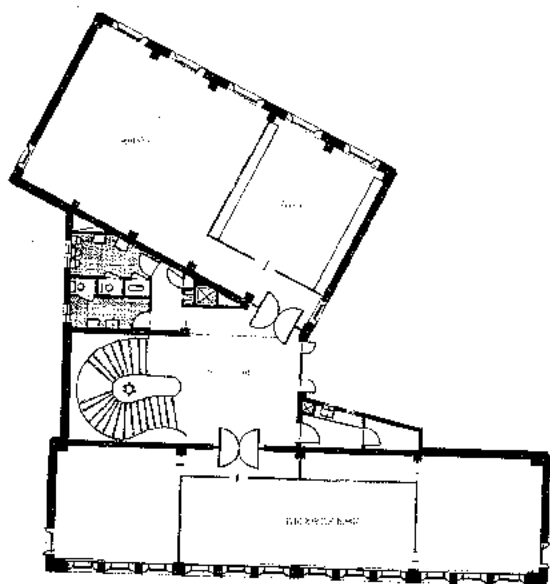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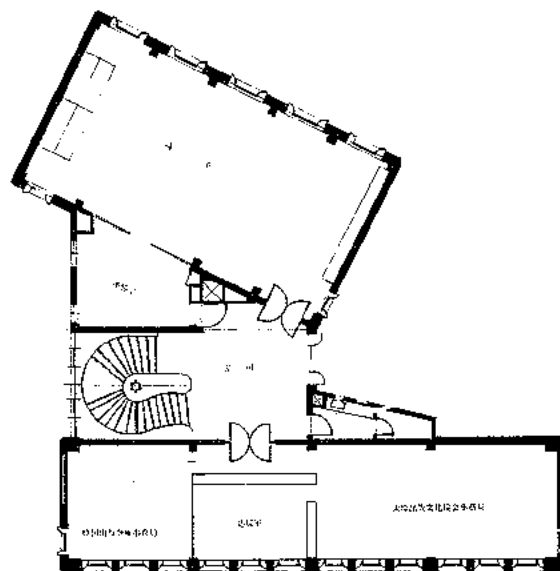
一層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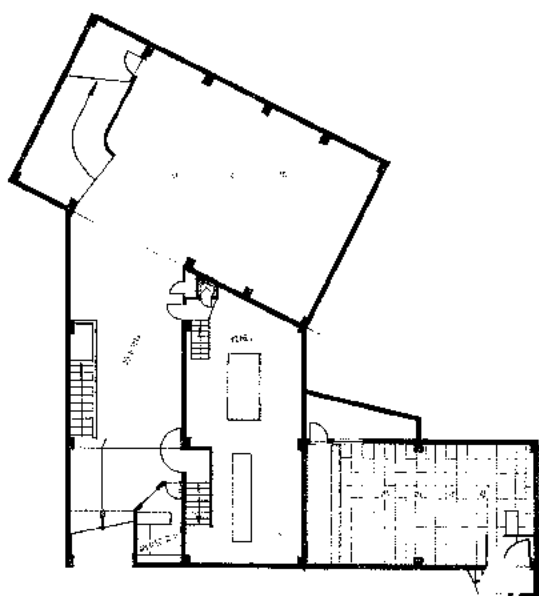
二層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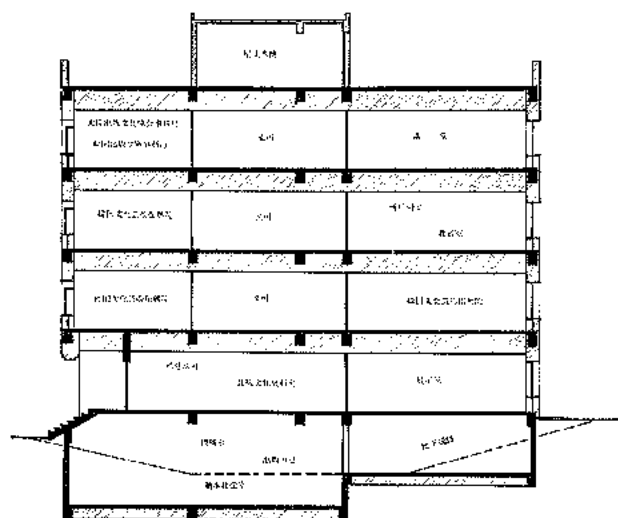
三層平面圖



四層平面圖



地下層正面圖



斷面圖



設計者の 말

設計者が 自己의 作品의 結果를 놓고 自己의 設計취지 또는 建築哲學을 論하곤 한다. 그러나 나는 이 設計作品을 스스로 높은 견지까지 올리고 싶진 않고 다만 作家로써 의당히 가져야 할 고민중에서 이번 경우의 고민은 充分히 価値있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고민했던 부분을 적어 본다.

어떤 設計 Project이든 方向設定에 있어서 약간의 고민이 따르는 것은 어느 것이나 다름바 없지만 처음 이 出版文化會館의 Design을 의뢰받고 現場에 갔을때의 나의 솔직한 고민은 道路前面에 接한 中央庁 建物과 그 特異한 外部空間, 道路中央에 矗로남은 東十字閣, 勤政殿 慶會樓 建春門 等 韓國古有의 傳統의인 外部空間 및 造形, 三清公園으로 連結되는 비교적 넓게 확보된 綠地와 Open space, 어느 것 하나 가볍게 받아 들여지지 않는 要素들로 둘러쌓여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위환경은 때로는 作家의 創作意欲을 자극시킬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부담을 가져다 주는 장애물이기도 하다. 주위 環境을 理解하기 위하여 새삼스럽게 우리의 것이란 무엇인가? 하고 始作된 고민은 傳統的인 질서에 調和되는 要件이란 무엇인가. 形態인가? 분위기인가, Detail인가, 또다시 木造기와집을 콘크리트로 模造해야 할 것인가? 점점 어려워갔으며 Client의 單純한 綜合的인 文化會館(集會場, 展示場, 事務室)으로서의 來

의 機能의 解結外 주어진 環境대문에 賦課된 課題는 너무나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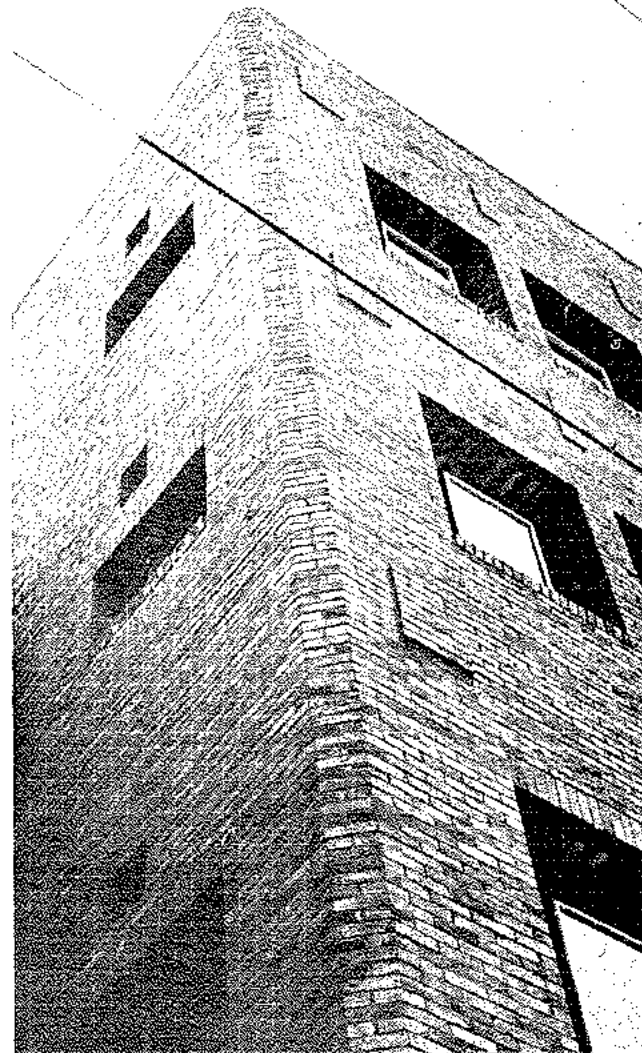
設計作業의 태반이 이상의 고민과 課題를 물어보려는 努力의 연속이었으나 한꺼번에 닥친 問題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力부족이었고 時間不足이었다.

結果적으로 基地가 前面以外에는 인접 建物이 붙어있고, 内部機能이 事務室이었기 때문에 造形的으로는 道路公園 性格을 갖는 前面道路를 의식한 Facade Design 내지 道路의 Exterior Design으로 展開시켜 보게 되었고 灰色砌돌의 選擇, 색깔의 調和, 組精造 表現으로서의 可能한 벽체의 양감, 아취, 모서리 접기 等 表現上의 手法과 Steel과 유리에서 느끼는 Detail 묘사와 Porch, 銅文字 Relief의 도입等 記念性 建物으로서의 조각적인 表現方法等으로 주위 環境과 분위기에 調和시켜 보려는 努力이었다.

内部設計에 있어서는 事務室機能으로서의 솔직한 表現과 Detail使用材料의 統一, 1層 Lobby의 磚들 아취 및 Stainless Steel 製의 円形 Open 계단은 設計作業동안에 비교적 많은 時間을 보내보려고 한 곳이다.

끝으로 이번 作業에서 특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비교적 상당한 水準의 現代建築에 對한 Client의 誠意있는 理解와 設計者가 그들로부터 正當한 대우를 받은 例 中에서 으뜸이었다.

〈洪 淳 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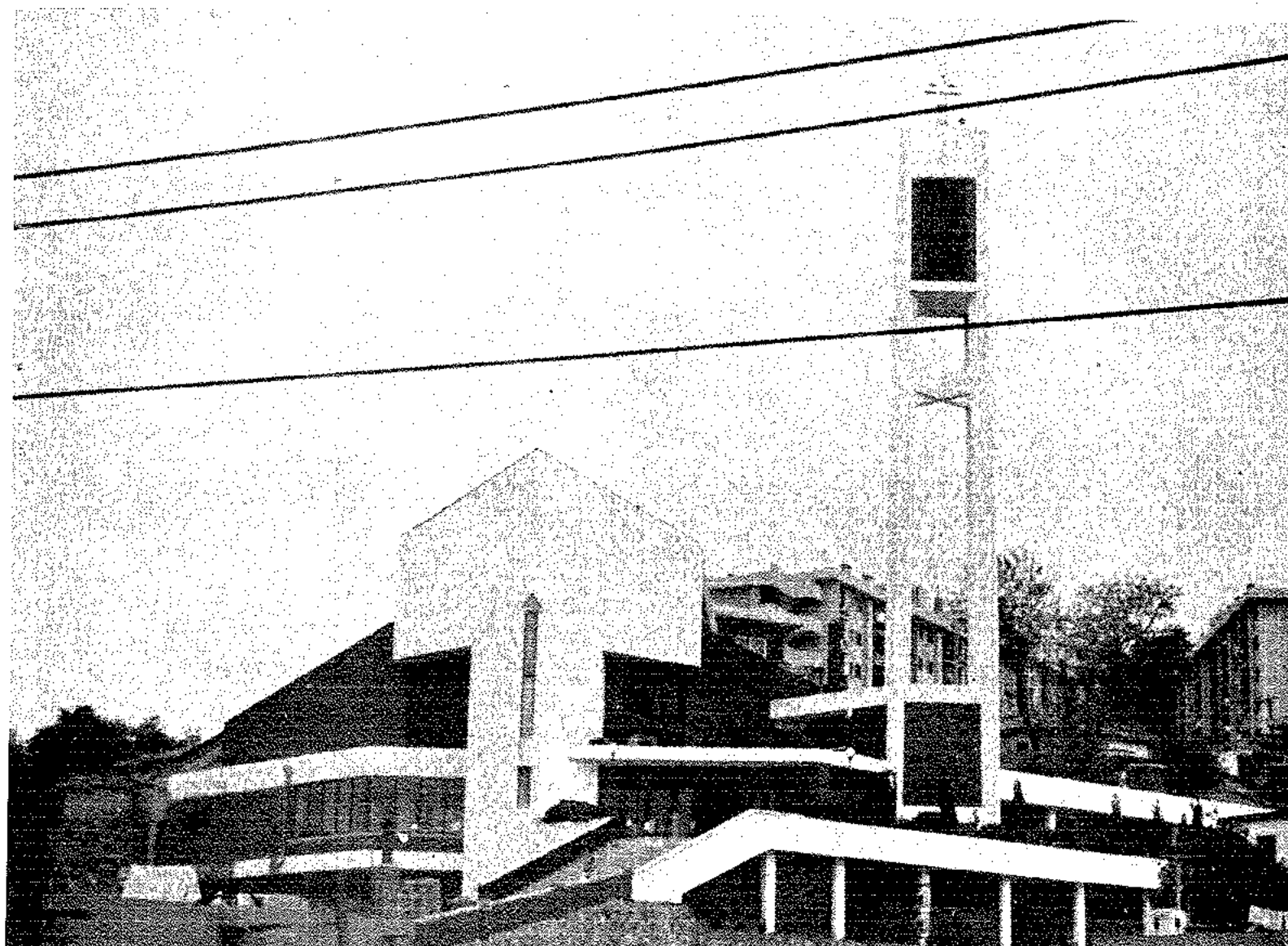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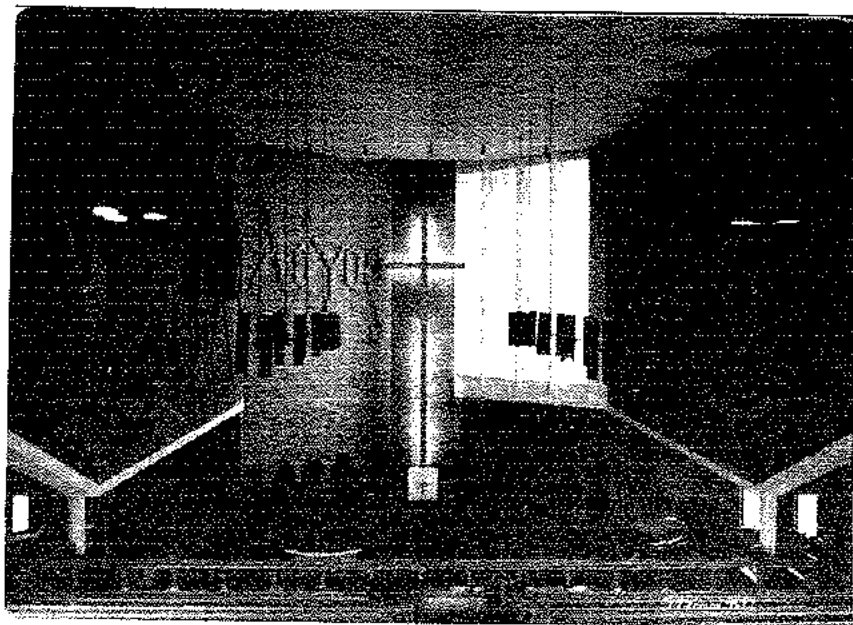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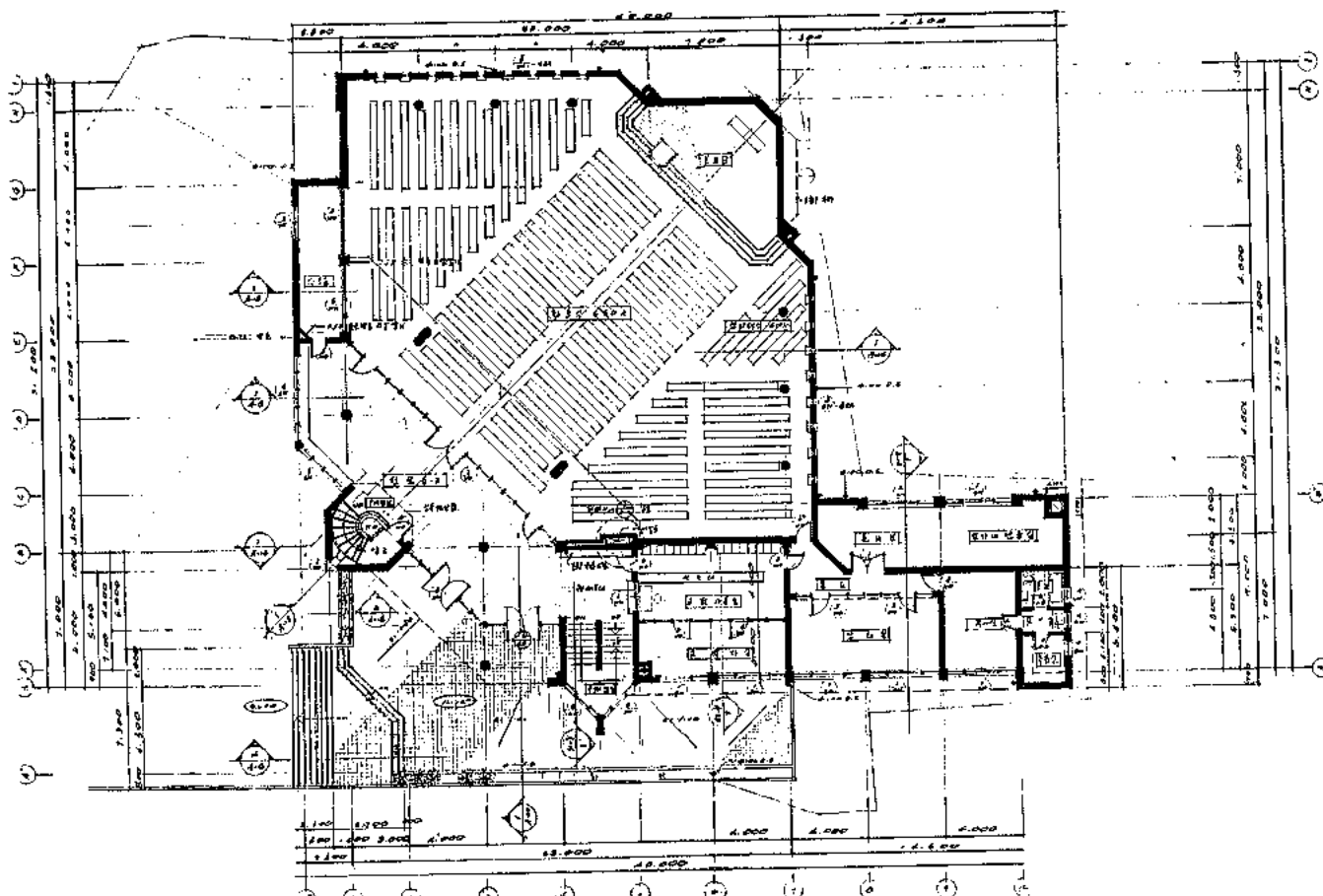
노량진교회 (대한예수교장노회)

設計: 金正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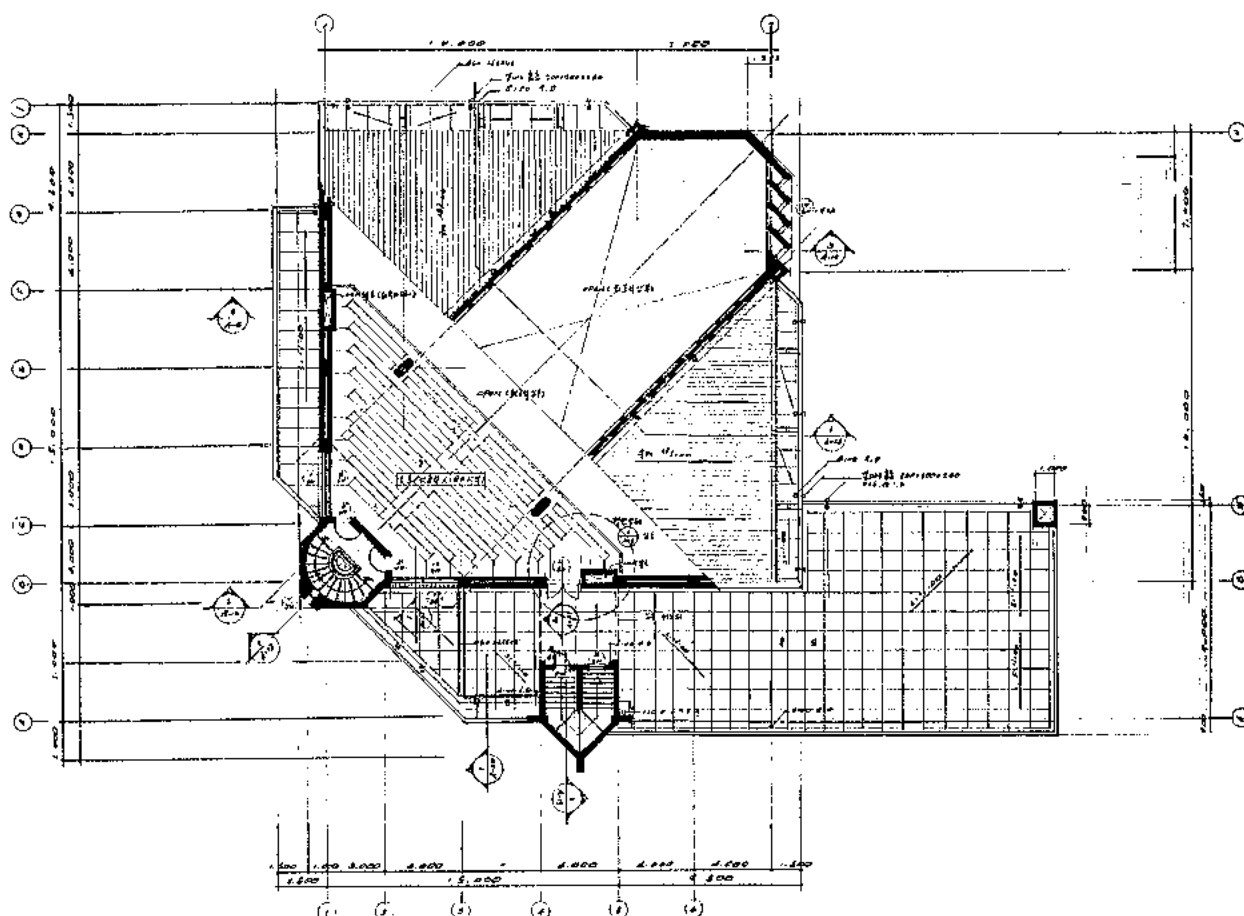
(正林建築研究所)

- 설계갈리: 정림 건축 연구소
대 표: 김 정 식
- 위 치: 서울시 관악구 본동 10~3
- 대지면적: 2167. ⁴⁴ m²
- 건축면적: 지 총: 708. ⁷ m²
1 층: 1057. ³ m²
2 층: 164. ⁹⁷ m²
옥탑층: 38. ⁵ m²
계 : 1969. ⁹⁷ m²
-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슬라브 지붕
- 공사기간: 1974. 2 ~ 1975.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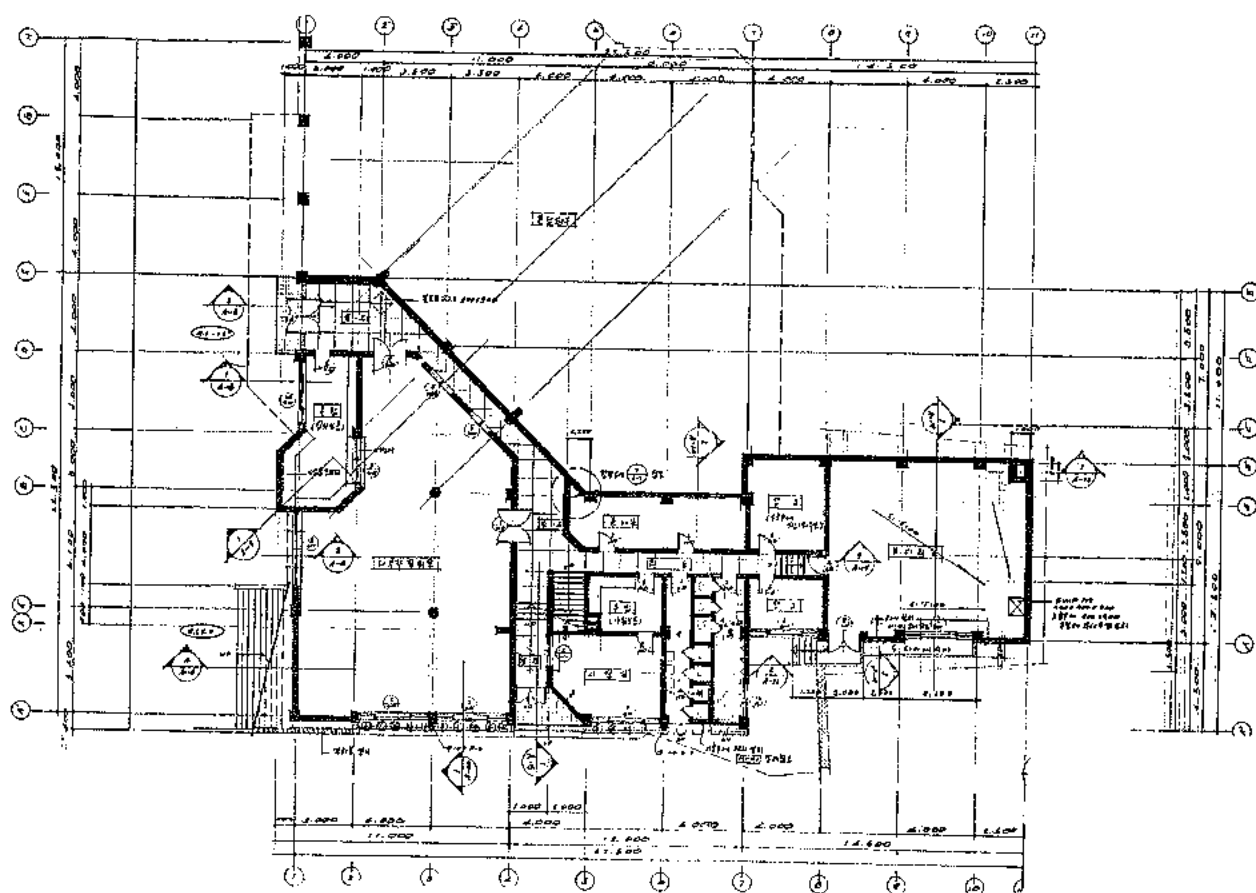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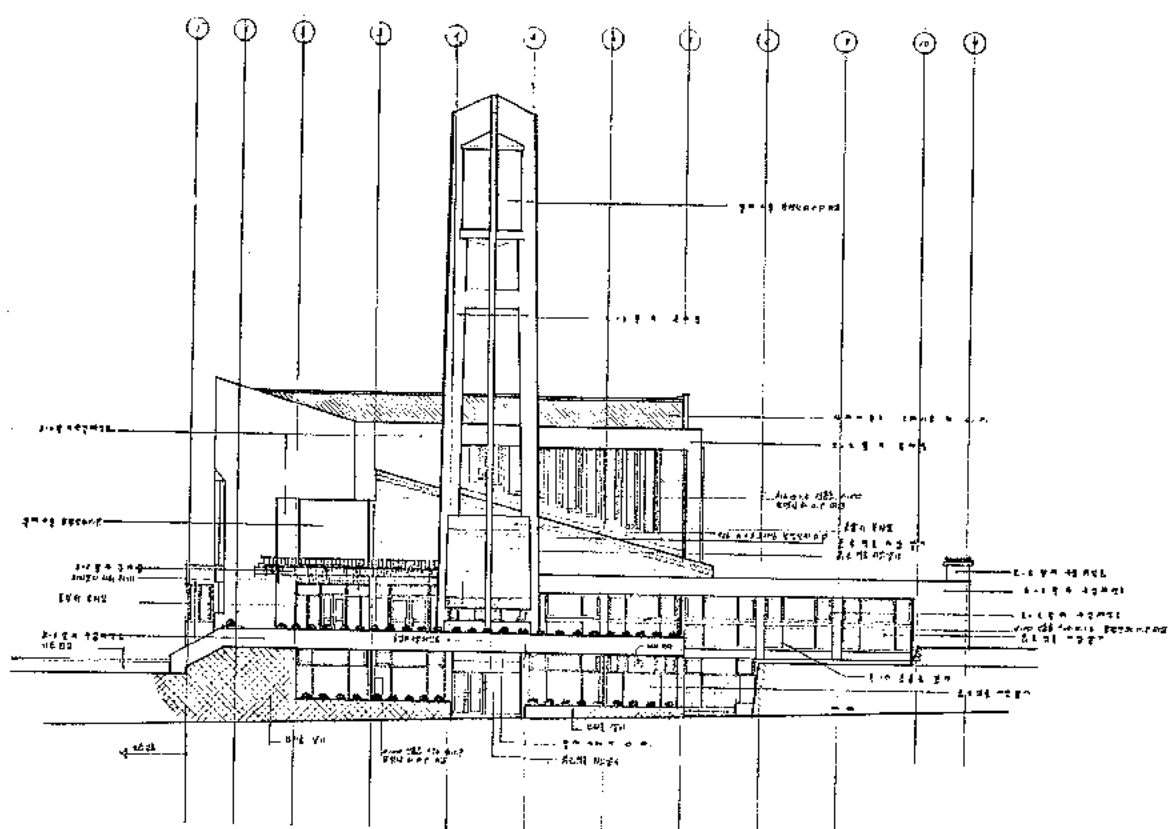
一層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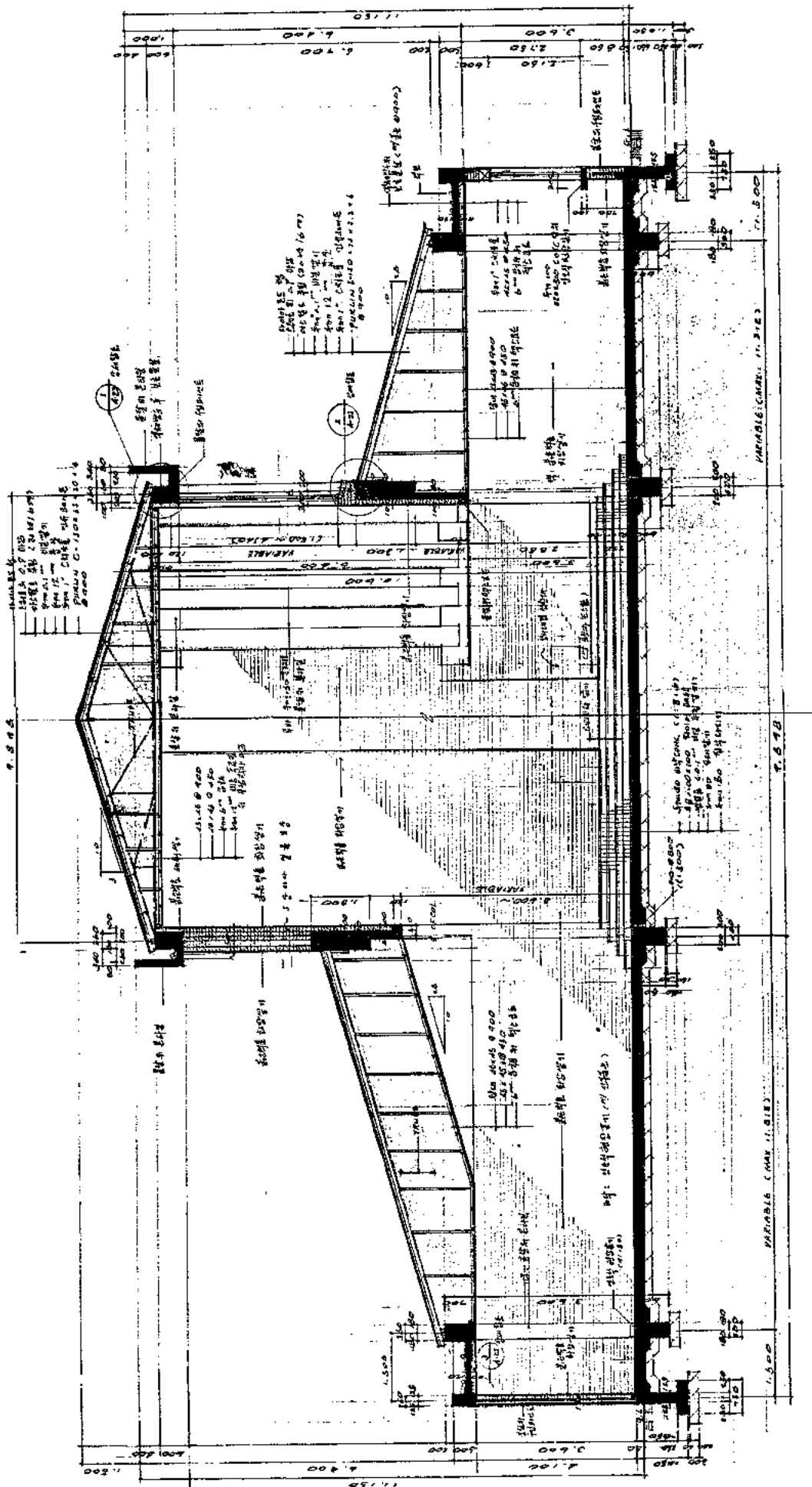
二層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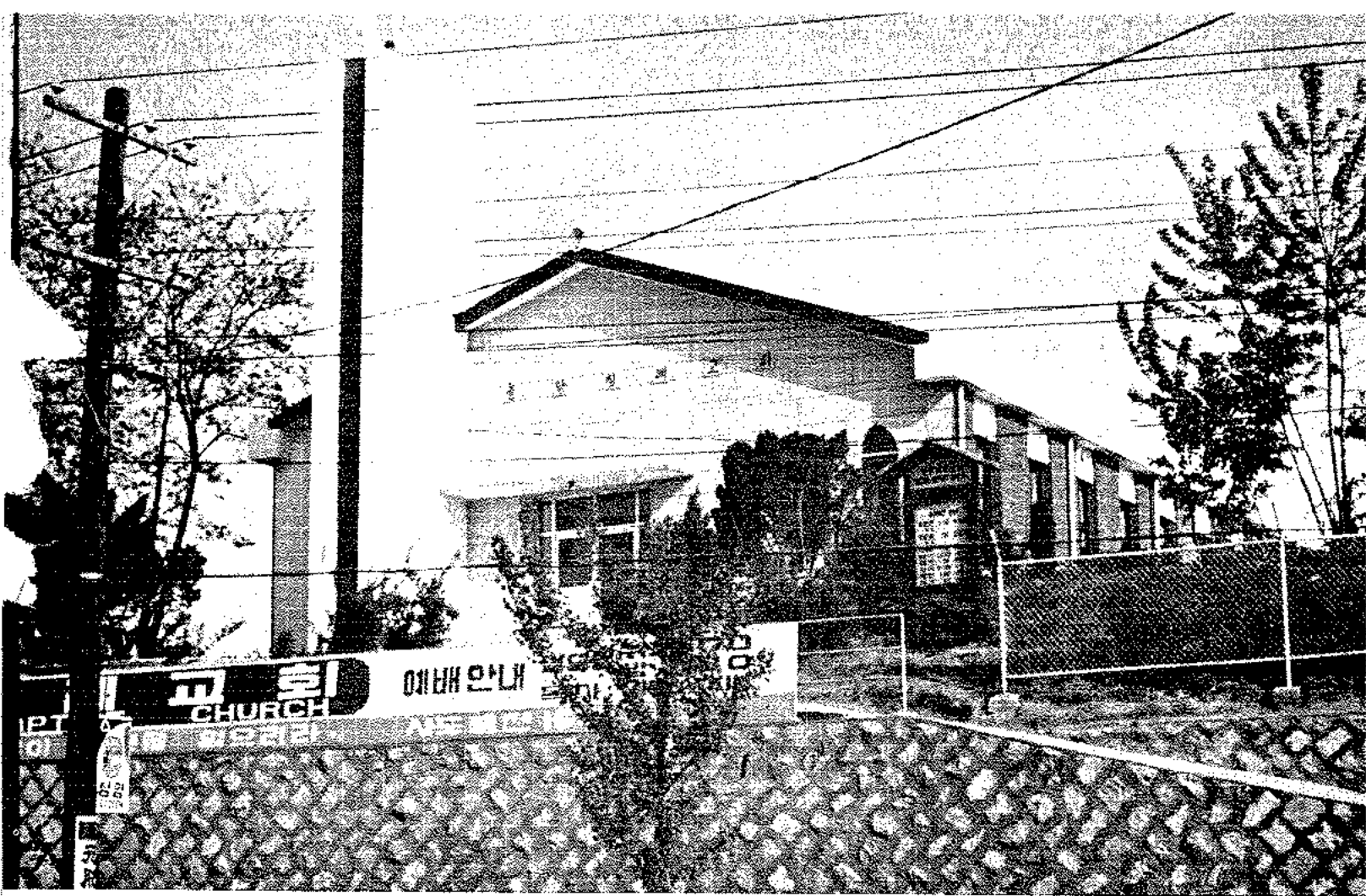


地下層平面圖



南側面圖





會員作品

중앙침례교회

設計：朴 成 圭

〈合成建築技術公社 代表〉

所在地：水原市 校洞

監 理：이 병 목

(삼기종합설계사무소)

構 造：철근 콘크리트조

철골트라스 위 스트리트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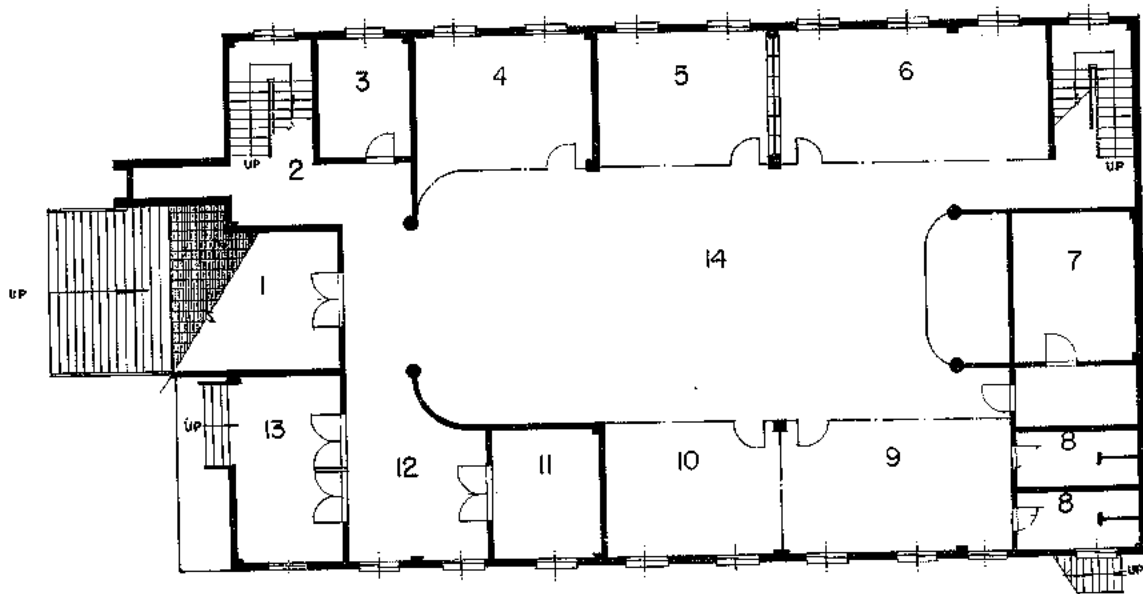
規 模：一層 498.5 m²

地 積 498.5 m²

計 997.00 m²

竣 工 197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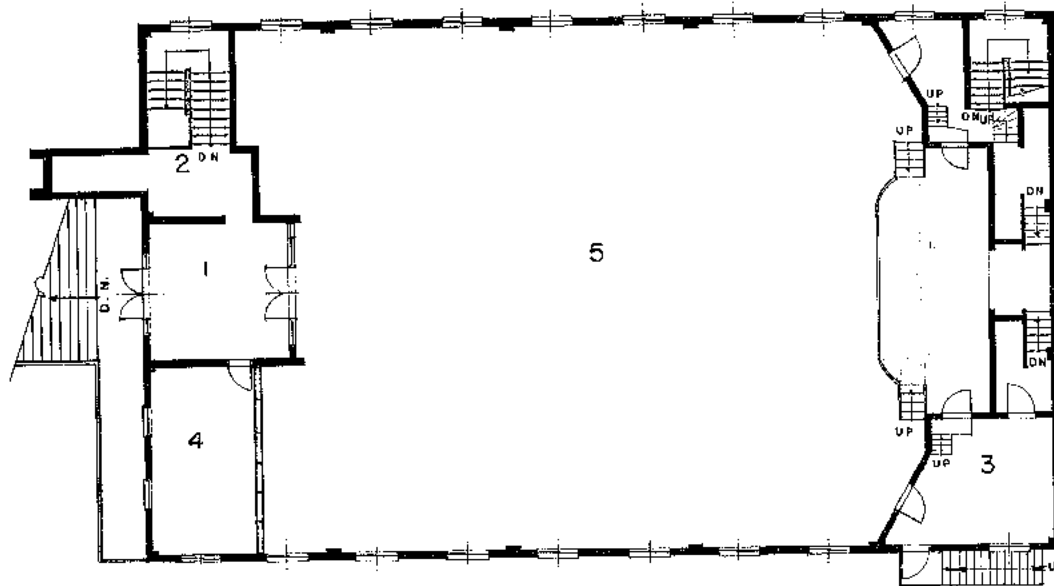




一層 平面圖

一層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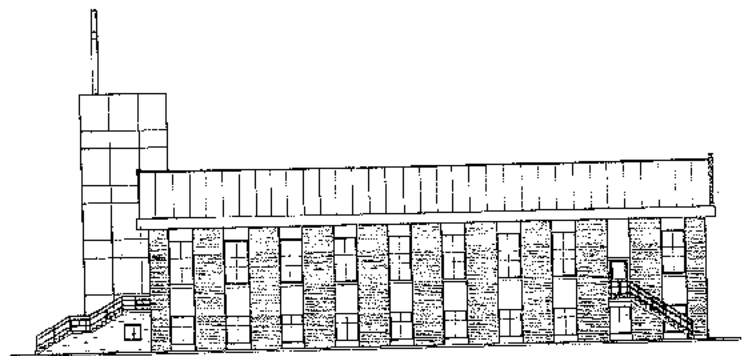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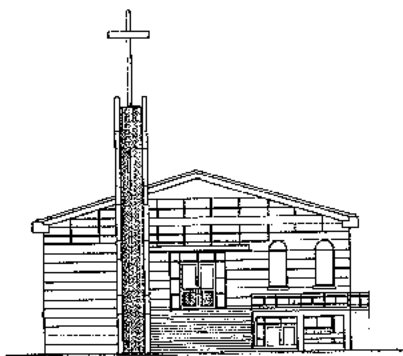
1. 창고
2. 계단실
3. 독서실
4. 청년회
6. 회의실
7. 주방
8. 화장실
9. 유년부
10. 부인회
11. 사무실
12. 출
13. 현관
14. 집회장



二層 平面圖

二層平面圖

1. 현관
2. 계단실
3. 준비실
4. 욕아실
5. 예배실



우신고등학교 “科学館”

設計 李 春 相 (新洋建築事務所)
李 昌 敏 世信建築研究室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궁동
전기·문우첨전기설계사무소
기계·삼일설비설계사무소
시공·범진건설주식회사
구조·철근콘크리트라멘조
층수·지하 1층, 지상 4층 및 옥탑
면적·건축면적 1,038.8 M²
연면적 4,940.8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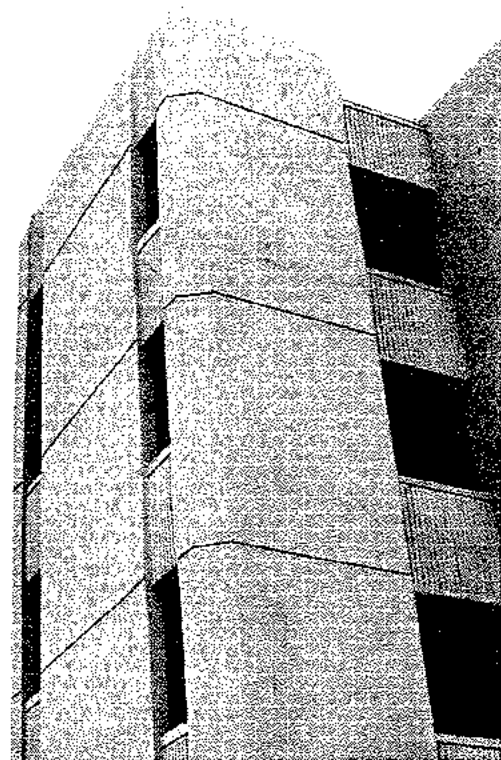
개요 :

배치계획상 전면의 우신고등학교와 후면의 우신중학교의 중간 거리에 위치하여 2면의 주현관이 1개의 Lobby로 공유하고 있으며 전체 평면이 “ㄱ”자 형으로 하여日照時間이 길고 여러 시야의 사용으로 通風이 잘되어 自然換氣에 중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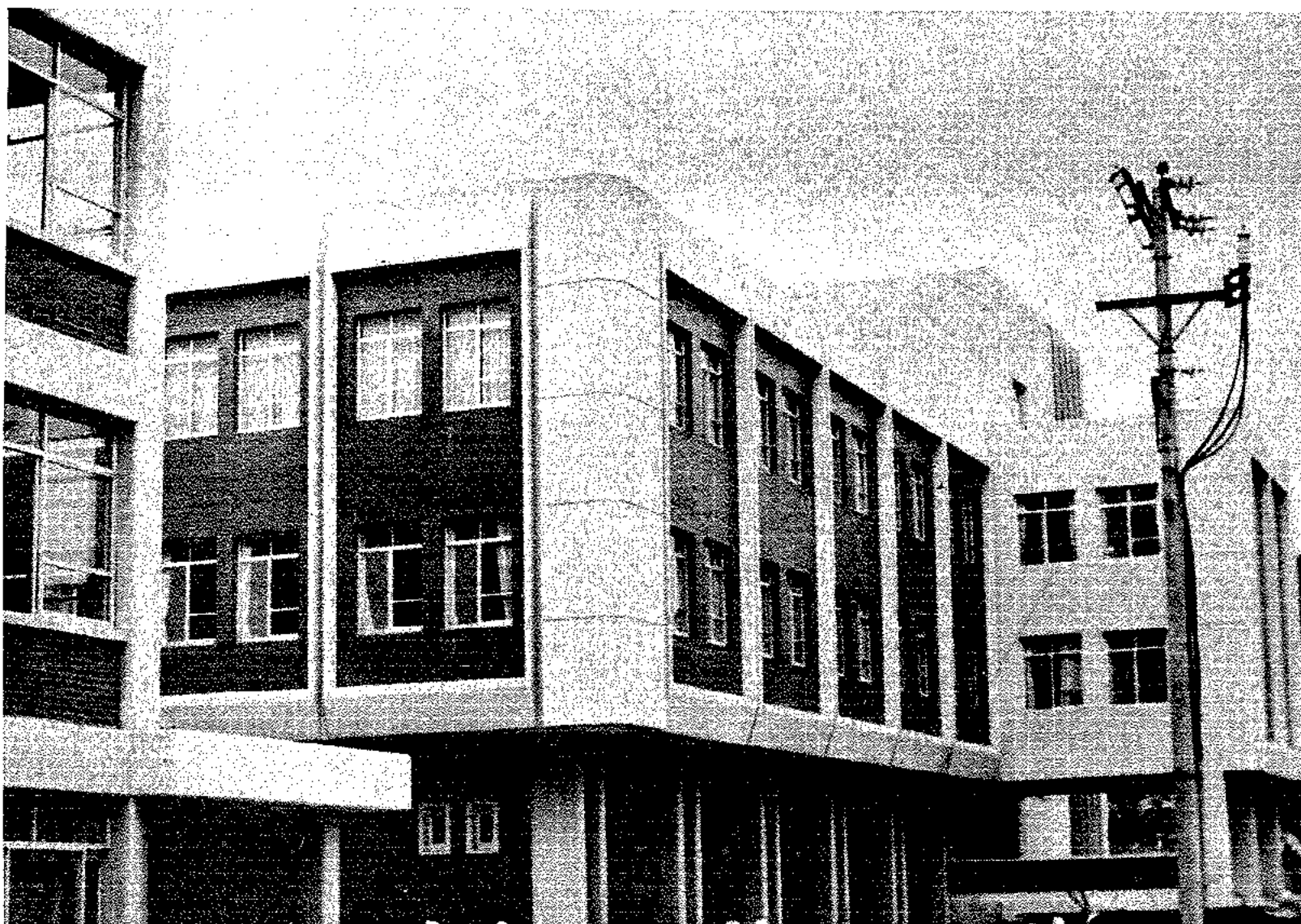
1층 시청각교실은 영사실이 그 기능을 100% 발휘하여 동시에 200석의 학생을 수용하며 소강당으로 합동강의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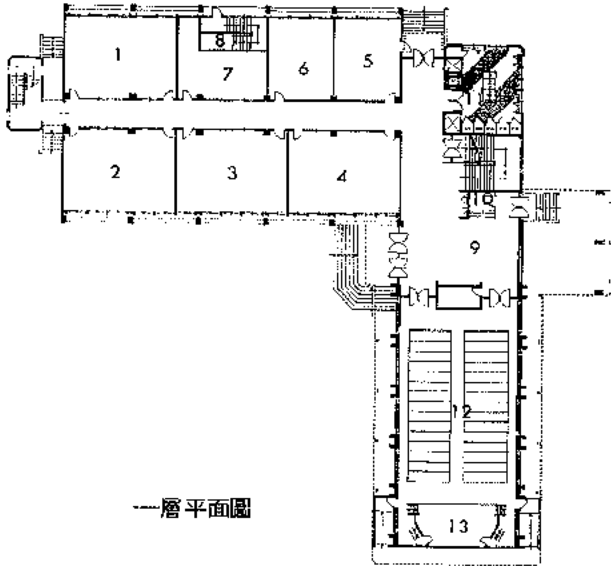
2,3층 화학실험실, 물리실험실, 생물실험실 등, 과학 기재 등 실험실을 준비실등으로 운영관리가 편하고 여러가지 시야와 물의 사용으로 배관에 유익하고 GAS발생의 환풍이 잘 되도록 함. 도서실은 東,南,北에 채광으로 一定한 照度를 유지확보함.

4층, 어학실험실은 國有最初の 諸器材와 防音에 완벽을 기하며 방송실등이 있어 전반적인 방음관계를 설계상에 반영하여 시공을 확수처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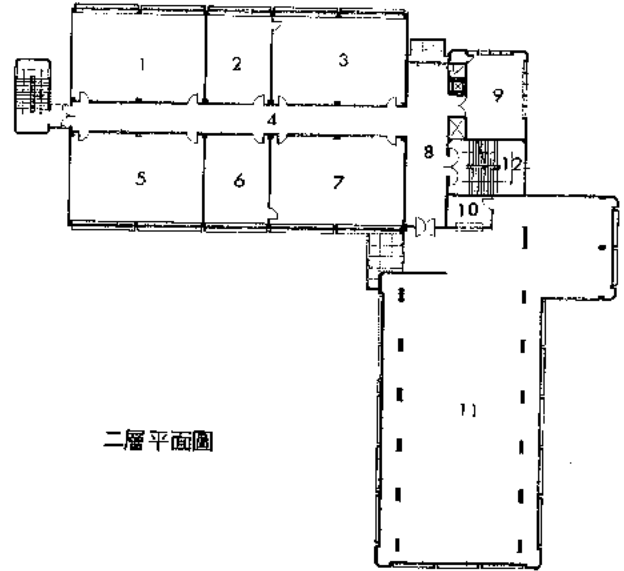


비상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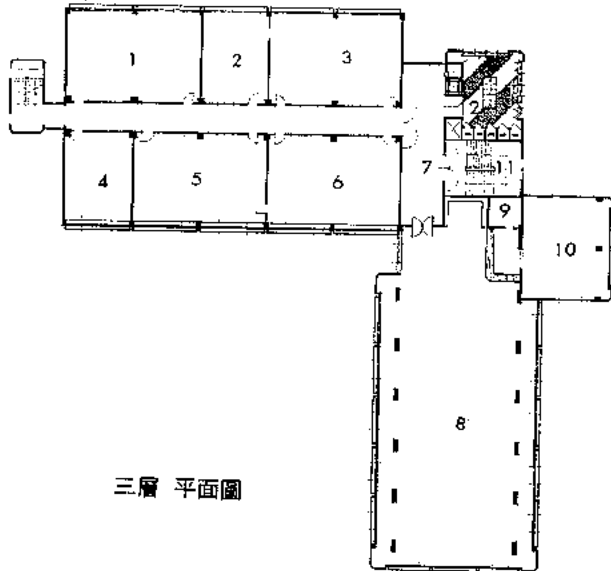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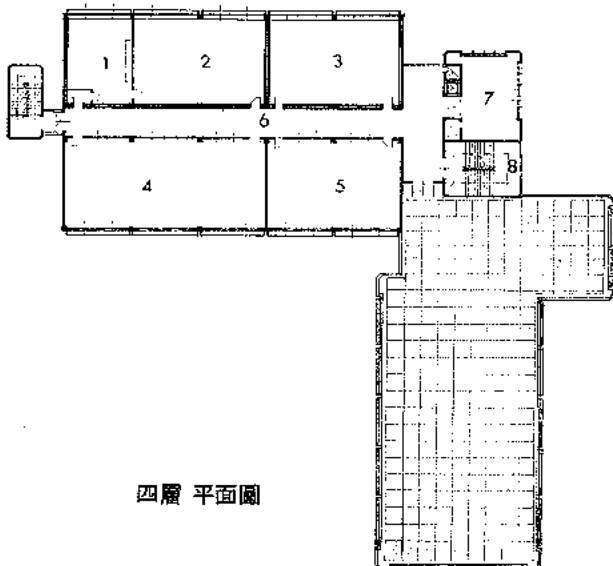
一層平面圖



二層平面圖



三層平面圖



四層平面圖

一層平面圖

1. ~ 4. 특별교실
5. 무기창고
6. 교사실
7. 창고
8. 계단실
9. 호-리
10. 영사실
11. 화장실
12. 시청자교육실
13. 무대
14. 준비실

二層平面圖

1. 배도 및 기계실
2. 화학준비실
3. 화학실험실
4. 복도
5. 지학실
6. 생물준비실
7. 생물실험실
8. 홀
9. 특별활동실
10. 감독실
11. 자습실
12. 계단실

三層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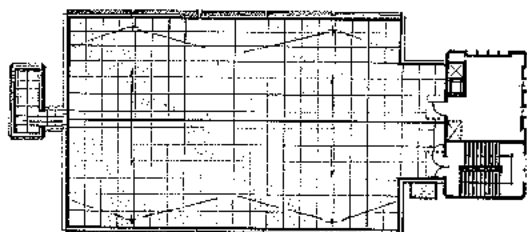
1. 공작실
2. 물리준비실
3. 물리실험실
4. 공작준비실
5. 미술준비실
6. 미술실
7. 홀
8. 도서실
9. 감독실
10. 서고
11. 계단실
12. 화장실
13. 복도

四層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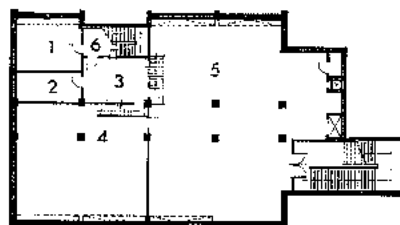
1. 방송실
2. 스튜디오
3. 기약실
4. 어학실습실
5. 음악실
6. 복도
7. 특별활동실
8. 계단실

地下室平面圖

1. 창고
2. 공구실
3. 관리실
4. 변전실
5. 보일러실
6. 계단실
7.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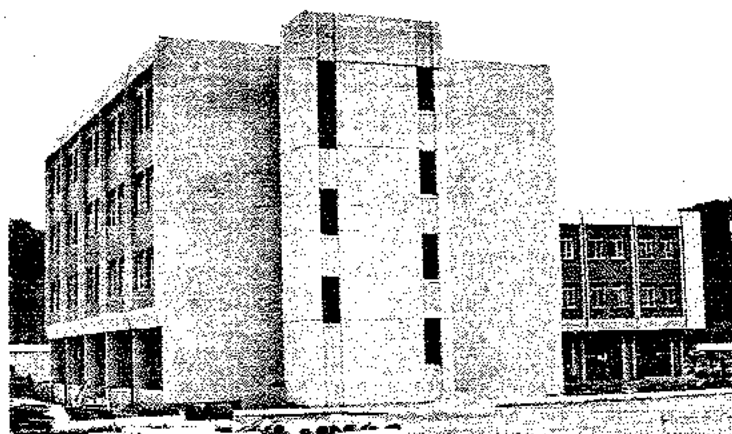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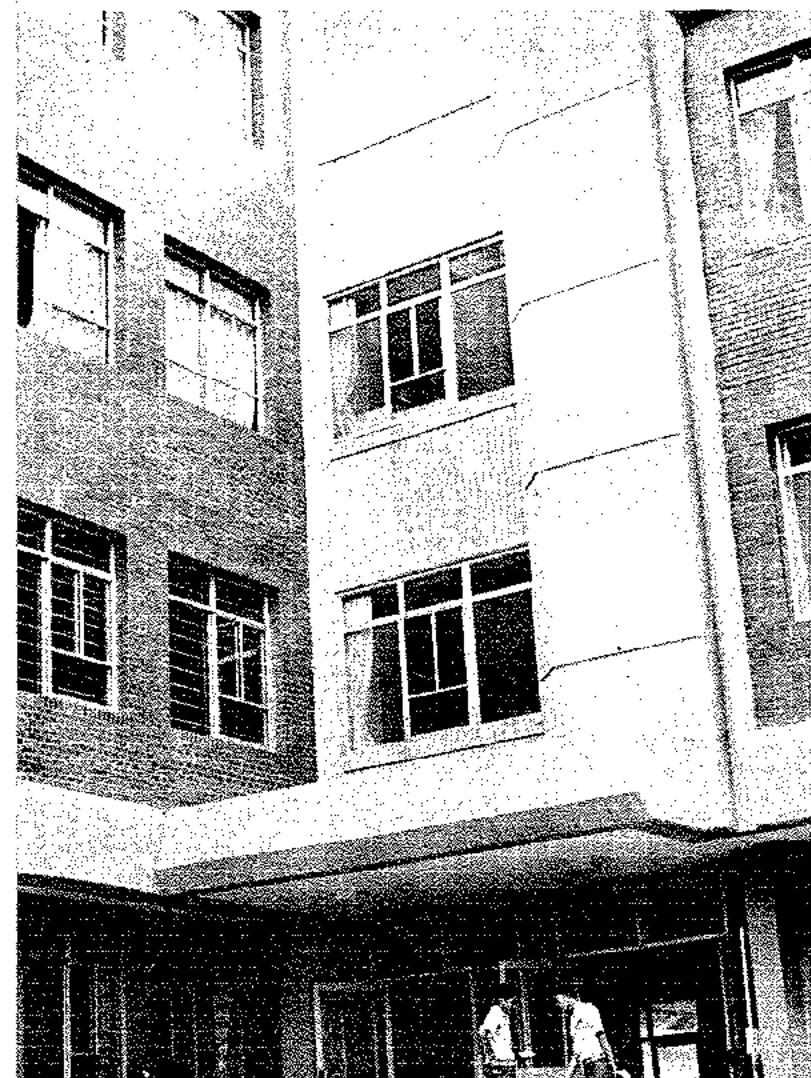
屋塔平面图



地下室 平面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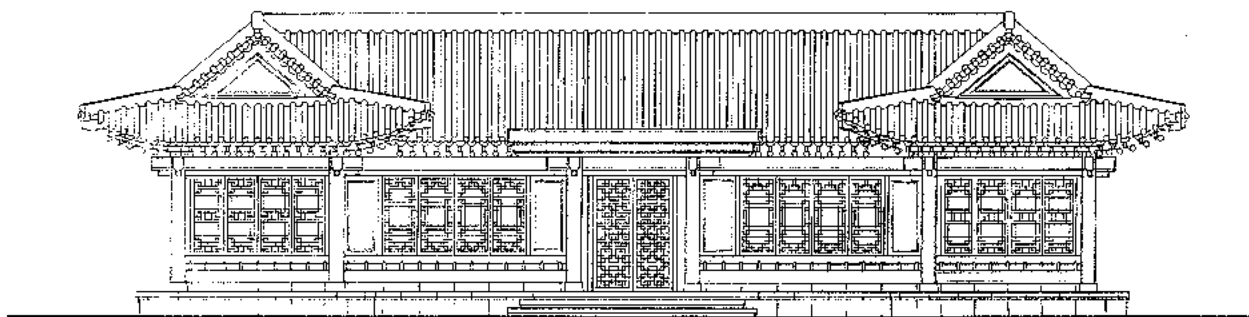


正面图



측면

주 현 관



잠사 부녀 생활관

設計：朴 運 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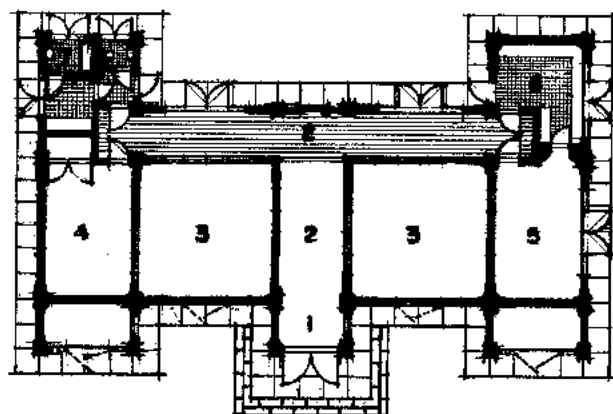
(朴運旭 建築 研究所)

位 置：忠北 청원군 강태면

建築面積：1층 180.09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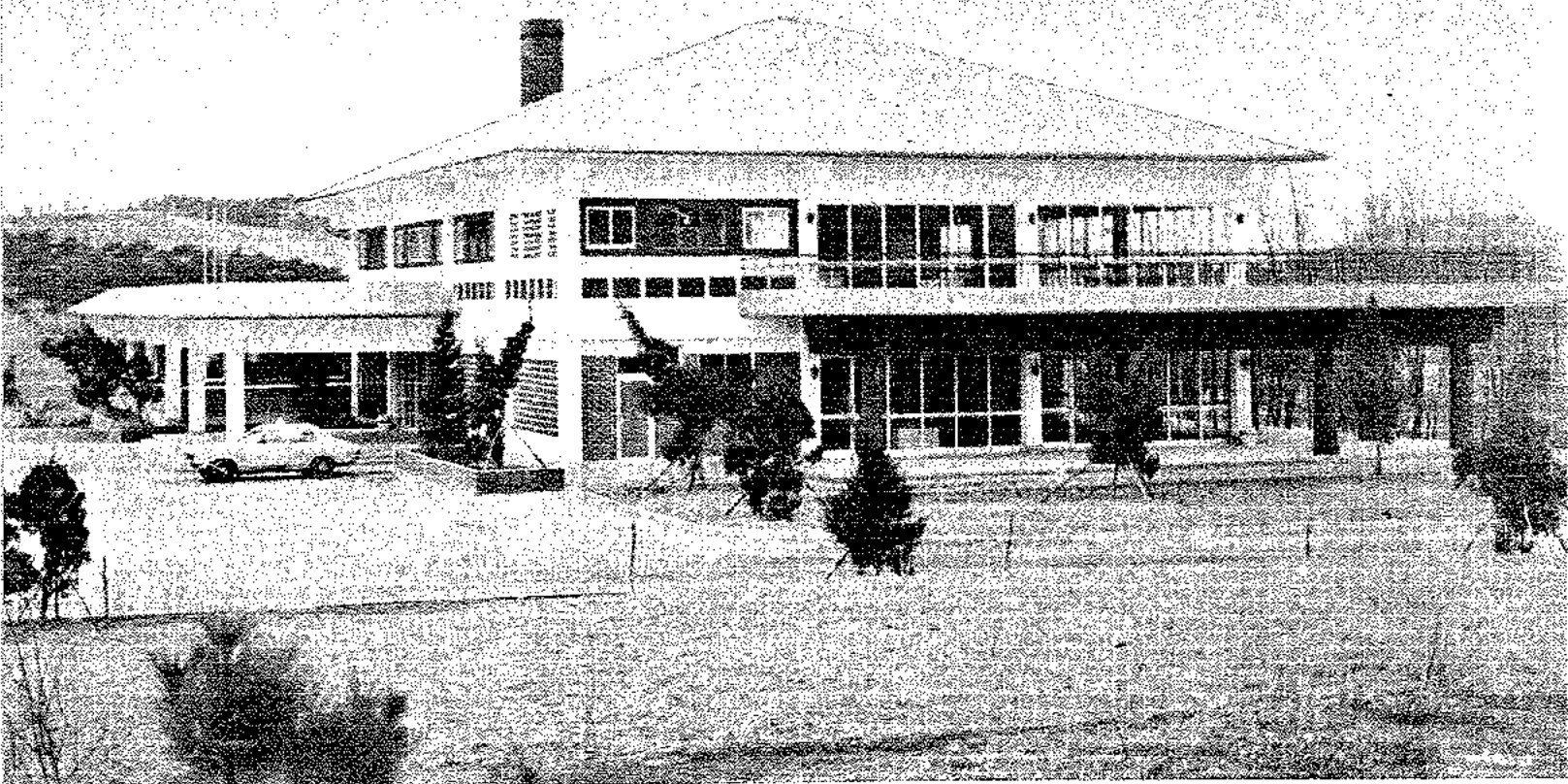
構 造：라멘조

1. 현 관
2. 복 도
3. 치장실
4. 침 실
5. 식 당
6. 주 방
7. 욕실 및 변소



平面圖





道高温泉 Country club house

建物様式은 鉄筋콘크리트 構造를 韓國 風土에 吸着시킬수 있는, 우리 나라 古建築과 韓國農家의 지붕 곡선을 본따으며, 지붕 材料에는 콘크리트에다 硃石 또는 硃石粉을 混合하여 콘크리트 面에 塗裝하여 草家지붕의 風貌를 나타냈음.

- | | |
|--------|--------|
| 1. 귀빈실 | 5. 복도 |
| 2. 집회실 | 6. 샤워실 |
| 3. 식당 | 7. 화장실 |
| 4. 주방 | 8. 발코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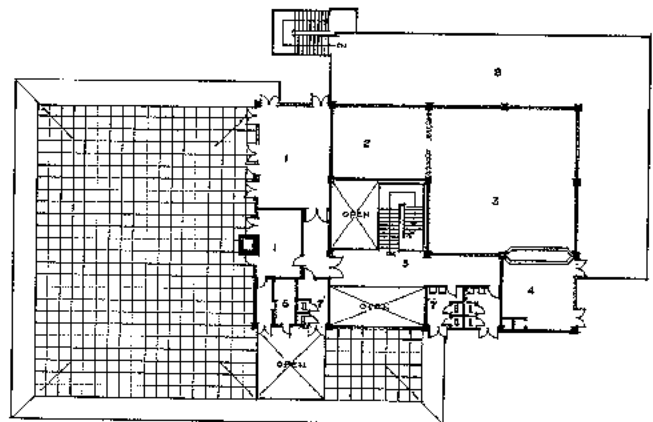
設計指導: 朴 運 旭
建築担当: 李 載 원
機械, 電氣設備: 林 房 淳
施工: 星 志 建設
竣工: 1975. 3.

1. 建物概要, 鉄筋콘크리트조
地上 2층, 지하 1층
2. 건물면적: 지하 144m² (43.6py)
1층: 905.5m² (273.91py)
2층: 390.6m² (119.14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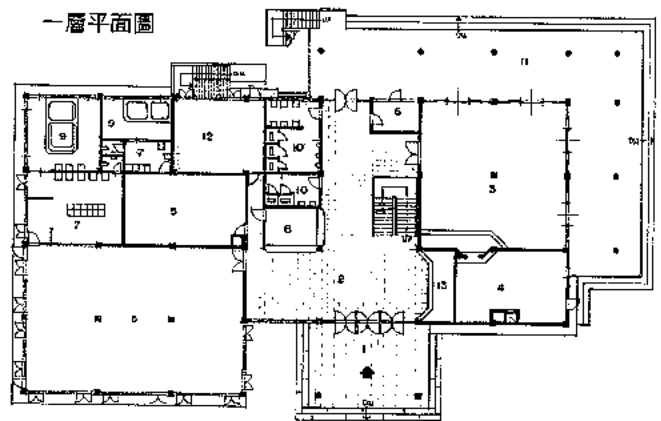
設計概要

溫陽溫泉에서 南으로 12km 地点. 道高温泉은 國內에서도 다운 溫泉地로서는 有名な 곳이며, 골프 코스는 18코스. 周末家族 同僚으로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생각된다.

二層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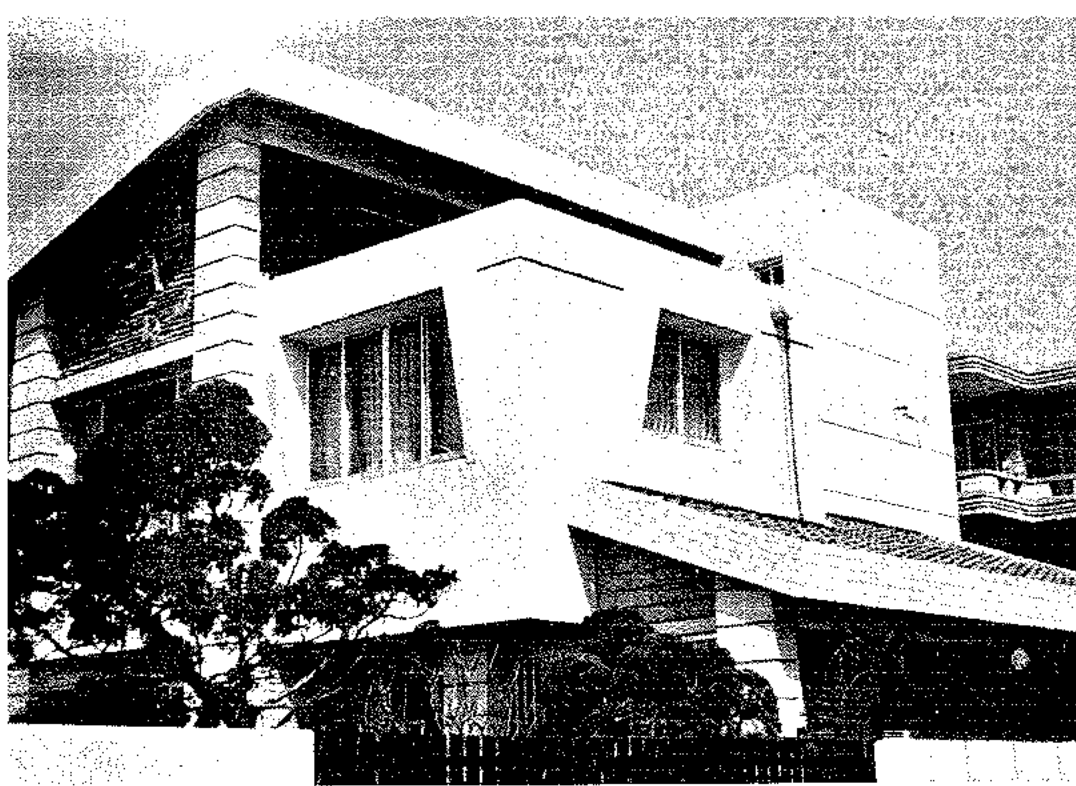


一層平面圖



- | | | | |
|---------|--------|--------|----------|
| 1. 현관 | 4. 주방 | 7. 탈의실 | 10. 화장실 |
| 2. 현관출 | 5. 복카 | 8. 카운타 | 11. 테라스 |
| 3. 레스토랑 | 6. 케리룸 | 9. 욕실 | 12. 사무실 |
| | | | 13. SHOP |





室内温室

朴氏住宅

設計：朴 喜 元 (三寶建築設計公社)

位置：서울特別市 城北區 정릉동

대지면적：590㎡

건축면적：지하층 46.7㎡ (14.9평)

1층 147.8㎡ (44.73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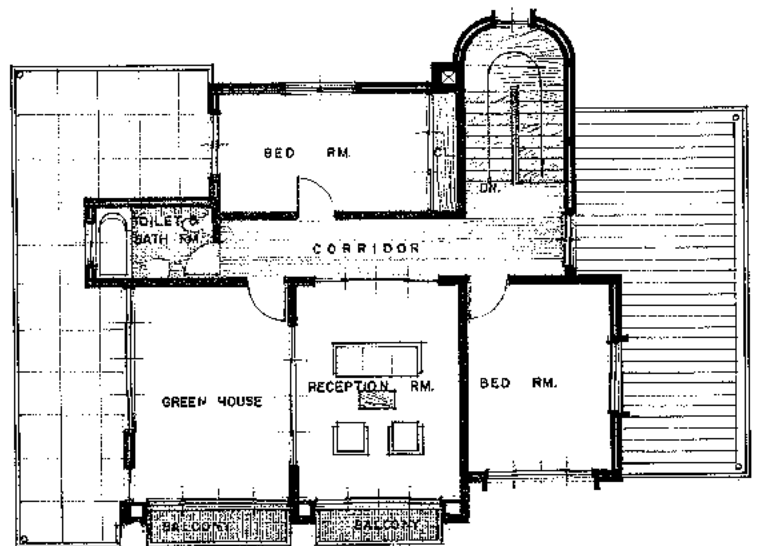
2층 94.8㎡ (28.68평)

옥탑층 7.9㎡ (2.33평)

연 면 적：297.11㎡ (89.9평)

구 조：조적조

총공사비：₩ 27,000,000 정도



一層平面圖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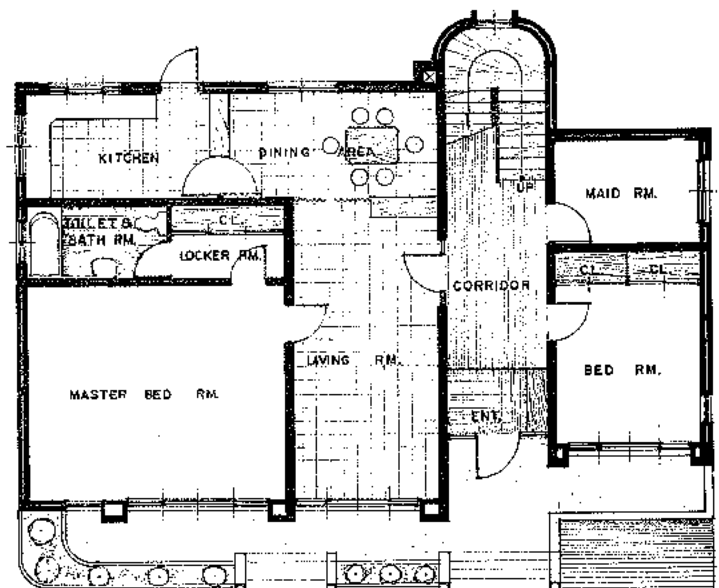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에 정통필라기 국민대학 캠퍼스를 바라보며 맑은 강가와 제철마다 변하는 한복의 입체화를 연상할 수 있는 부지조건으로……

설계면에서 다음과 같은 것에 중점을 두었다.

건축주는 하늘을 사랑하고 화로 기르기를 취미로 하였기에 정원과 온실을 의 내부와 연결하여 보았으며, 온실의 천정을 Top Light로 처리하였음.

부부실은 독립성을 갖기 위하여 전용 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을 같은 공간에 처리하였으며, 계단실은 주위의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후면에 타원형으로 높게 처리하였으며, 가구는 목조 구조로써 부회 조립식으로 해서 제곳에 두게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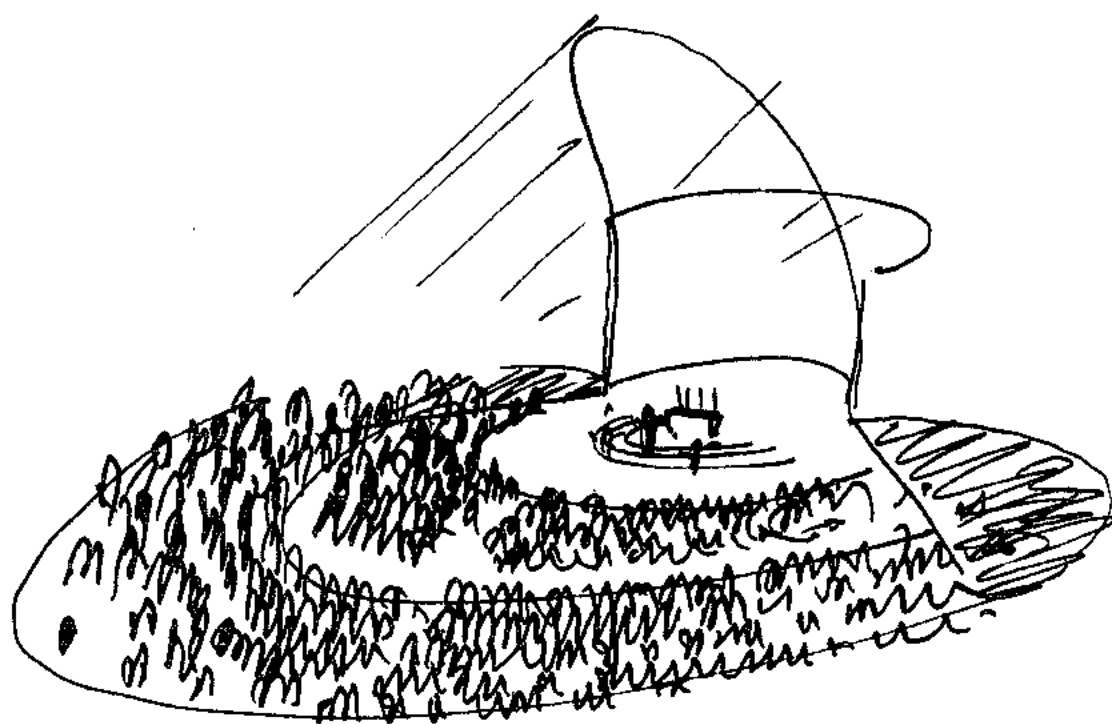
외관은 자연석과 본 타일로써 MATCH시켰고 지붕은 콘크리트 대각, 평면 스타브와 돌출을 둔 기와 지붕으로써 우아하고, 안정감을 주어보려고 노력하였다.



二層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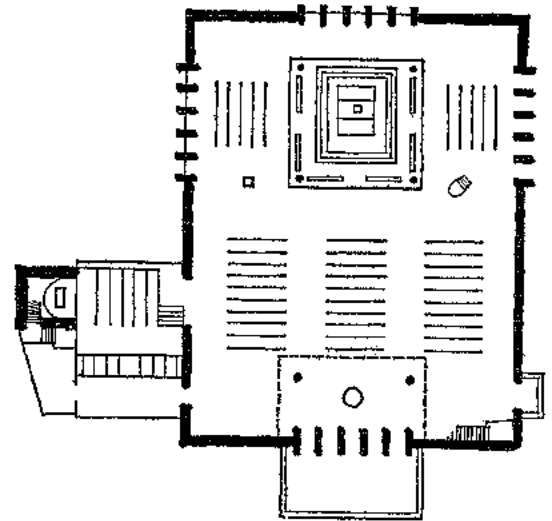
海外作品 〈独逸 編〉

二十世紀 独逸의 教会建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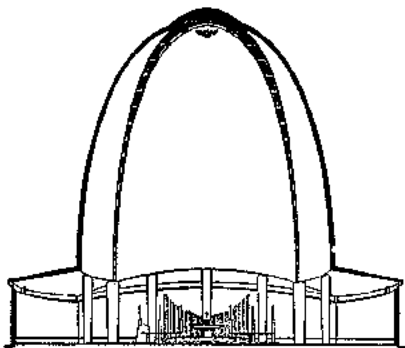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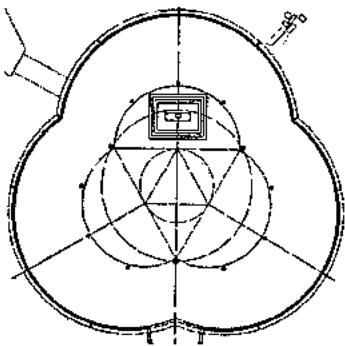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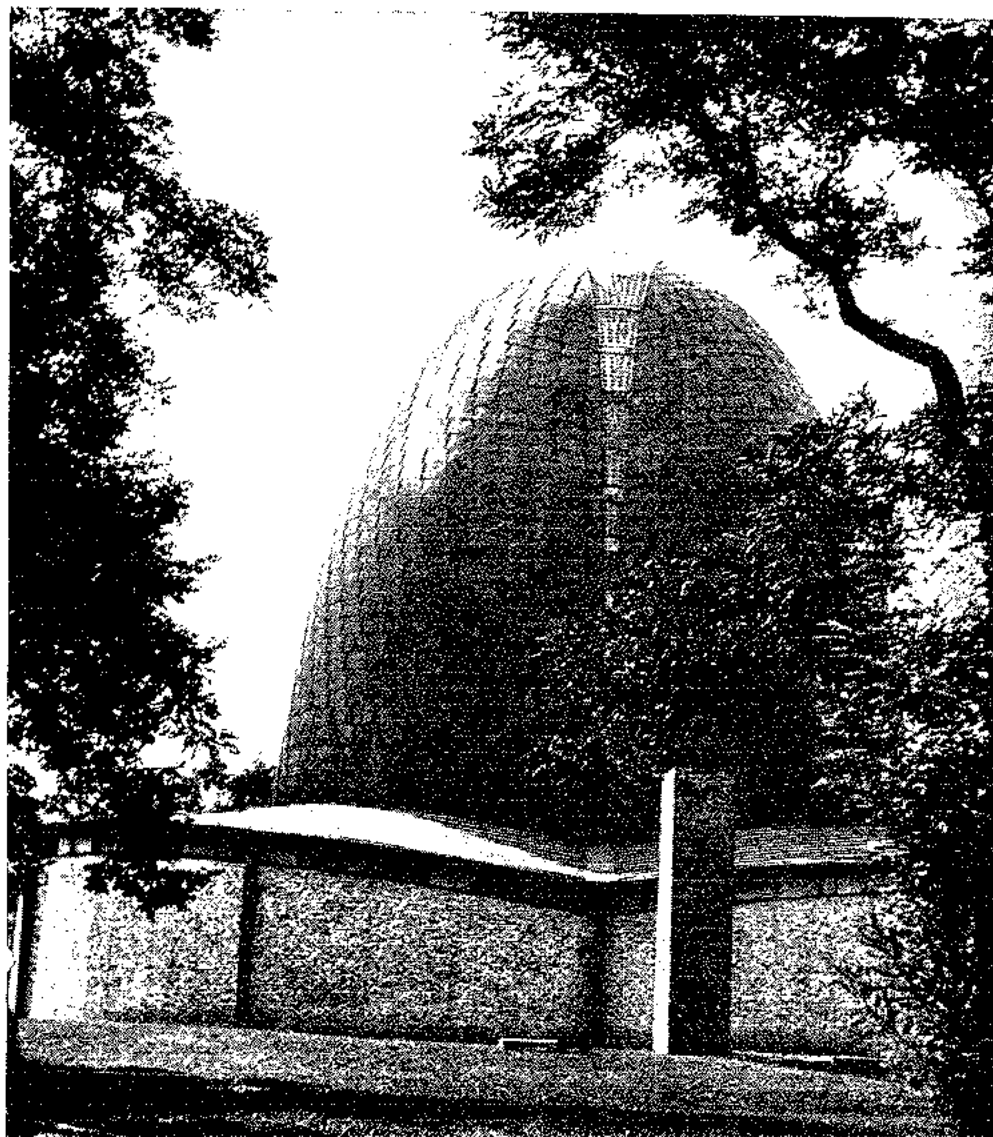
뮌헨, 데어 하일리게 영엘스 교회 1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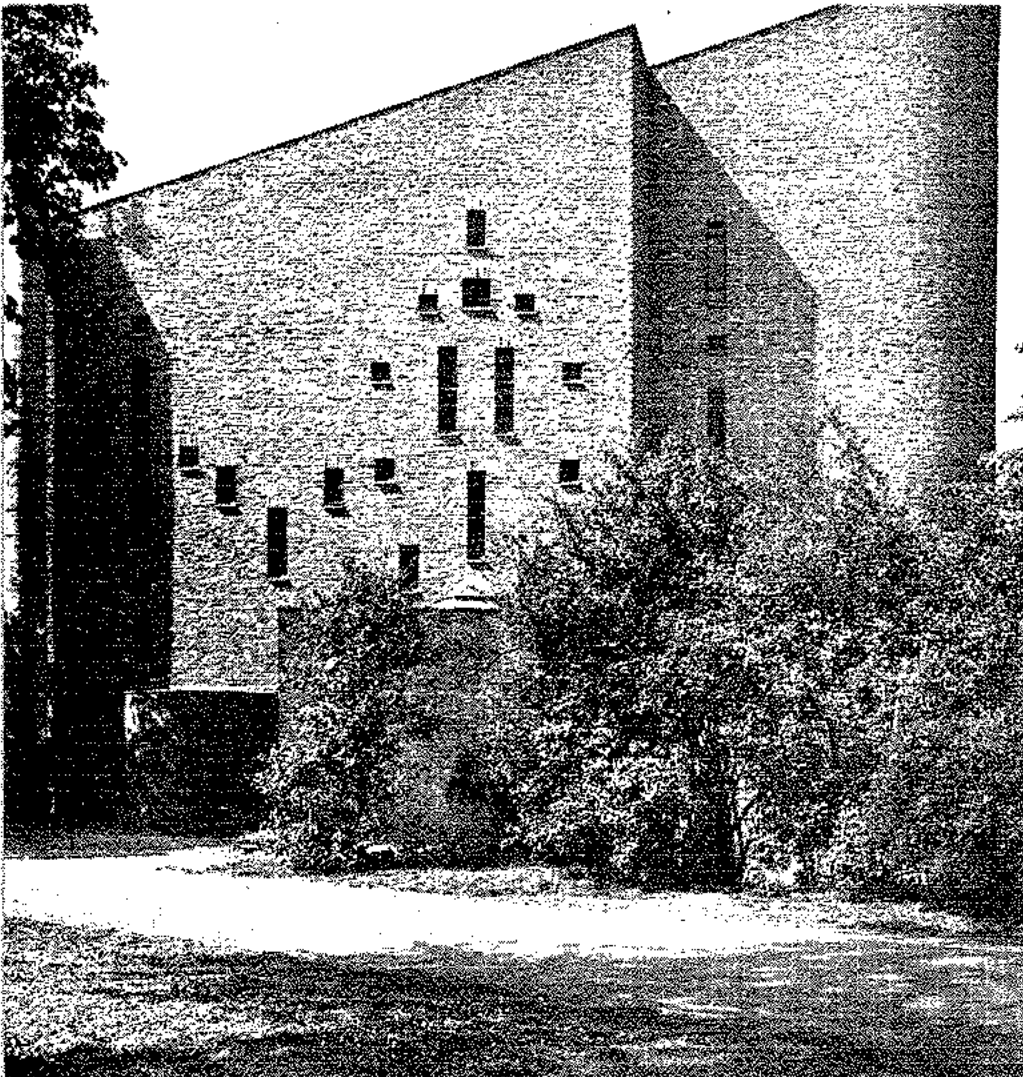


뮌헨, 성 로루스 파울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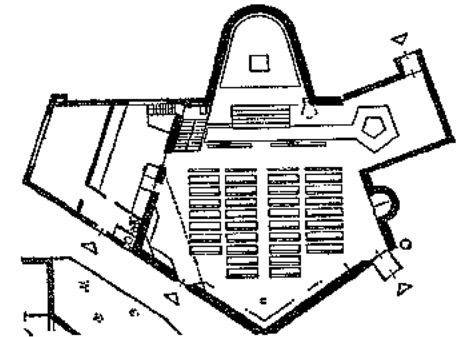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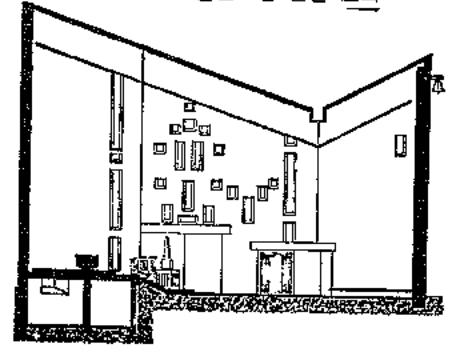


슈나이더 에슬레벤, 1955, 設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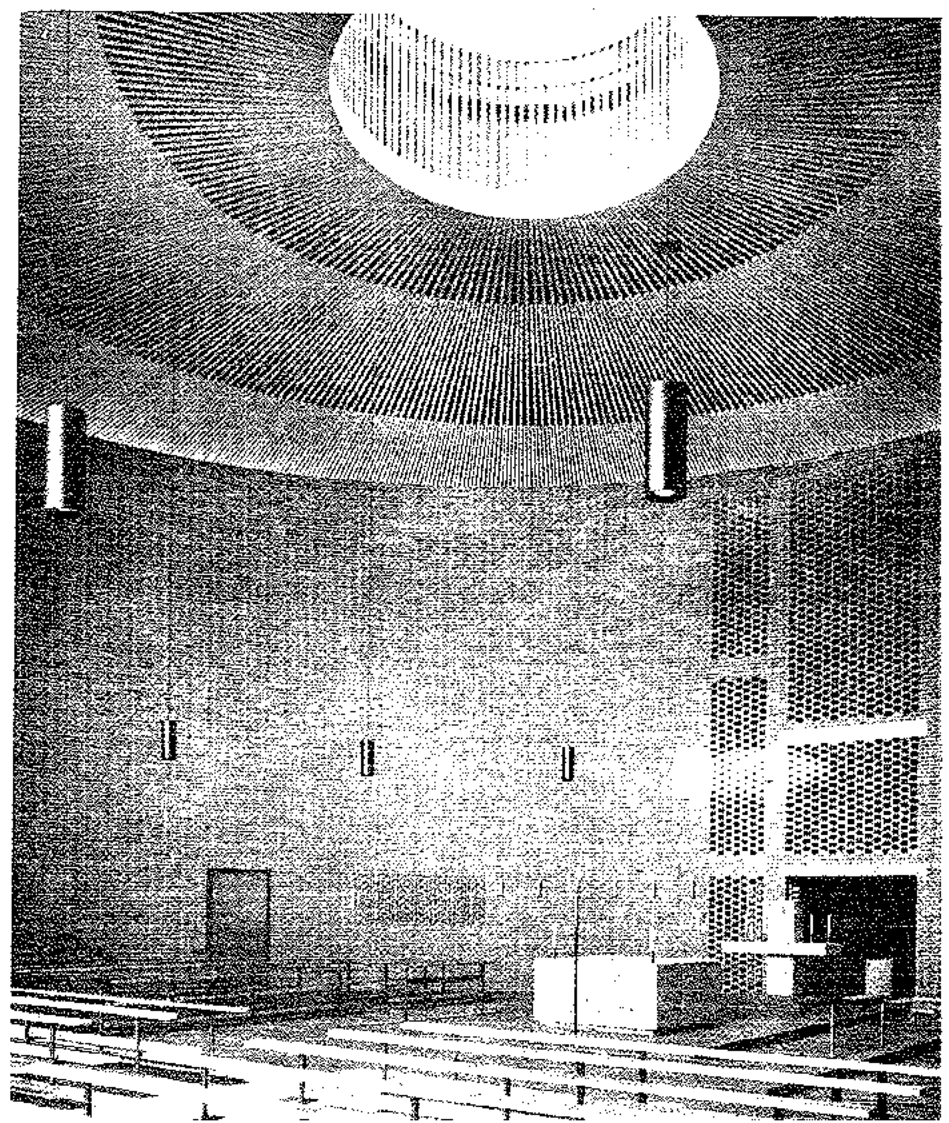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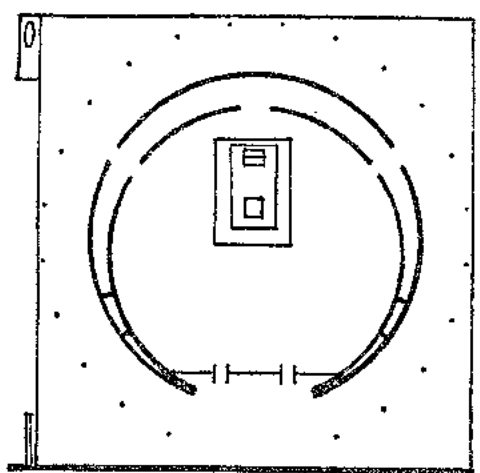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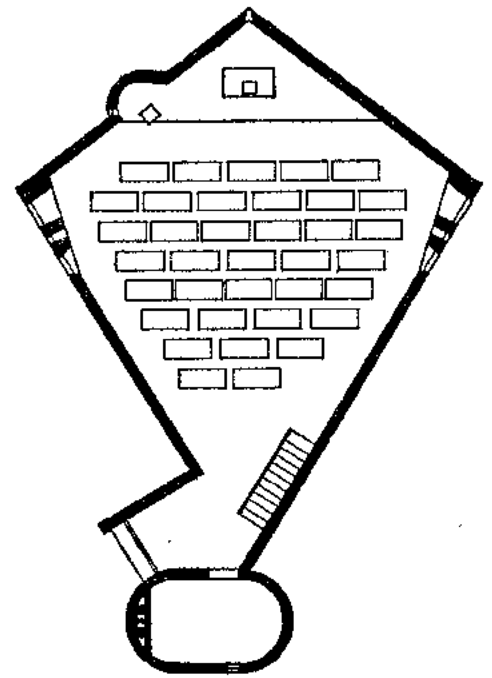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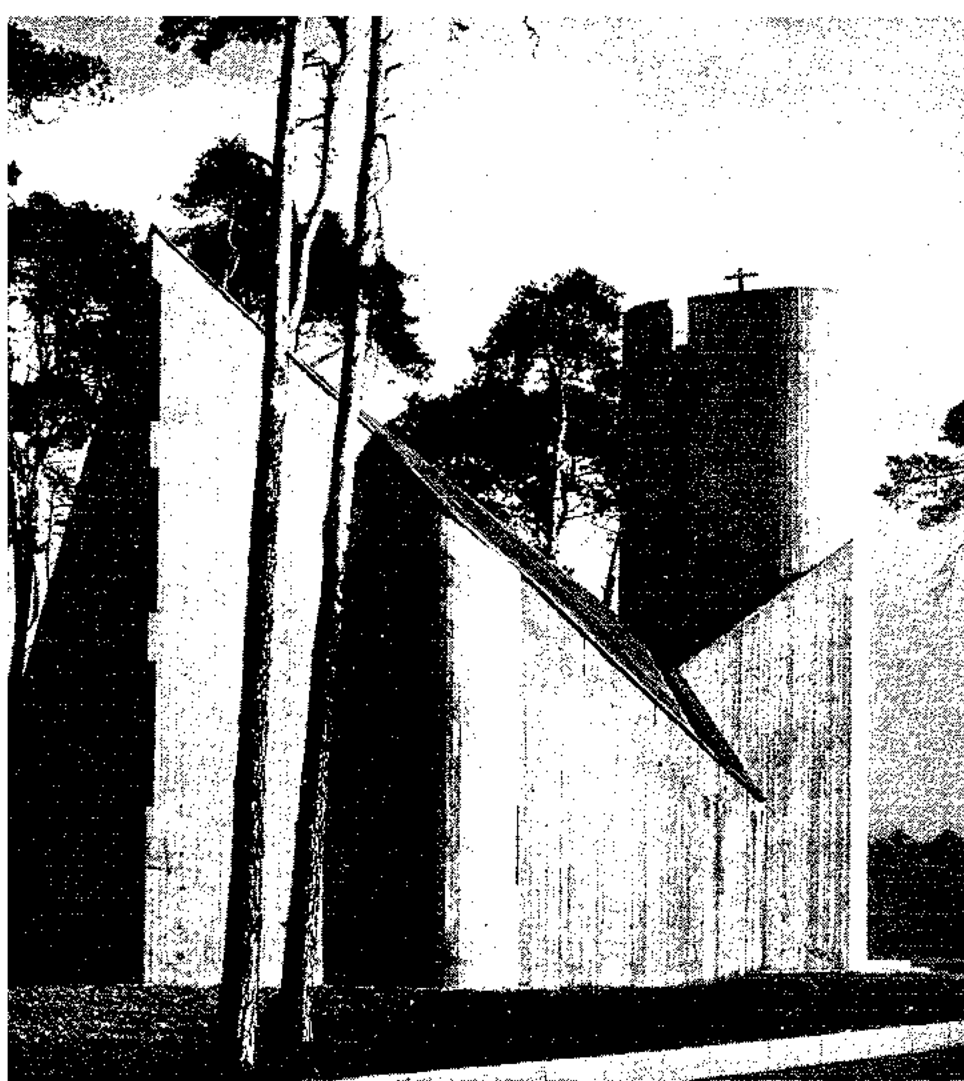
필름 성 일반 교회



힐링, 필름 1957 /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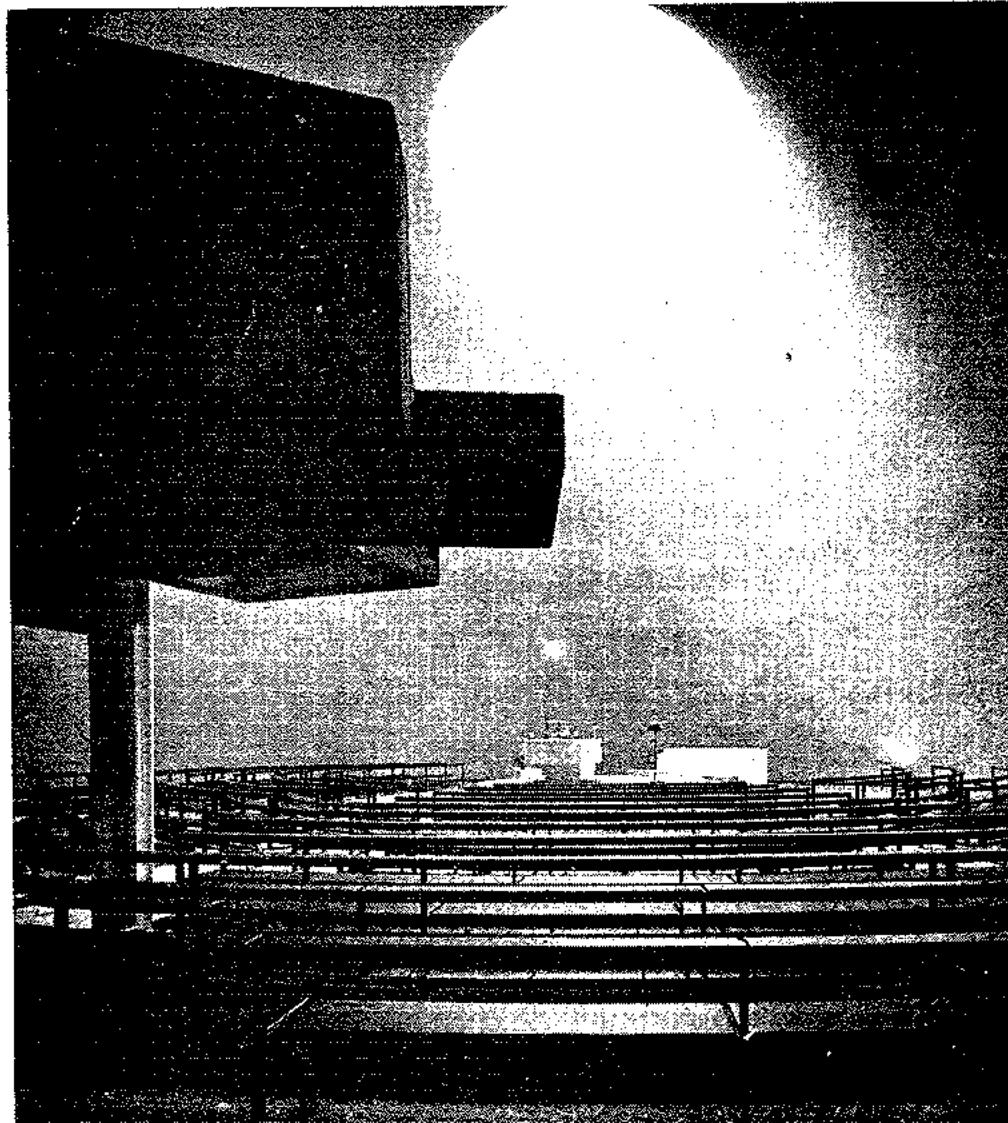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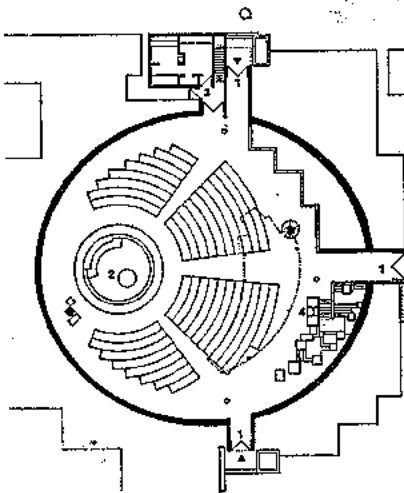
둔헨, 보겐하우젠 성 요한 카피스트란 교회
셀루프 設計 1957 /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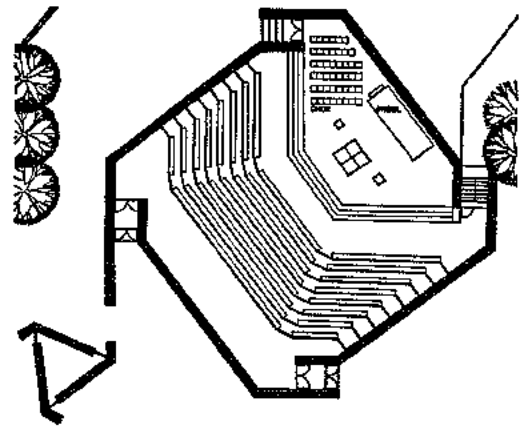
만하일-켈러메나우,
슈트라우스 設計, 1960

멜바 홀, 뷔르템베르크,
클라우스 프린츠 設計 (스루트가르트) 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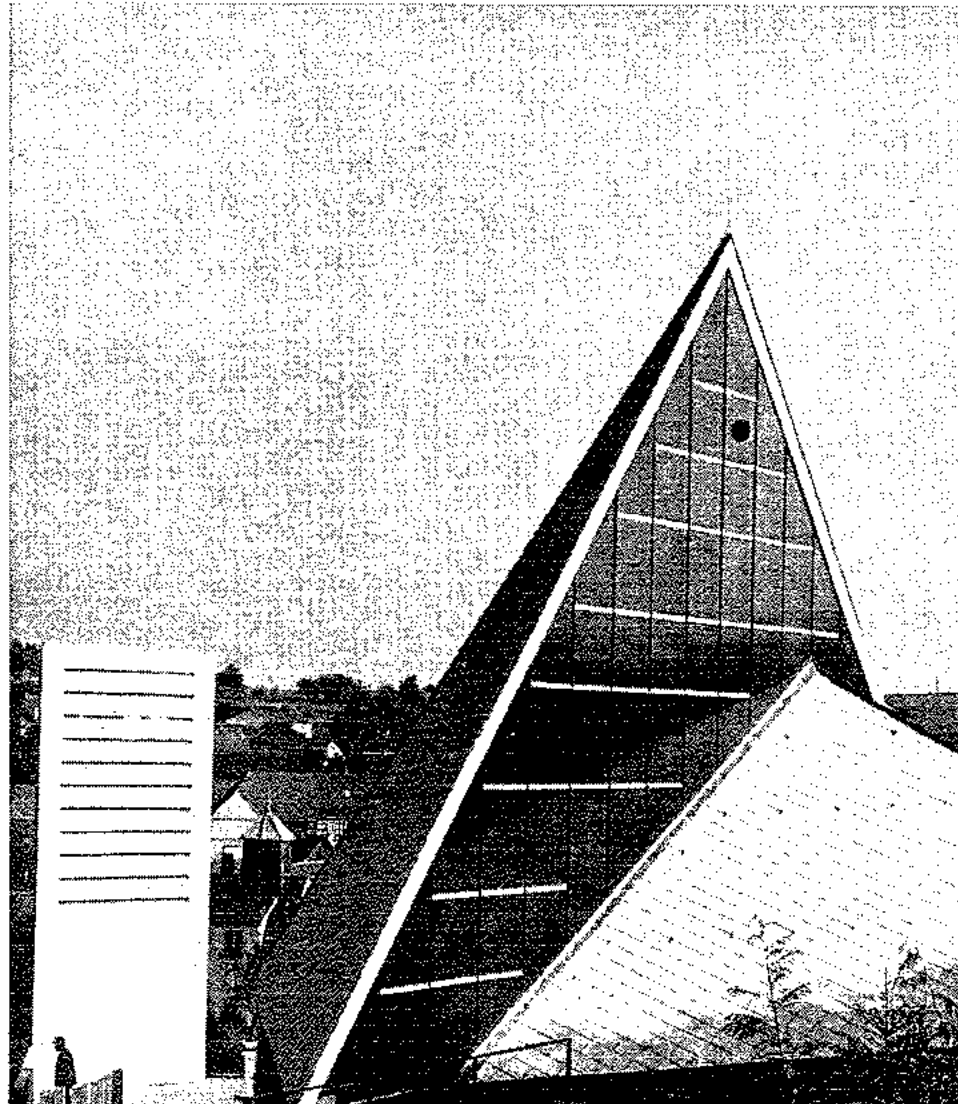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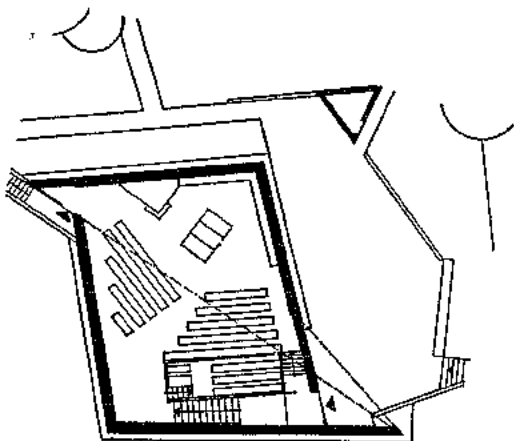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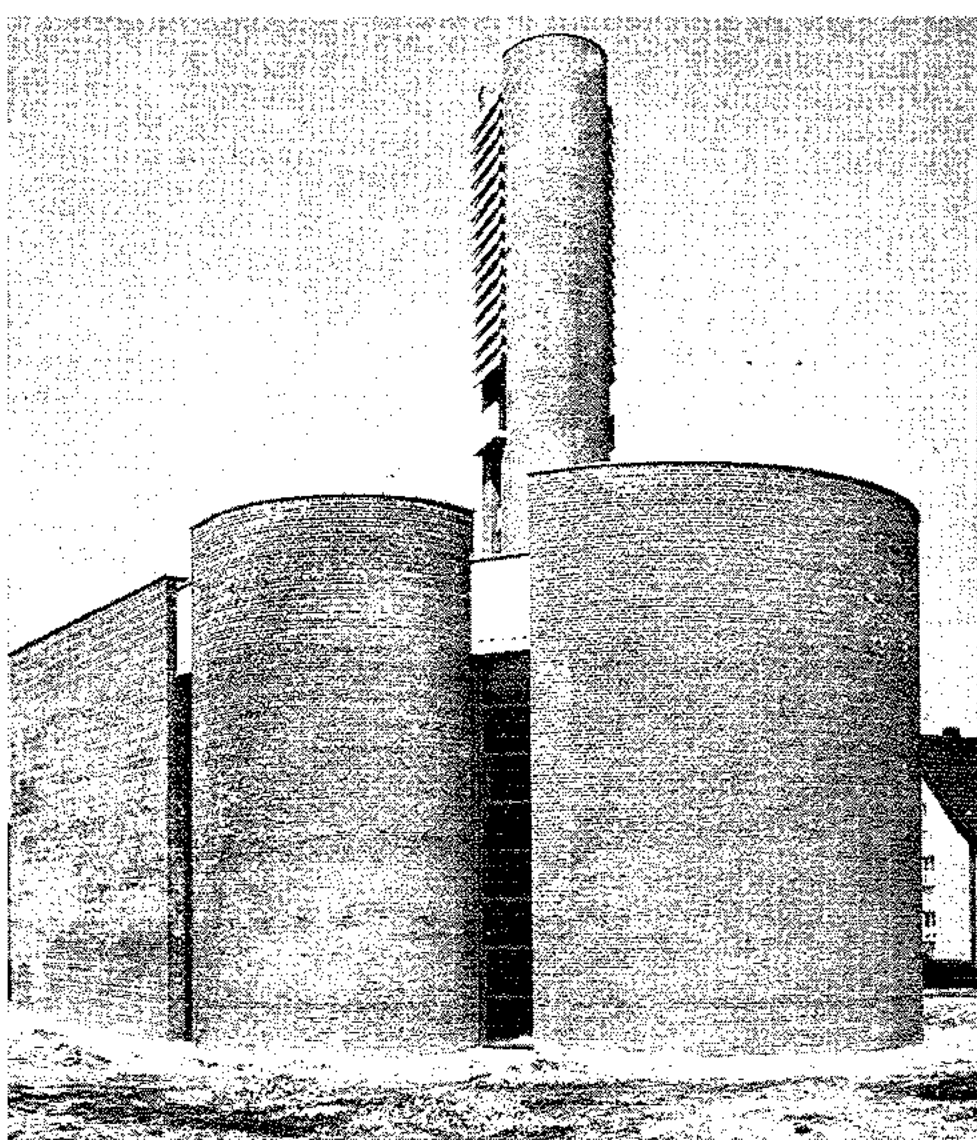


위셀도르프 성 바티 교회.
헨트리히와 뫼츠니 設計, 1963 /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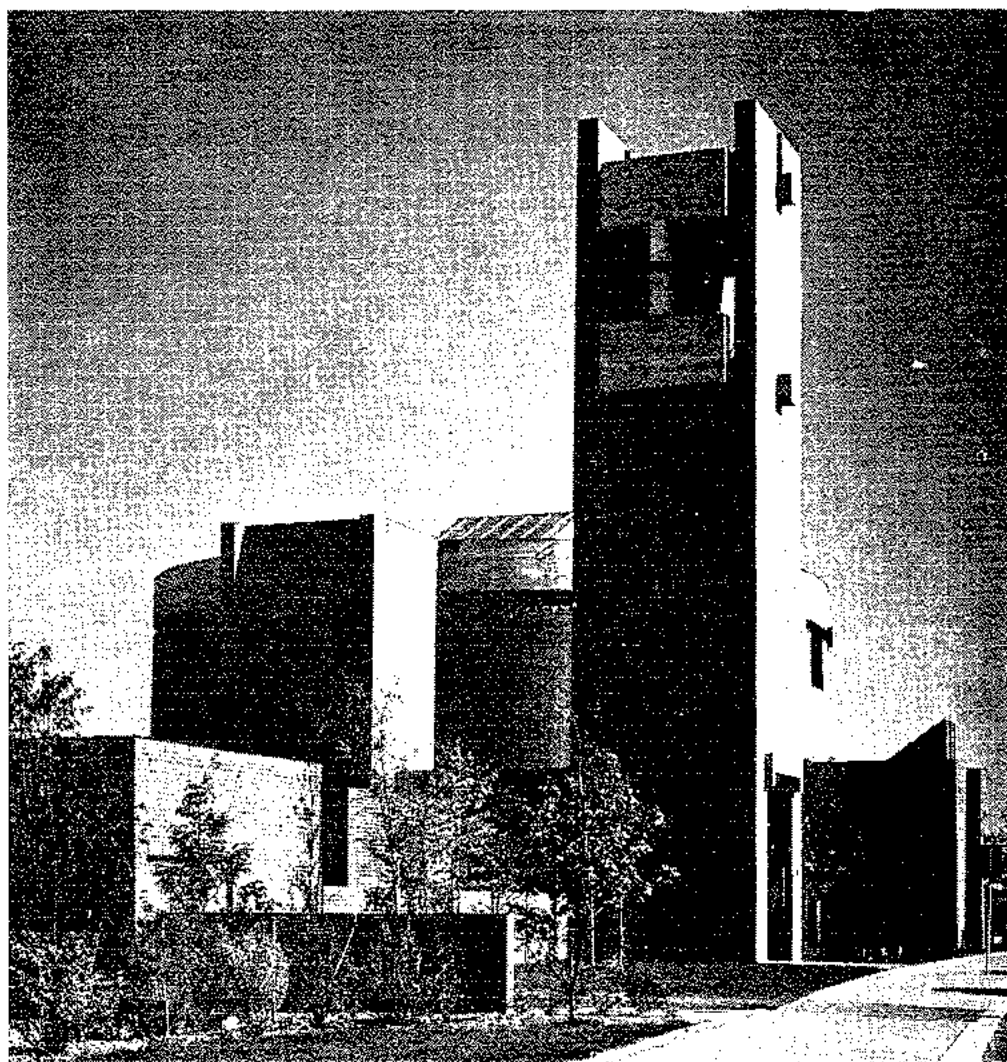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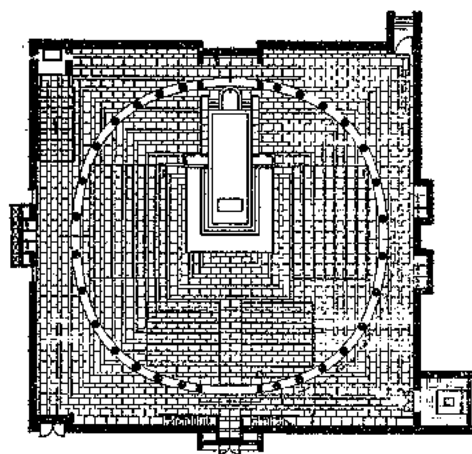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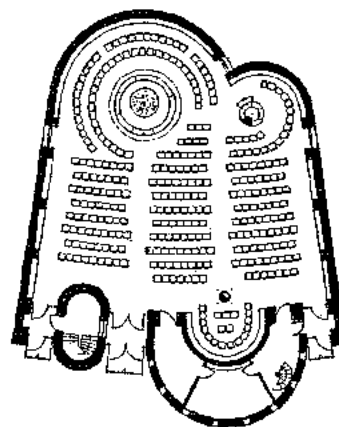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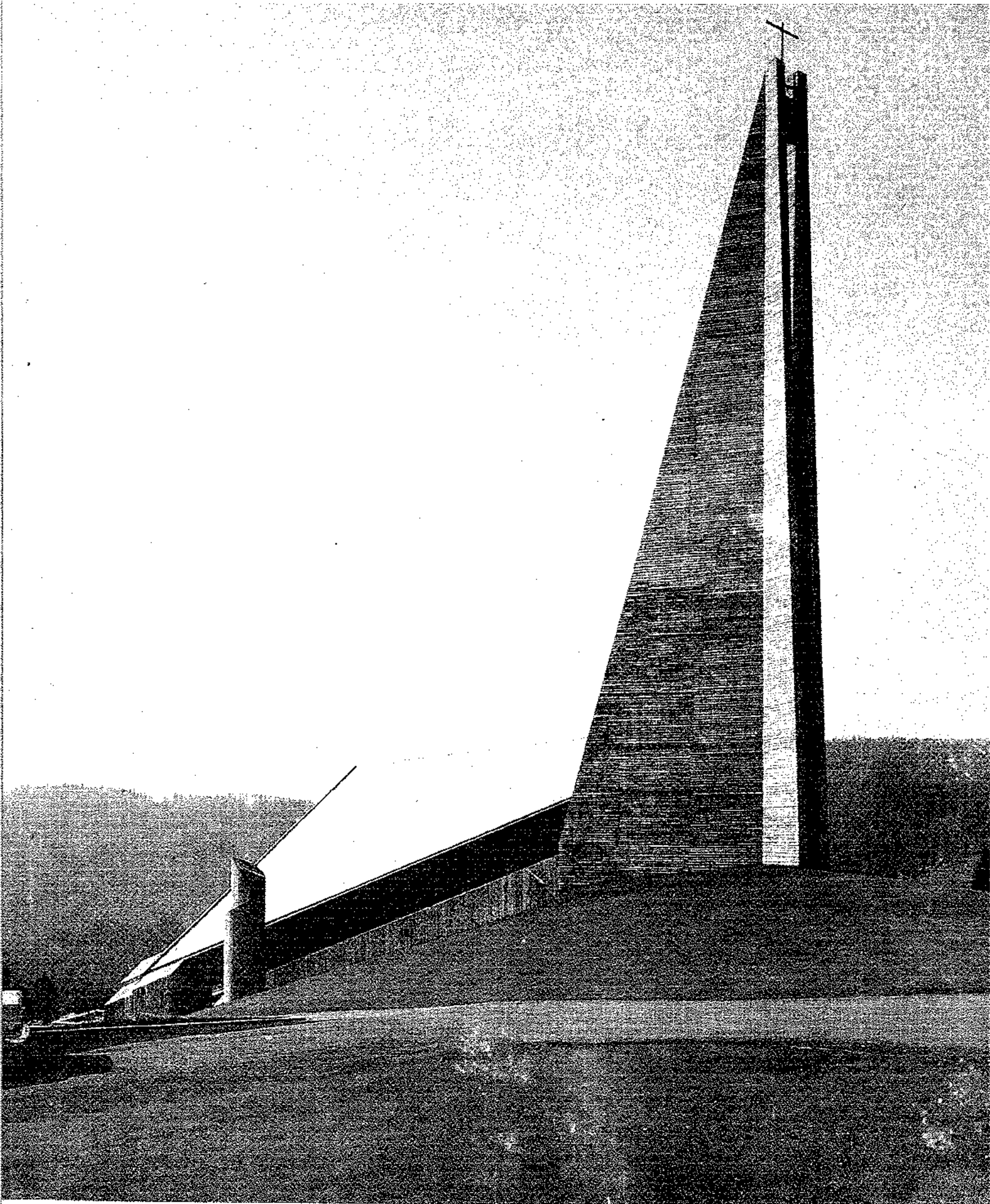
하센로트, 헤시아 교회.
포센벤스케 設計 1963 /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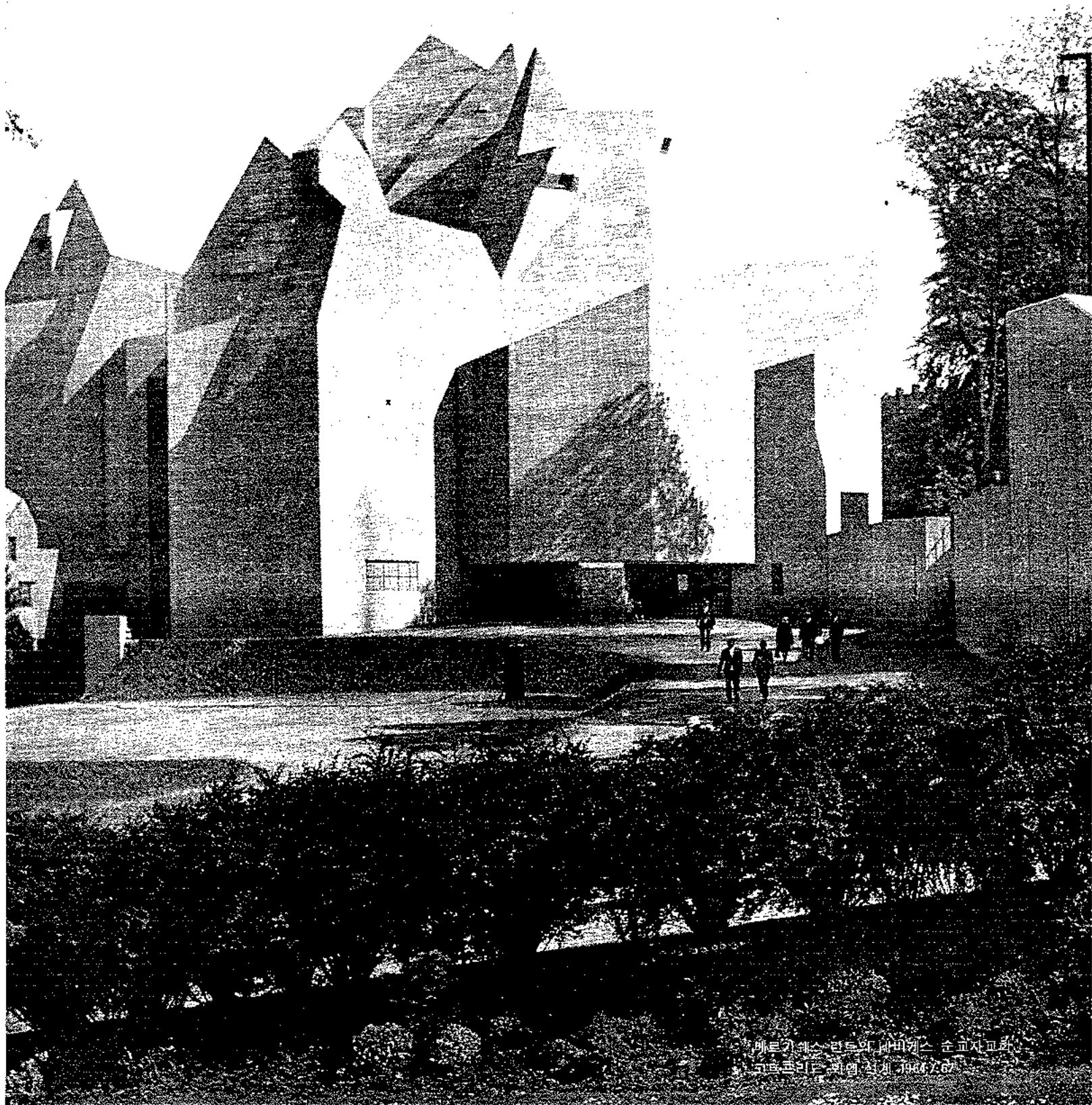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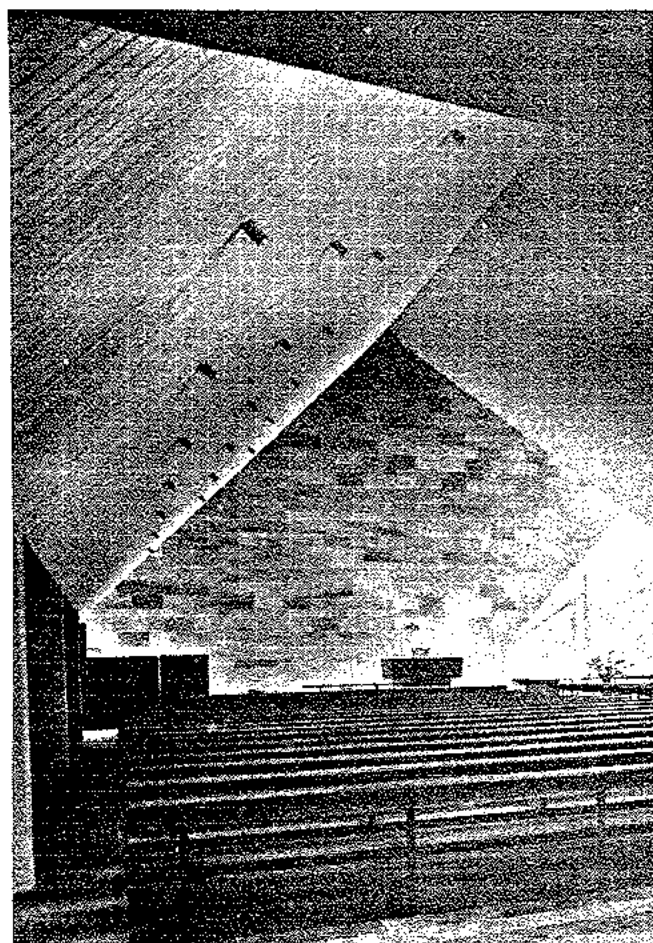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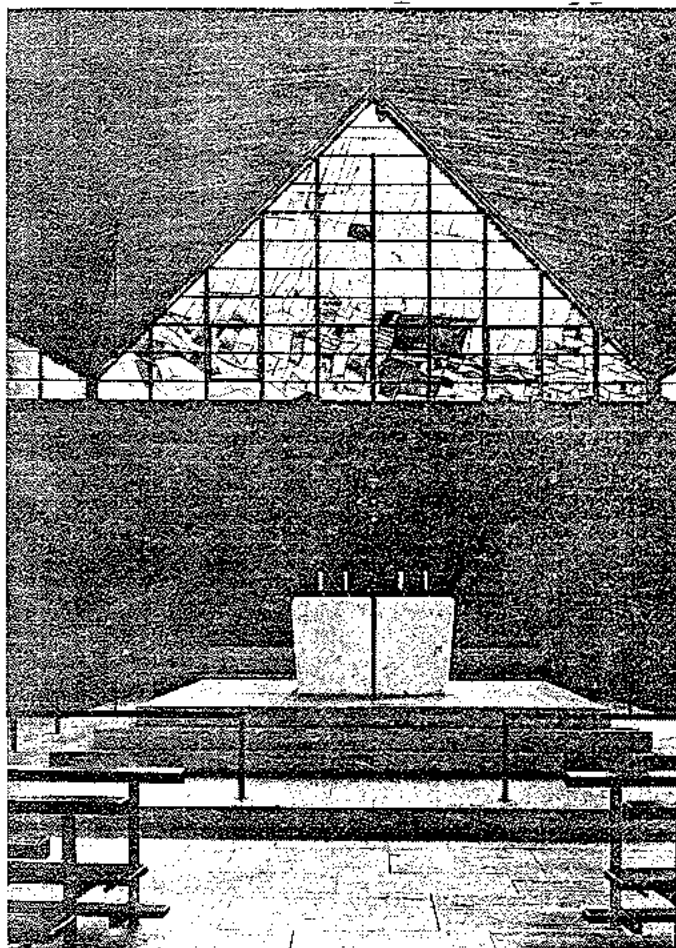
글라드벡-로센히켈, 성 페터교회의 RC.
K. 뫼멘 나우어, 設計 1964/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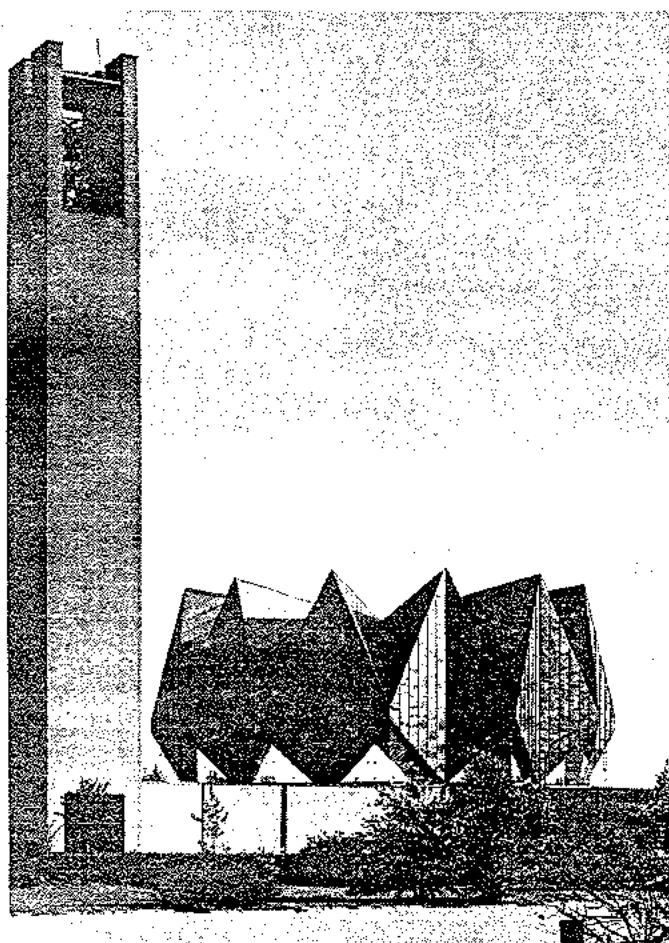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세인트 존스 수교자교회
고트프리트 폰 뮐러 설계 196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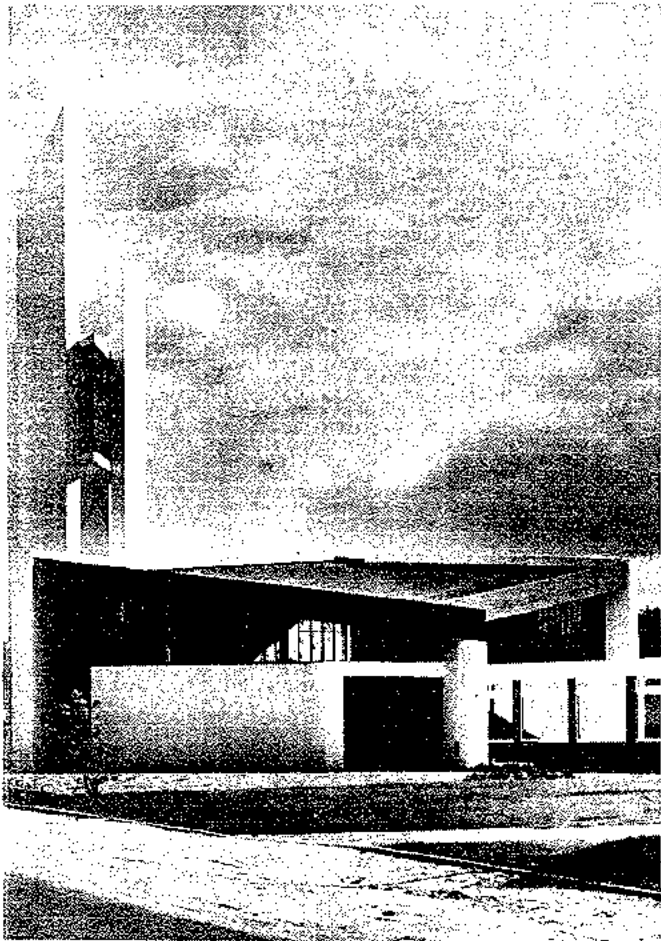


뷔르크 슈타트, 성 마아가렛,
에버르트 (設計) 1960 /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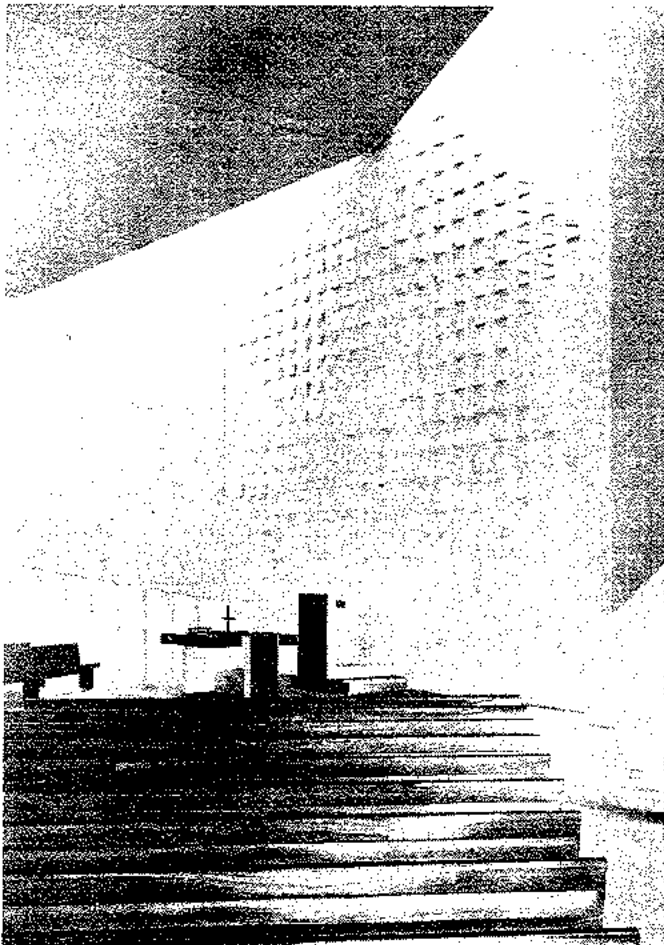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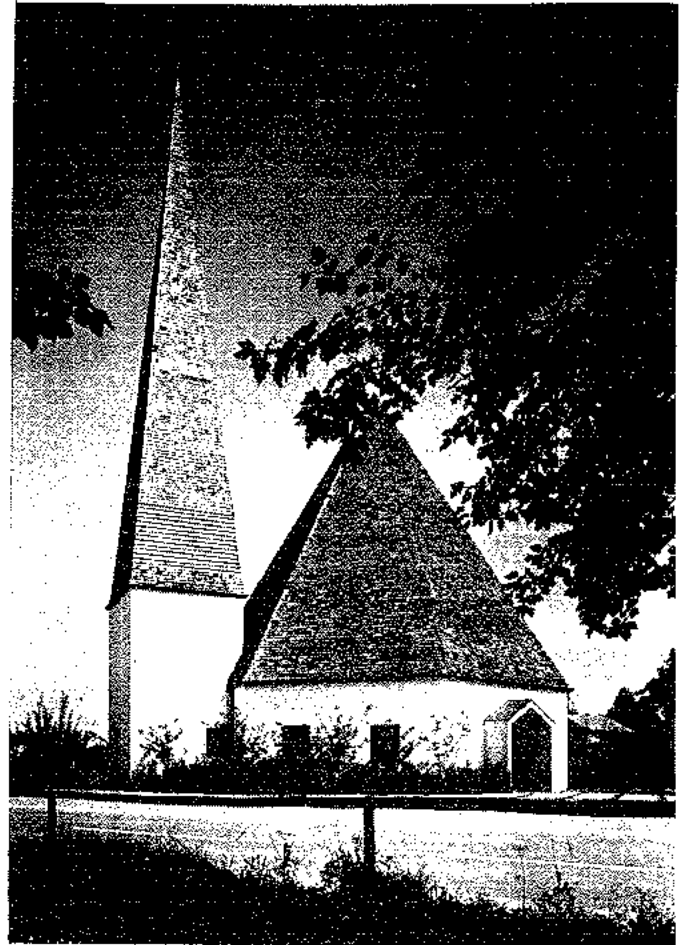


란츠베르크 암 레흐, 하일리게 힐헬스
요세프 비데만, 뮌헨 1964 /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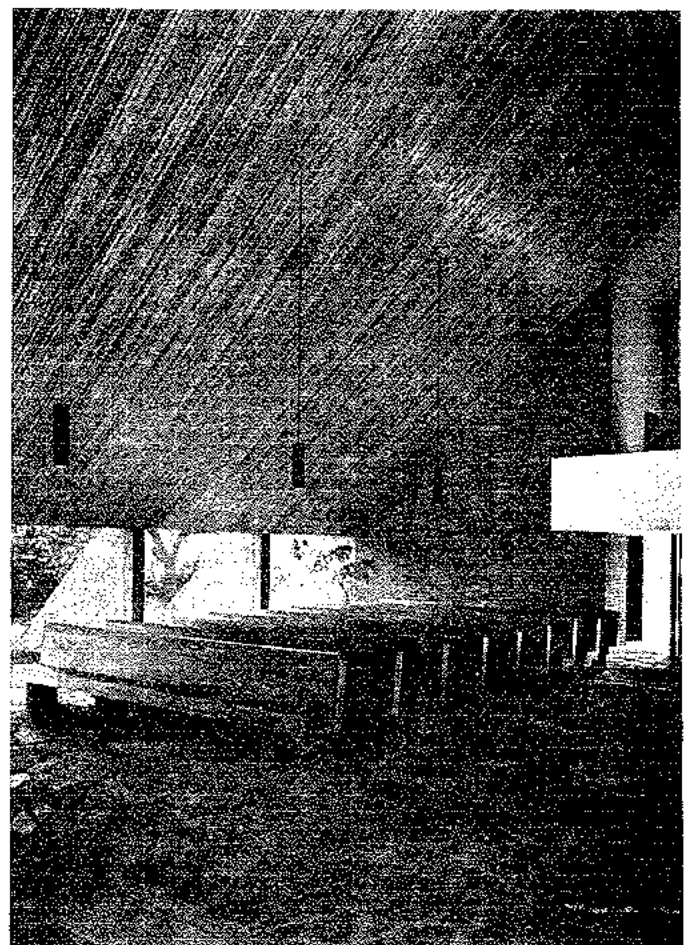
라이스링겐, 성 마르크 교회 (設計)
베른트와 베르너 베크켄(브라운 슈박이크) 1960 /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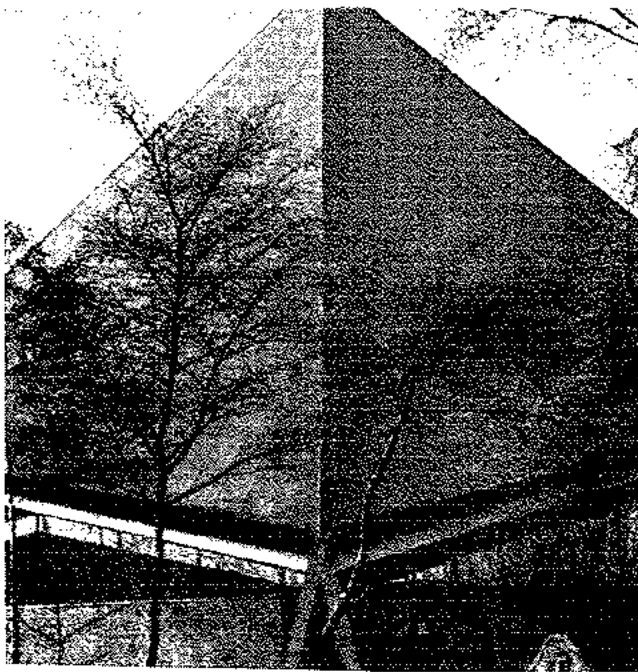
켄세, 오버 바이에른
프란츠 라히트볼라우와 L. J. N 바우너 (設計) 1964 /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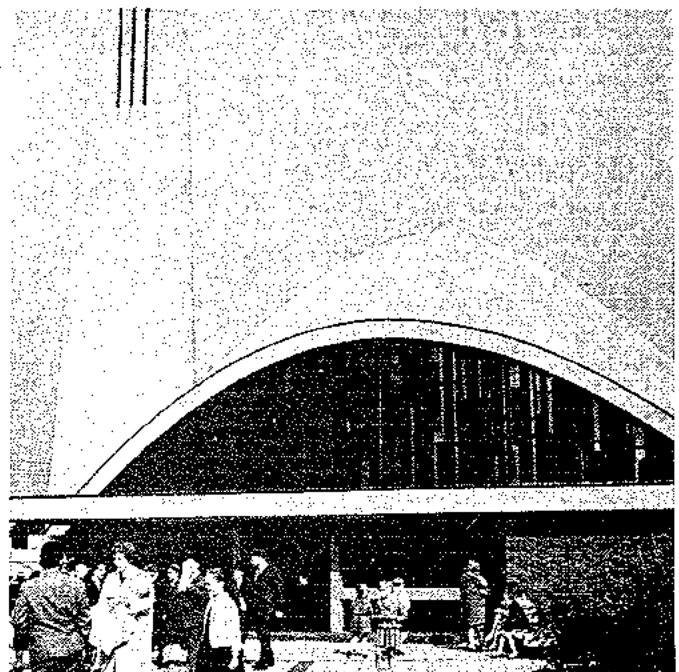
겔센키르헨-부어-에틀레,
베르거 켈트, 성 토마스
AE. 뷔팅과 프레트 아노브스키 (設計) 1964 /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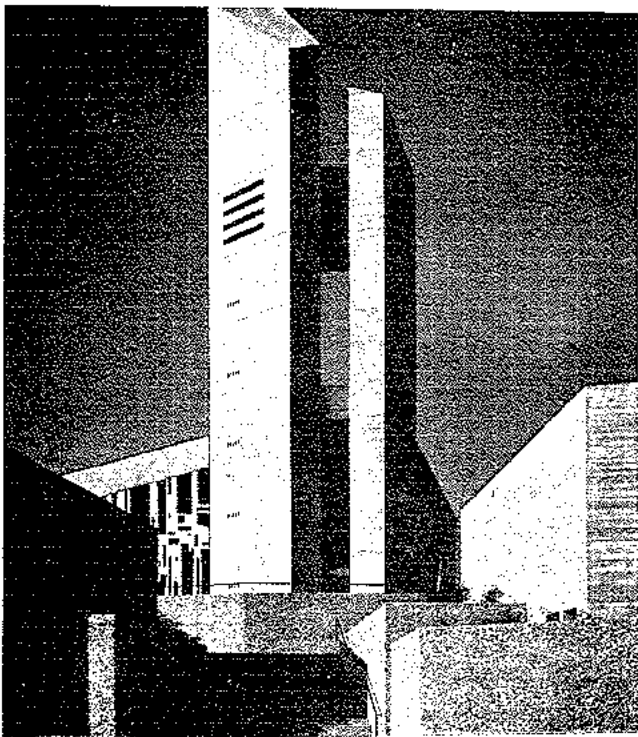
로마르, 쾰른, 그리스도 교회,
게오르크 라쉬 (設計) 1959 / 60



Bottrop-Boy, St Francis, R.C, exterior. E. Burghartz 1960/62



Düsseldorf-Eller, Am Schabernack, St James, Ev., exterior. E. Schulze-Fielitz 196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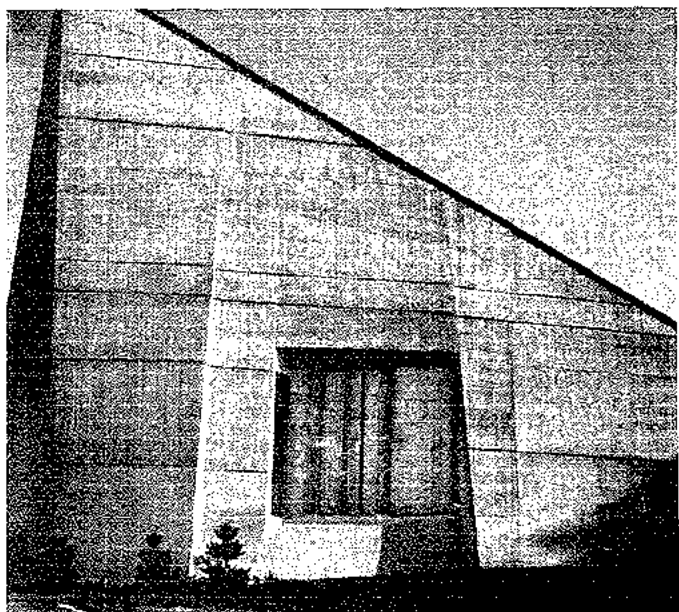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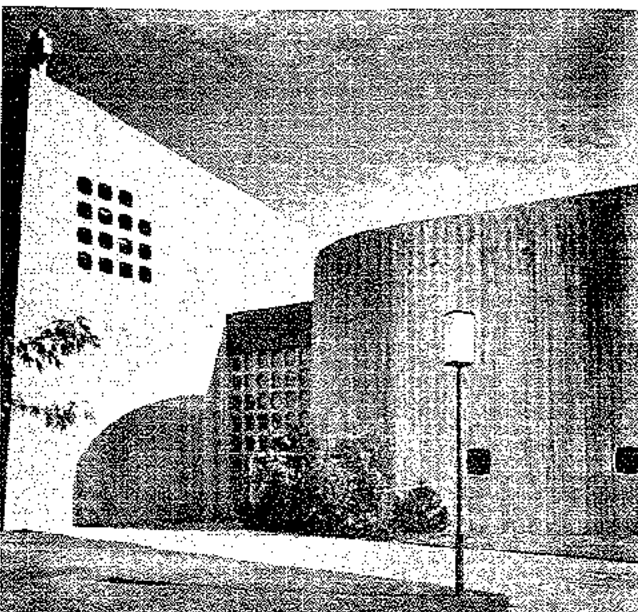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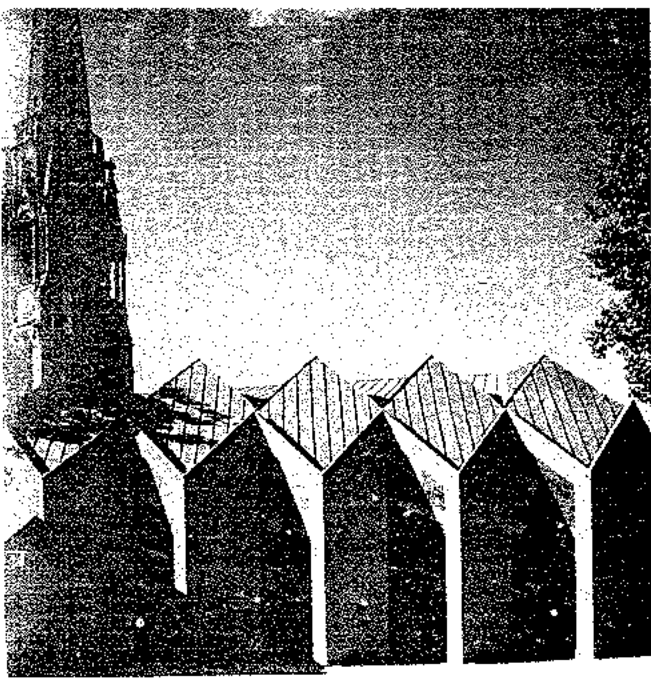
Hildesheim-Godehardikamp, Ev. church of 12 Apostles, exterior. D. Oesterlen. Plan 1963, erection 1964/67
Erlangen, Am Anger, Ev. church, exterior. Schlegtendal 1965/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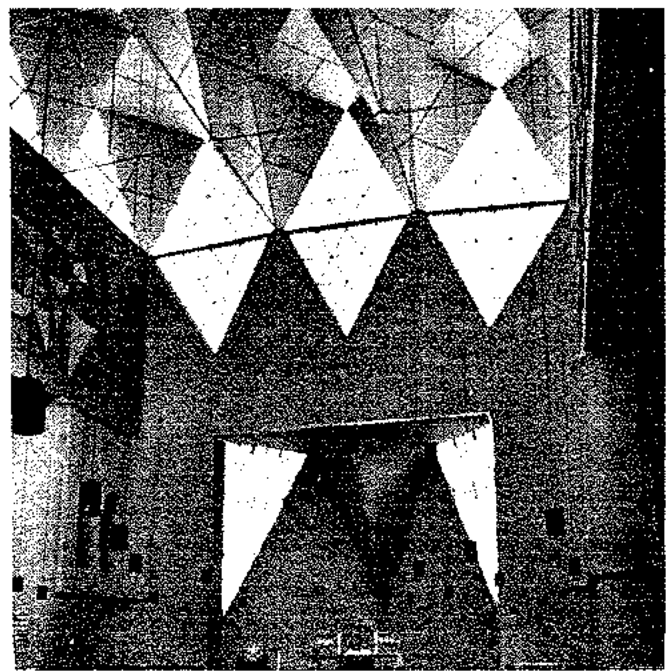
Krefeld-Bockum. Ev. parish centre, exterior. E. Fohrer.

Detmold, Atonement church, Ev., exterior. Lothar Kallmeyer 1963/67. Interi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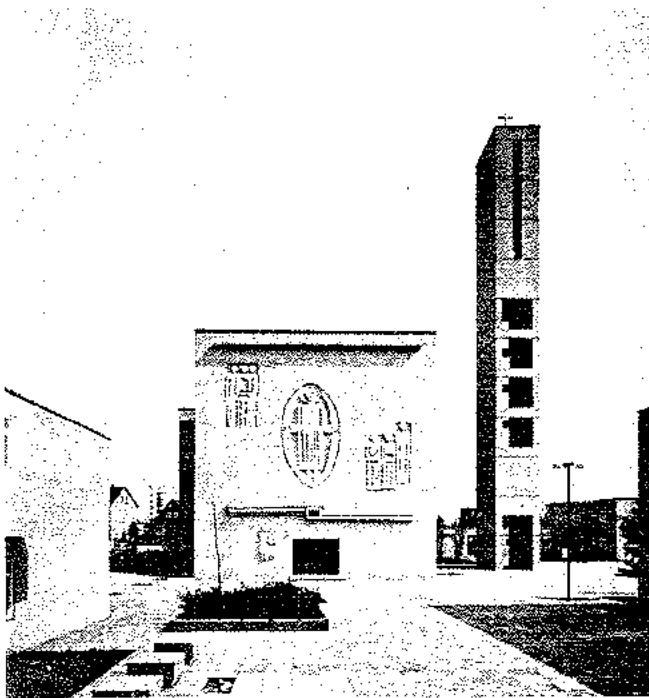




Bochum, Christ Church, Ev., exterior from the east. D. Oesterlen 1957/59



Berlin-Charlottenburg, Knobelsdorfsstrasse, Epiphany church, Ev., interior. K. Sage with K. Hebecker. Plan 1957, dedication 1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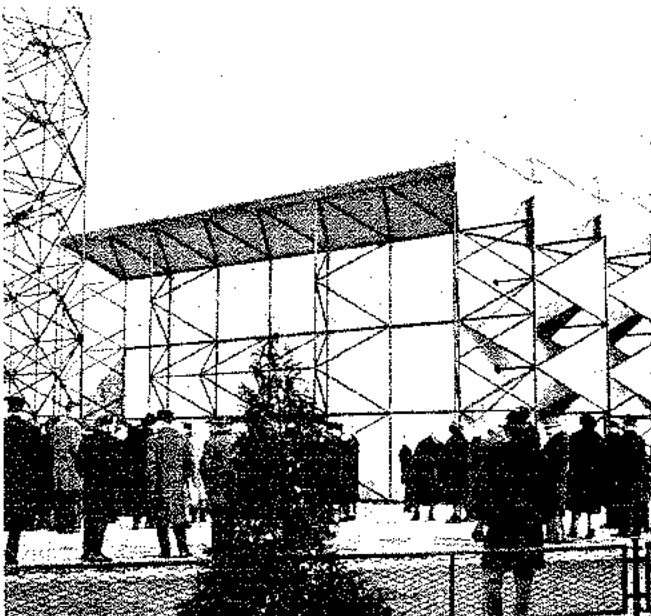


Frankfurt-Nordweststadt, St Matthias, R.C., exterior. Giefer and Mäckler 196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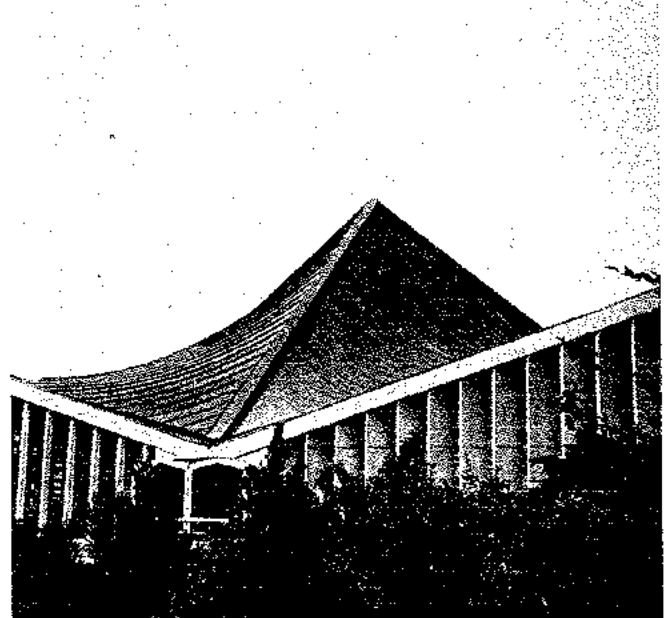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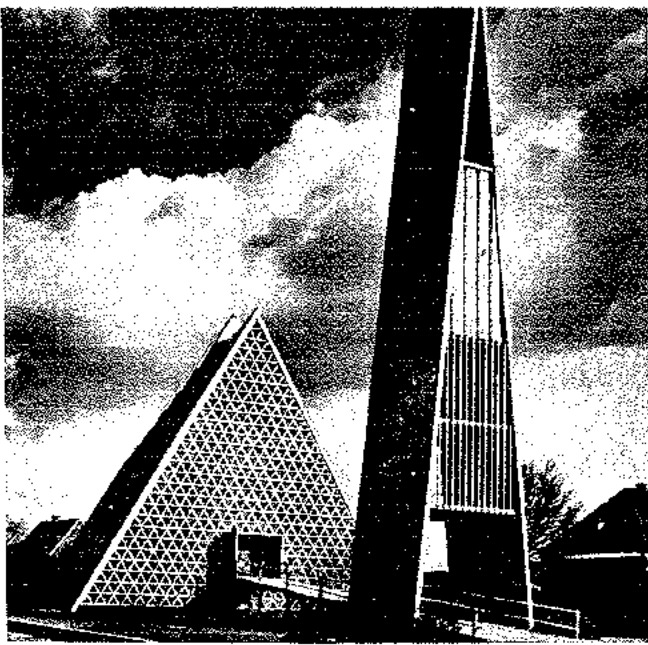
Helmstedt, Ev. church centre of St Thomas, exterior. Dirk-Erich Kreuter and Ulrich Hausmann, Braunschweig, 1963

Düsseldorf-Eller, Am Schabernack, St James, Ev., exterior. E. Schulze-Fielitz 196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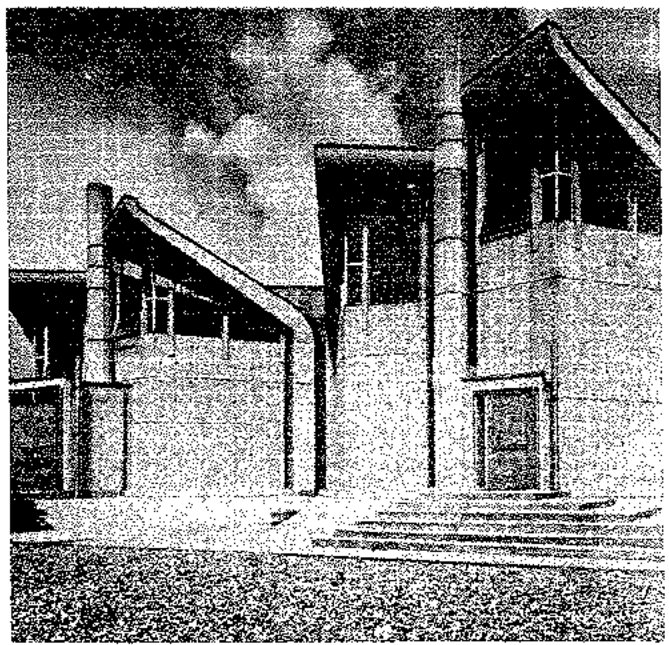


Krefeld-Gartenstadt, St Pius X, R.C., exterior. Lehnbrock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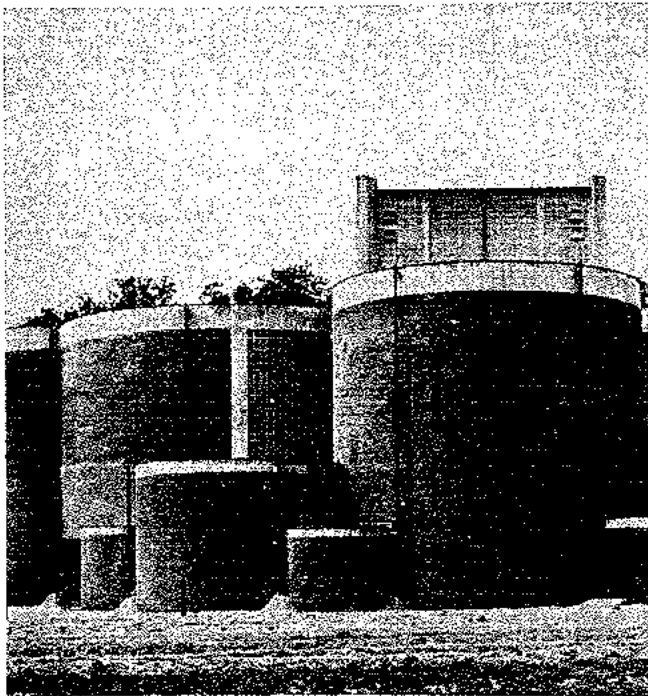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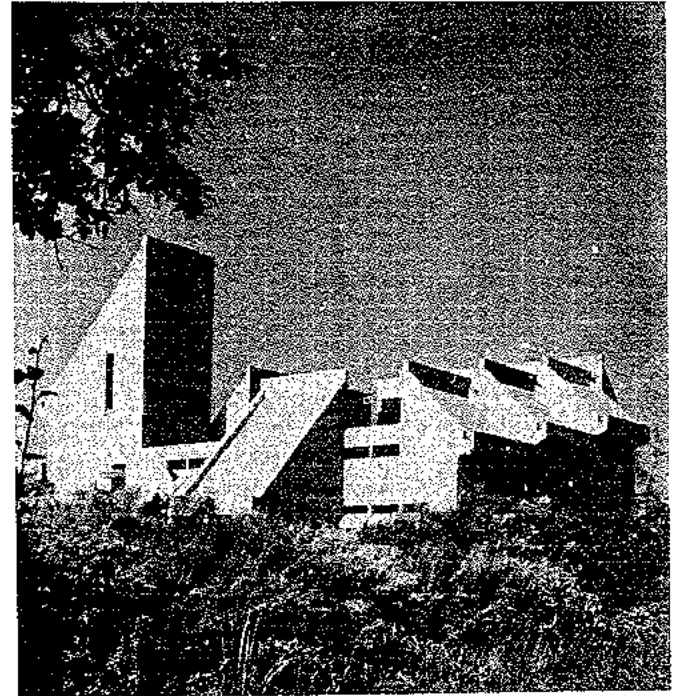
Kvelaer, Jesus Christ church, Ev., exterior. H. Duncker 1962/63



Emmerich, Lower Rhine, Holy Ghost, RC, exterior. Dieter G. Baumewe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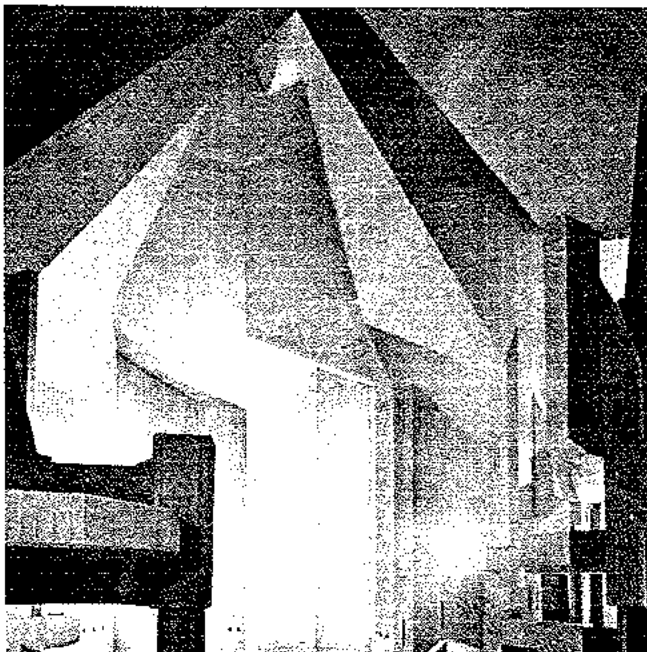


Telgte, Westphalia, St John, RC, exterior. Tiepelmann 1960/64



Kehlen, Württemberg, St Verona, RC, exterior. Kammerer/Belz 1968

Neviges in Bergisches Land, pilgrimage church of Mary Queen of Peace, interior. Exterior colour plate VIII. Gottfried Böhm 1966/68



Neuss-Weckhoven, St Paul, RC, interior. Fritz Schaller 1967/69.



規格資材使用指針

건 설 부

1. 적용범위

국민주택자금으로 건설하는 주택과 85평방미터 미만의 일반주택에 적용한다.

2. 표준창호 개구부

창호 개구부는 별표 1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기구만을 위한 것과 같이 특수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규격조적재의 사용

벽, 기둥, 기초 등 주요구조부용으로 사용되는 조적재는 별표 2의 규격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4. 건축허가권자 또는 사업승인권자는 표준화된 개구부의 규격과 규격자재로 설계 되었는지를 심사하고, 허가 및 승인된 설계도면에 따라 건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심사와 공사 검사결과 본 지침에 위배될 때는 건축허가권자는 이를 시정토록 권고하여야 하며 사업승인권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6. 본 지침 적용은 7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1) 창개구부의 규격

	6M	9M	12M	15M	18M	21M	24M
6M							
8M							
9M							
10M							
12M							
14M							
16M							

(1) 1M = 100mm = 10cm (M (엠큐)는 모듈표시로 기본단위임)

(2) 허용치는 ± 5mm

(3) W는 수평방향 H는 수직방향을 표시.

(4) 규격은 외각치수임. ※도면상에는 기호의 표시만을 사용한다.

(예) 18은 수평방향
12는 수직방향

- (1) $1M \sim 100\% = 10cm$ (M (엠펙)는 모듈표시로 기본단위임)
 (2) 허용치는 $\pm 5\%$
 (3) W수평방향, H는 수직방향을 표시
 (4) 규격은 외각치수임. ※ 도면상에는 기호의 표시만을 사용한다.

2) 문개구부의 규격

(예)

$$\frac{21 \times 18}{D}$$

21은 수평방향
18은 수직방향

	7M	8M	9M	12M	15M	18M	21M	24M
	(W)							
18M	(H)							
20M								
21M						(W)		
						(H)		
22M							21×22 D	
24M								
	27M	30M	33M	36M				
18M	(W) (H)							
20M								
21M			33×21 D					
22M								
24M								

(별표 2)

1) 소성벽돌(보통벽돌)

(단위: %)

구 분	길 이	폭	두께	비 고
규격	190	90	57	압축강도 100kg/cm ² 이상 흡수율 13% 이하
허용치	± 3	± 3	± 4	

2) 소성블록

(단위: %)

구 분	길 이	높 이	두께	비 고
규격	290	150	90	압축강도 60kg/cm ² 이상 흡수율 16% 이하
	290	100	90	
허용치	± 4	± 4	± 4	

3) 시멘트 벽돌

(단위: %)

구 분	길 이	폭	두께	비 고
규격	190	90	57	압축강도 50kg/cm ² 이상
허용치	+ 3 - 2	+ 3 - 2	+ 3 - 2	

4) 시멘트 블록

(단위: %)

구 분 규격	길 이	높 이	두께	비 고
190	290	190	190	압축강도 40kg/cm ² 이상
	390	190	190	
150	290	190	150	
	390	190	150	
100	290	190	100	
	390	190	100	
허용치	± 2	± 3	± 2	

내 祖國 내 民族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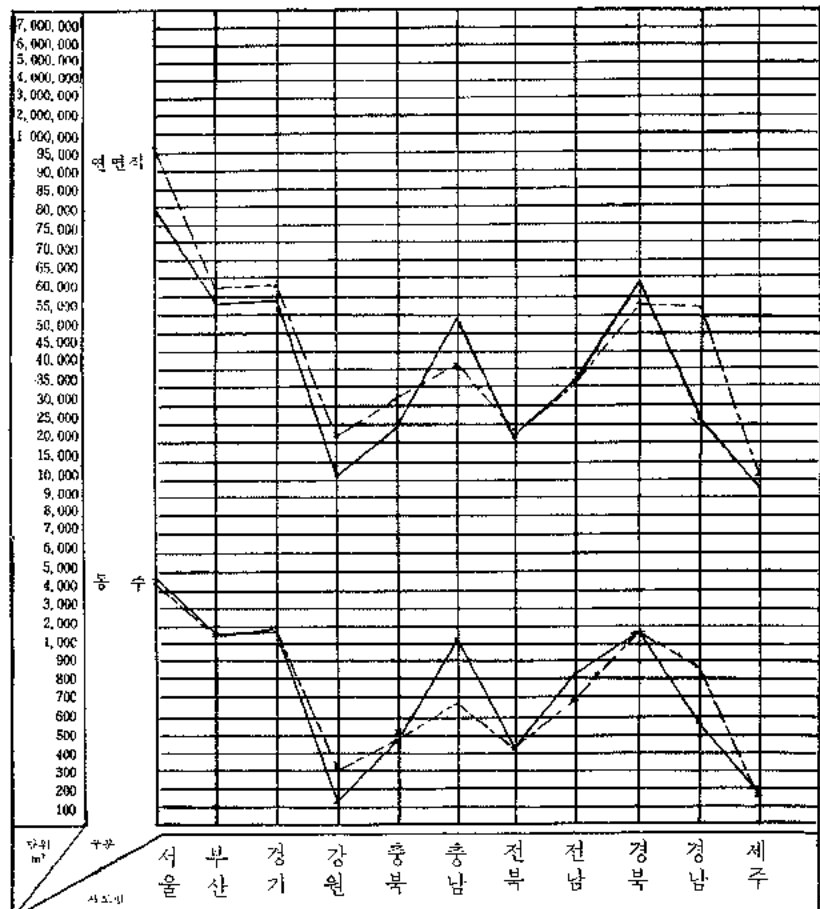
우리가 死守한다

大韓建築士協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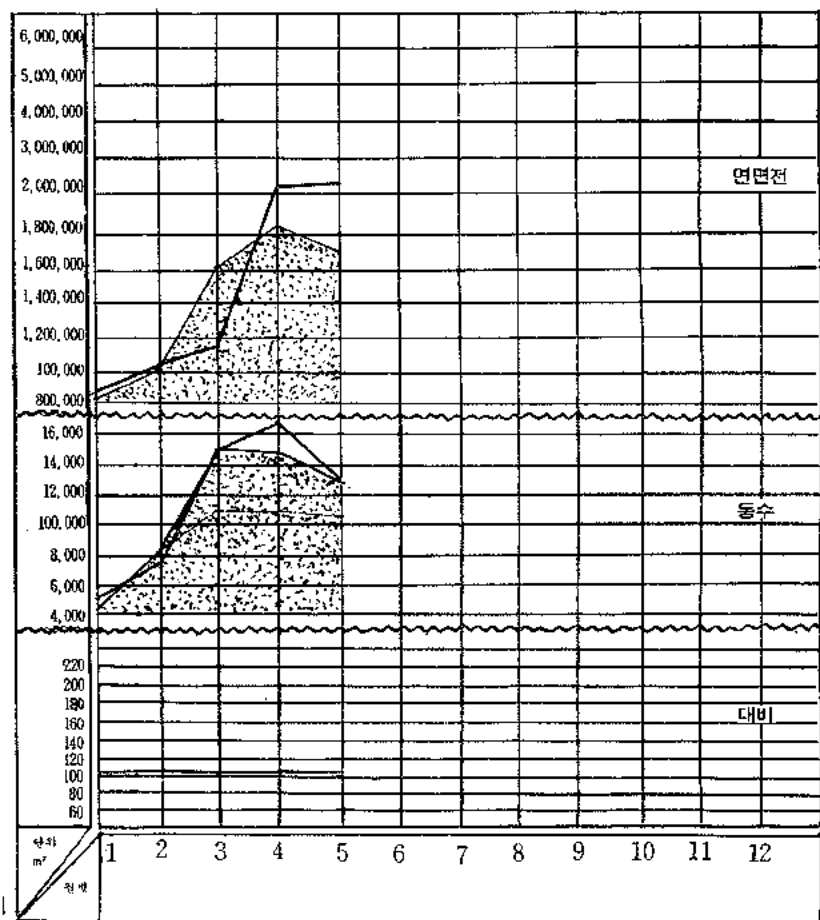
全国建築許可統計

1975年 5 月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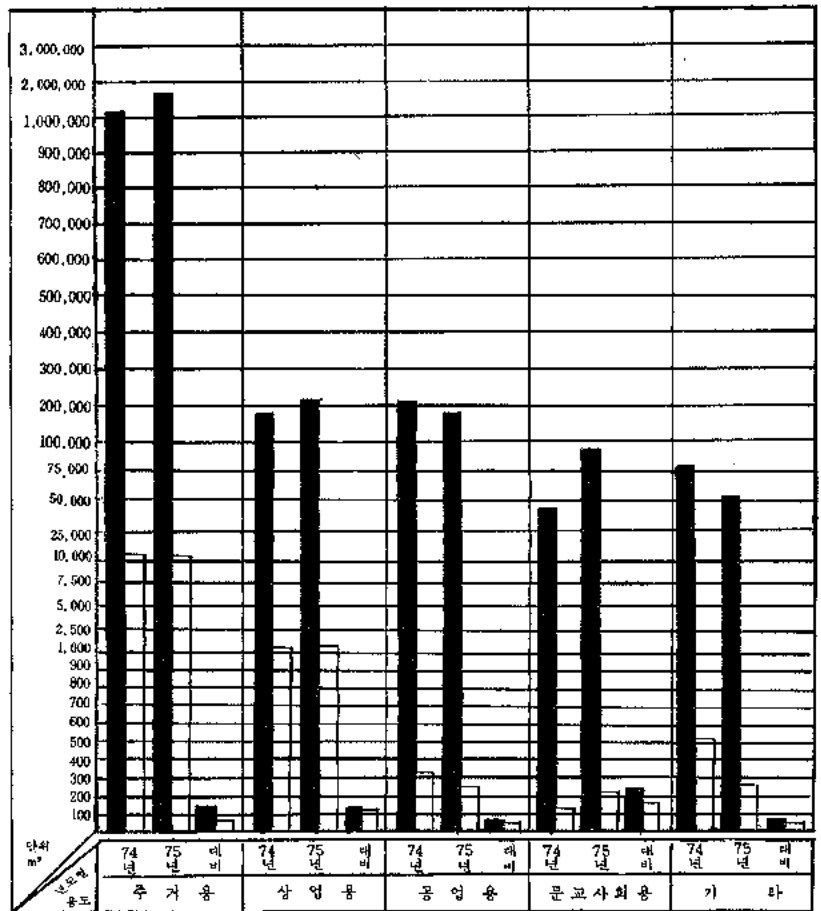
74년도 ———
75년도 - - - - -
 시도별 허가 통계 및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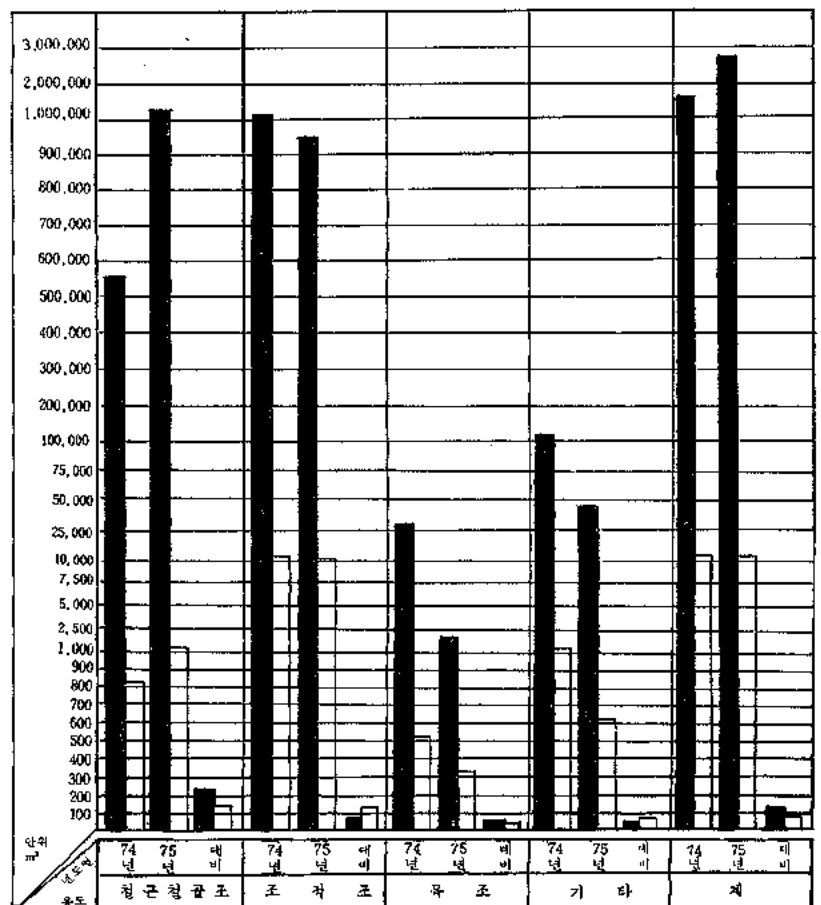
월별 건축허가 통계 전년대비



용도별 허가통계, 전년대비



구조별 허가통계, 전년대비



建築界뉴스

'75年度 建築士 資格試験 合格者 発表

總 78名 合格(一級 32名, 二級 46名)

지난 7월 1일 建設부는 '75年度 建築士 資格試験合格者를 發表했다.

이번 合格者中 1級은 應試者 431名에 對하여 7.5% 線인 32名이 合格했는데 이 가운데는 書類未備로 條件附 合格者가 9名 包含되어 있으며, 2級은 應試者 821名에 不過 5.8%인 46名만이 合格, 역시 8名의 條件附 合格者가 包含되고 있다.

이번 '75年度の 合格率은 지난 '74年度の 1級이 5.3%의 合格에 比해 1.2%가 增加되었으나, 2級은 '74年度の 7.3%에 比해 1.5%가 減退되었다.

級別 合格者 名單은 다음과 같다.

<1級>

38 金 花 子	57 차 원 일	66 陳 永 勲
107 金 哲 典	117 朴 閔 雄	185 白 正 烈
186 郭 殷 榮	194 林 永 在	197 金 潤 會
317 金 在 敏	324 金 興 秀	356 金 錫 徹
367 鄭 昭	395 趙 東 榮	408 閔 中 植
445 金 武 權	464 邊 榮 進	473 姜 正 泰
492 金 衍 浩	497 金 基 弘	524 林 陽 燮
554 宋 裕 德	569 宋 永 吉	
※20 安 承 司	※29 徐 輔 光	※43 權 泰 植
※247 李 甲 進	※394 李 東 根	※502 韓 弘
※518 崔 鍾 喆	※521 尹 元 鎮	※575 宋 信 憲

(以上 32名)

(2級)

007 朴 鍾 允	015 宣 在 圭	018 梁 亨 五
021 梁 東 俠	042 尹 錫 韓	055 劉 伯 源
060 崔 洛 珠	063 朴 在 平	076 林 八 岩
077 朴 哲 勲	128 鄭 雨 春	218 金 榮 泰
238 安 常 恩	252 金 永 相	298 徐 奎 喆
300 閔 庚 民	366 朴 清 一	379 金 聖 奉
383 鄭 永 殷	390 全 亨 哲	400 李 正 均
469 韓 昌 根	489 鄭 正 治	582 鄭 基 賢
599 金 鍾 珍	625 孫 炳 讚	656 洪 起 元
733 金 顯 用	752 文 龍 珍	798 洪 元 雄
807 李 興 模	867 金 義 信	935 張 潤 煥
936 姜 哲 九	940 吳 成 允	944 李 澤 一
948 李 根 昌	971 孫 禎 浩	※061 金 炳 允
※081 趙 秀 殷	※193 朴 鍾 學	※202 林 敏 洙

※437 朴 孝 男

※617 宋 平 文

※713 張 學 善

※882 金 炳 完

(以上 46名)

建築法改正法律案

國會建設委員會修正通過

政府가 附議한 建築法改正法律案을 심의한 國會建設委員會에서는 政府案을 一部 修正採択하고 國會法司委에 회부 했는데 이 改正法律案 은 오는 9月의 定期國會에서 通過될 것으로 보인다.

(本會에서는 建設委員會에서 채택된 建築法改正法律案을 各 支部에 送付했다.)

U. I. A. 에 韓國이 理事國으로 被選

國際建築家聯盟(U. I. A) 第13次 總會가 伊太利에서 開催되었는데 이 總會에서 韓國建築家協會가 처음으로 理事國으로 選出되었다.

1947年度에 創設된 이 聯盟에는 現在 84個國이 加入되어 있다.

한편 地域 理事會가 1979년에 우리나라에서 開催될 予定이라고 하며 1984년에 國際建築家聯盟總會를 韓國에서 開催(유치) 予定이라고 한다.

한편 지난 6月 27日 下午 6時, 서린호텔(18층) 서라벌 Room에서는 理事國으로 被選된 榮光을 白祝하는 記念式과 각테일 파티가 舉행되었다.

理事國 被選 記念式 光景



太陽에너지壁 開發 室内 溫度 自動調節

— 美国 메사추세츠 工大에서 —

美国「메사추세츠」工科大学에서는 室内溫도를 自動調節하는 太陽에너지壁을 開發했다고 한다. 한편 同大学の 科學者들은 이의 實用化를 위해 實驗中이라고 하는데 이 벽은 약 20cm 두께의 透明 플라스틱 板과 絶緣제 사이에 空間을 두고 격리시켜 만든 것으로, 太陽의 短波 放射熱과 室内의 長波放射熱의 交流을 自動調節함으로써 溫度調節을 하는데 한가지 解決못한 缺點은 이 벽이 겨울 날씨에는 透明해져서 個人生活에 侵襲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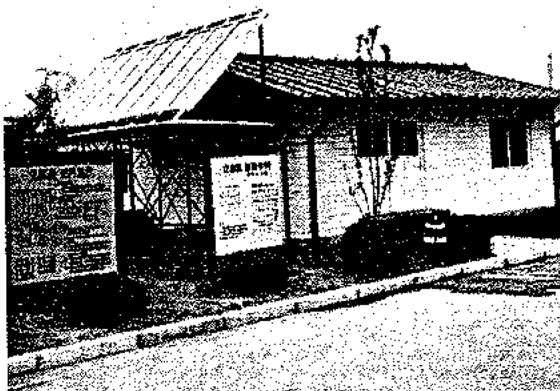
한편 이 벽은 熱에 민감한 「클라우이젤」이라는 化學物質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室内의 氣溫이 높을 경우, 구름처럼 太陽熱을 차단하고 氣溫이 下降하면 透明해져서 太陽熱의 透入을 円滑히 하도록 되어 있다.

“존·윌레슬리·밀러”와 “티모디·존슨”의 두 研究員이 發明한 이 벽은 이 밖에 表面內 構成을 強化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現 製品의 耐久性은 3년에 不過하다고, 太陽住宅과는 根本적으로 다른 이 벽은 일단 建築되면 修理가 必要없으며 費用도 普通壁과 맞먹는다고 한다.

独逸建築家 “게르하르트 마이크회르너” 氏 韓國 초청
11월 中旬경

駐韓 独逸大使館에서는 현재 독일 문젠의 저명한 都市計劃行政家이며 公害問題專門家인 “게르하르트 마이크회르너” 氏를 今年 11월 中旬경에 韓國에 초빙하여 國內의 建築專門家 및 行政家들과 함께 좌담회, 의견교환, 講演회 등을 開催할 예정이라 한다.

국내 최초로 건립된 태양열 시범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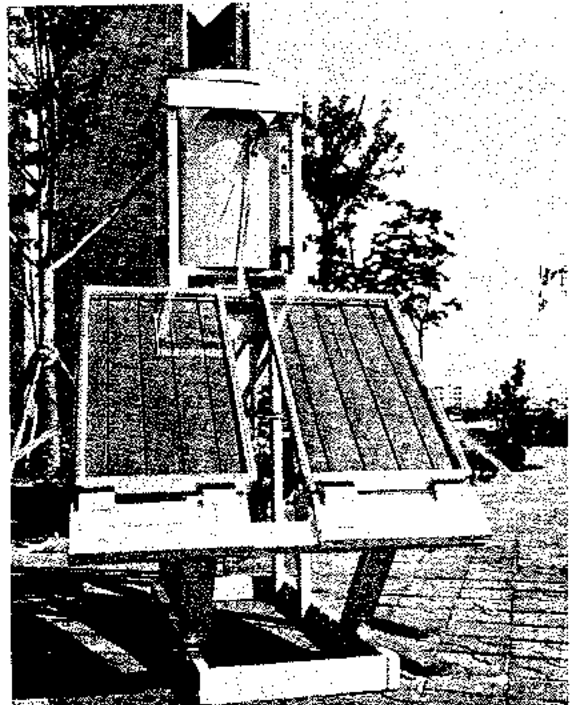


大韓住宅公社, 住宅展示館옆에 太陽熱 試驗住宅 設置

大韓住宅公社에서는 6月7日 來韓하는 美國의 太陽熱利用 住宅專門家 「아라·W·지어」 博士를 맞아 永東住宅團地에 太陽熱을 利用한 試験住宅 및 利用機構를 設置, 展示 하고, 일반 보급문제를 검토키로 했다.

住宅에 따르면 太陽熱 利用 住宅은 熱直光線이 잘 쬘고 日照時間이 긴 곳에서만 可能한데 우리나라는 全地域이 이 住宅建設에 적합하며 特히 대구地方이 最適地인 것으로 밝혀져 있다.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탱크



大韓建築士協會 一九七五年度

第二回 臨時總會 開催

6月 27日 國民銀行 大講堂에서

本協會 1975年度 第2回 臨時總會가 지난 6月 27日 上午 10時 國民銀行 本店 大講堂에서 代議員 206名 中 175名이 參席 盛大히 開催되었다. 이날 總會에서는 一般會計 追加更正予算案 人事規定改正案등 諸規程 改正案을 심의하고 各各 一部 修正採択했다.

또한 “設計用役登錄에 關한 件”을 論議한 總會에서는 設計用役面에서 建築士의 權益이 不當하게 침해되 지 않도록 諸般對策을 강구하고 關聯된 事項을 紙上에 發表하기로 滿場一致로 決議했다.



協會記事

韓昌鎭 會長 歸國

本會 韓昌鎭 會長은 부라질 駐在 韓國大使館 新築의 工事監理次 지난 5月 23日 出國했다가 지난 7月 16日 午後 4時 20分 歸國했다.

防衛誠金 奇託

釜山市支部

同支部(支部長 金圭泰)에서는 同支部 傘下 會員들이 헌납한 防衛誠金 196,500원을 KBS 釜山放送局에 奇託했다고.

張起仁·宣炳澤 兩氏를 本協會 倫理委員으로 위촉

本協會에서는 李海成(漢陽大 工大 교수) 韓鼎燮(住宅銀行·技術部長)兩氏의 後任으로 張起仁(三成建築設計事務所 代表)氏와 宣炳澤(漢陽大 工大 교수)氏를 각각 倫理委員으로 위촉했다.

서울特別市支部 共濟會 發足

會長에 金萬盛 支部長을 選出

지난 7月 5日(土) 上午 10時부터 開催된 同支部 臨時總會에 이어 統開된 서울市支部 共濟會 發起總會는 臨時議長으로 趙泳錫氏(경일건축사무소 代表)를 選出하고 執行部가 上程한 全文 31條 附則으로 된 共濟會 會則을 審議 끝에 一部 條正 하고 通過시켰습니다.

또, 總會에서 共濟會 任員으로 選任된 名單은 다음과 같다.

서울特別市 支部 共濟會 任員 名單

會 長: 金萬盛(支部長 當然職)

副會長: 李奉魯

理 事: 金正치, 정효환, 김학석, 김원안, 이연재, 한영수, 이성걸, 이병환, 장도엽, 김인석, 김봉훈, 김종우, 조구현, 윤용창, 우달형. 支部任員 3人

監 事: 김부섭, 김 영

(當然職)

公 告

會員諸位

올해는 本協會가 創立된지 10週年이 되는 해입니다.

本協會에서는 創立10週年을 紀念하기 위한 行事의 一環으로 全國 建築士 會員들의 作品과 建築關係 論文을 널리 公募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出品된 會員作品들은 「建築士」誌의 掲載 및 展示, 그리고 「會員作品集」도 出刊할 計劃이오니 會員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大韓建築士協會
月刊 建築士

會員動靜

서울 特別市支部

姓 名	名 稱	所 在 地	電話番號	免許番號	登録番號	年 月 日
-----	-----	-------	------	------	------	-------

事務所 移転 및 商号變更

梁 大 元	한국건축대원연구소	중구초동10-8	26-7761	2-510	2-121	75.5.29
李 宗 正	삼원건축연구소	관악구방배동415-3	68-8953	2-1105	2-358	75.6.3
梁 英 浩	청백건축연구소	종로구낙원동284-6(낙원 BD 199)		1-1354	1-565	75.6.3
吳 國 煥	전우건축기술공사	동대문구신설동76-67	92-3132	1-374	1-456	75.6.5
梁 海 竣	양건축설계사무소	동대문구신설동131-50	93-9292	2-616	2-370	75.6.5
박 영 진	영진건축연구소	성동구처도동408-16	56-1864		2-387	75.6.10
羅 永 均	동신건축연구소	서대문구교남동48	74-1071	2-321	2-84	75.6.11
崔 昌 鉉	여도건축설계사무소	성동구구의동211-10	56-0011 교 3944	1-599	1-147	"
韓 院 洙	임제건축연구소	관악구신림동575-16	67-3030	1-492	1-106	"
金 寬 旭	법신건축설계사무소	마포구공덕동427-5	33-7966	1-1413	1-605	75.6.13
許 璫 會	우주건축연구소	관악구사당동325-5	68-2730	2-821	2-221	75.6.18
金 顯 國	신화건축연구소	마포구망원동338-1	32-2369	1-413	1-194	"
申 鉉 稷	청송건축연구소	성동구서초동69-2	57-1615	1-187	1-547	6.19
金 宗 根	범아건축연구소	중구을지로2가9-1	76-5345	1-686	1-165	75.6.26
金 基 斗	대기건축설계사무소	동대문구중화동20구획3호	95-1439	2-194	2-367	"
都 聖 萬	성만건축연구소	종로구청진동286	75-0905	1-1073	1-603	6.23
金 桓	협동건축설계사무소	용산구이촌동301민영아파트 S동505호	43-6390	1-1172	1-445	"
金 英 錫	대진종합건축공사	성동구신사동299-2	57-0860	1-72	1-68	"
韓 昌 禹	창성건축설계사무소	동대문구회경동66-3	97-4477	1-281	1-90	75.6.26
鄭 載 滿	재흥건축연구소	서대문구북가좌동215-1		2-96	2-42	"
李 壽 衡	창 성 사	중구남창동62-5 (영창빌딩 203호)	28-1325	1-1278	1-563	75.6.30
李 明 煥	유신종합설계공단	중구수표동35-6 (신성빌딩 105호)	27-1008	1-1	1-48	75.7.4

閉業會員

張 蔭 秀	경서건축연구소	서대문구신사동23-16	38-2352	2-978	2-373	75.6.10
-------	---------	--------------	---------	-------	-------	---------

再 開 業

鄭 玩 秀	세한건축기술공단	중구에관동70-9	26-9353	1-536	1-663	75.6.25
-------	----------	-----------	---------	-------	-------	---------

서울特別市 支部

姓 名	名 稱	所 在 地	電話番号	免許番号	登録番号	年 月 日
新入會員						
曹 圭 鑽	신광신건축연구소	동대문구신설동103-3	52-7912	2-551	2-402	75.7.4
李 珍 源	이진원건축사무소	관악구봉천동7-100	69-5367	2-1333	2-403	75.7.4
元 太 常	상원건축설계사무소	영등포구오류동49	8-3558	2-1098	2-397	75.7.4
李 完 珪	제알건축설계연구소	성동구무학동2	53-3446	2-1433	2-411	75.7.5
朴 潤 祥	대양건축연구소	성동구반포동84-17	57-2120	1-849	1-662	75.7.20
金 東 熙	김희건축기술연구소	성동구무학동47	53-3992	1-945	1-664	75.6.25
俞 興 根	유건축설계사무소	성동구천호동409-13	55-8473	2-832	2-405	75.6.23
李 光 皓	관악한샘건축	종로구세종로111 (유성빌딩)	74-2284	2-1475	2-407	75.7.1
具 興 書	한진종합건축	성동구학동6단지가의1	57-2111	2-1561	2-404	75.7.1
權 熙 瑛	권희영건축연구소	중구장충동1가52-5	29-9032	1-1409	1-661	75.7.2
曹 卓 均	광진건축설계사무소	동대문구신설동103-3	52-7912	2-875	2-371	75.7.2
高 錫 生	태우건축연구소	관악구봉천동59-22	68-0726	1-1300	1-666	75.7.2
李 寬 永	이관영건축연구소	서대문구대현동27-27	33-4325	1-1432	1-635	75.7.3
崔 熙 泰	경남종합설계사무소	서대문구외주로1가138-1	73-7247	2-598	2-407	75.7.3
孔 成 淑	공건건축연구소	성동구무학동1	54-3593	2-1307	2-410	75.7.8
具 亨 柱	구성건축연구소	중구태평로2가58-5	28-2171	1-49	1-667	75.7.1

釜山直轄市支部

新入會員

金 永 洙	우원건축기술公社	동래구복천동326-3	52-3938	1-82	1-230	75.7.3
文 龍 圭	文藝建築研究所	동래구명륜동671-22	52-2262	1-1446	1-228	75.7.3
朴 載 奉	開心建築工房	부산진구부전동396-3	3-0855	2-1682	2-229	75.7.3

事務所移転

朴 大 福	복우건축설계사	중구 대교동1가10	43-3963	1-1304	1-209	75.7
金 東 奮	김동희건축연구소	동래구광안동669-8	7-2997	2-1611	2-206	"
都 敬 泰	도경태건축설계사무소	부산진구가야2동631		1-941	1-198	"

事務所移転 및 商号変更

文 龍 圭	코리안종합설계원문예건축연구소	동래구수안동476-2	53-1755		동래1-47	75.7
-------	-----------------	-------------	---------	--	--------	------

忠清北道支部

新入會員

朴 定 秉	대륙건축설계사무소	괴산군증평읍교동46	514	1-890	1-146	75.6.17
-------	-----------	------------	-----	-------	-------	---------

全羅北道支部

新入會員

金 同 洙	東洋建築事務所	이리시형인동1가225	4464	2-618	2-28	75.7.4
-------	---------	-------------	------	-------	------	--------

月間協會動靜

第13回 (임시) 理事会

6月 26日(木) 14:00 本會 會議室

議案:

- (1) 윤리위원 선임의 건.
- (2) 노동청 공고에 대한 사후 처리에 관한 건.
- (3) 건축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 찬조의 건.
- (4) 기타 사항

出席:

總務理事: 李圭福
 理事: 李丞雨
 “ 朴成圭
 “ 李興秀
 “ 成一永
 監事: 康晉參
 參席: 金萬盛
 (서울시 支部長)

第3回 會館建立委員會

6月 26日(木) 15:00 本會 會議室

議案:

- (1) 二層 修理에 관한 건.

出席:

總務理事: 李圭福
 理事: 李丞雨
 “ 朴成圭
 “ 李興秀
 “ 成一永
 監事: 尹希俊
 “ 康晉參
 釜山支部長: 金圭泰
 京畿支部長: 鄭銀溶
 忠北 “ : 鄭鎮億
 忠南 “ : 金鍾敏
 全北 “ : 崔錫珪
 慶北 “ : 李根庠
 慶南 “ : 尹商鳳
 濟州 “ : 康奇汀
 委員: 金東珪
 “ 金斗燮
 “ 宋寬植
 “ 崔昌奎

第6回 編纂委員會

7月 10日(水) 16:00 本會 會議室

議案:

- 1) 前月号 合評
- 2) 7月号 편집계획안 토의
- 3) 기타 사항

出席:

委員長: 李丞雨
 委員: 金仁錫
 委員: 金昌瑞
 委員: 尹道根
 “ 李廷德
 “ 馬春景
 “ 韓鎬燮

第14回 理事会

7月 4日(金) 14:00 本會 會議室

議案:

- (1) 총회 위임 사항 처리의 건
 - ① 개정 인사 규정 조문 정리의 건.
 - ② 설계 용역 등록에 관련된 대책의 건.
- (2) 제 규정 인쇄 배부의 건.
세부 처리 지침서 원고 청탁의 건.
- (3) 7월중 자금 사용 계획 승인
의 건.
- (4) 기타 사항.

出席:

總務理事: 李圭福
 理事: 李丞雨
 理事: 朴成圭
 理事: 李興秀
 理事: 成一永
 監事: 康晉參
 參席: 金萬盛
 (서울시 支部長)

寄稿內規

1. 目的

이 內規는 大韓建築士協會 會誌(以下 “會誌”라 한다)의 寄稿에 關係되는 事項을 規定함으로써 寄稿活動을 助長 向上시키고, 建築士 業務의 健全한 發展과 讀者의 便利를 도모하며, 아울러 建築文化發展에 이바지 함을 目的으로 한다.

2. 寄稿者의 資格

寄稿하는 者의 資格은 本協會 會員 및 建築關係 專門家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原稿의 정탁은 本會 編輯委員會에서 정한 編輯計劃에 依한다.

3. 原稿의 接受

原稿는 本協會 出版部에서 接受한다.

4. 原稿의 受理

1) 原稿의 受理는 별도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編輯委員會에서 결정한다.

2) 다음과 같은 原稿는 受理하지 아니한다.

ㄱ) 本協會의 目的에 위배되거나 關係없는 것.

ㄴ) 이미 發表된 것으로서 계개의 意義를 喪失하였다고 認定되는것.

ㄷ) 會誌의 品位를 損傷하는 內容의 것.

ㄹ) 補完이 要求되는 것.

ㅁ) 原稿 作成 規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것.

3) 原稿의 受理日은 編輯委員會에서 掲載을 決定한 날로 한다.

5. 原稿 作成의 形式

原稿의 作成은 別途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連載 回數의 制限

同一人이 寄稿하는 同一 主題의 原稿의 連載 回數는 特別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二回 以內로 한다.

7. 原稿의 返還

일단 接受된 原稿를 掲載하려는 號의 會誌가 出版되기 以前에는 返還하지 아니한다.

8. 原稿의 校正

ㄱ) 原稿의 校正은 印刷 前에 寄稿者가 한다.

다만 寄稿者의 事情에 따라 編輯委員會에서 協助할 수 있다.

ㄴ) 編輯委員會는 別途 규정하는 原稿作成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部分에 對하여 校正을 할 수 있다.

9. 稿 料

1) 稿料는 別途 규정하는 바에 따라 寄稿者에게 支拂한다.

2) 다음과 같은 原稿에 對한 稿料는 無料로 할 수 있다.

ㄱ) 請託 原稿가 아닌 것.

ㄴ) 筆者의 請願에 따라 掲載되는 投稿의 原稿.

ㄷ) 이미 다른 機關을 통하여 發表하였거나 다른 機關에 提出된 原稿.

ㄹ) 協會의 公式 記事

3) 必要한 資料에 對하여는 그에 必要한 收集費를 予算의 범위 안에서 支拂할 수 있다.

10. 其 他

이 規定에 없는 事項은 別途 定하는 內規에 따르며, 其他의 것은 一般慣例에 따른다.

原稿作成基準

1. 一般事項

1-1. 原稿의 分類

原稿(번역 원고 포함)는 다음과 같이 分類하고 이를 原稿 表題 위에 表記하여야 한다.

1) 學術 論文

2) 一般 論文

3) 會員 作品

4) 資料(各種 統計, 海外作品 및 海外技術 情報)

5) 會員文芸(詩, 隨筆, 紀行文 等)

6) 協會記事

1-2 原稿의 構成

1) 學術 및 技術 論文은 다음과 같이 構成함을 標準으로 한다.

ㄱ) 要旨(國文 要旨)

ㄴ) 本文 { ① 序 論
 ② 本論(내용 구분은 그 내용에 상응하게 한다)
 ③ 結 論

ㄷ) 參考文獻

2) 一般 論文은 다음과 같이 構成함을 標準으로 한다.

ㄱ) 要旨(國文 要旨)

ㄴ) 本文(내용 구분은 그 내용에 상응하게 한다)

ㄷ) 參考 文獻

3) 會員文芸의 原稿는 會員에 限하되 編纂委員會에서 추천되는 原稿에 限해서 掲載할 수 있다.

4) 會員作品 寄稿者는 다음과 같은 圖面과 사진을 提出하여야 한다.

ㄱ) 平面圖(켄트지 또는 트레이싱 페이퍼에 잉킹한 것)

ㄴ) 配置圖(" " ")

ㄷ) 斷面圖(상세도 포함)

ㄹ) 實際建物の 全景 사진과 屋內 사진.

ㅇ) 建築概要(편찬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다)

1-3. 原稿字數의 標準

ㄱ) 諸般 原稿의 面數는 200字 原稿紙로 하고, 會誌 一面의 枚數는 12枚로 한다.

ㄴ) 掲載되는 原稿는 會誌 8面 以內로 한다. 다만 編纂委員會에서 특별히 必要하다고 認定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4. 原稿의 共通 記載 狀況

原稿는 다음 事項을 記載한다.

ㄱ) 表 題

ㄴ) 著者名

ㄷ) 著者の 所屬機關 및 職位

ㄹ) 主要目次(간단한 경우에는 생략)

1-5. 原稿紙의 規格

ㄱ) 原稿는 200字 原稿用紙에 作成한다.

ㄴ) 原稿는 가로쓰기로 하며 피어쓰기는 高等學校 固定教科書의 例에 따른다. 外國語 또는 算用 數字는 붙여 쓰며 한 칸에 一字式 쓰지 않아도 된다.

2. 使用語 및 表記

2-1. 使用語

使用語는 國語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編纂委員會에서 특별히 外國에 紹介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使用文字

ㄱ) 國語를 使用하는 것에 次하여는 한글과 漢字를 섞어 쓸 수 있다.

ㄴ) 한글의 맞춤법은 한글학회의 “한글맞춤법 통일안”(1946)에 따른다.

2-3. 外來語의 表記

ㄱ) 外來語는 한글로 表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글로 表記함으로써 難解한 外來語는 原語 그대로 쓴다.

ㄴ) 外來語의 表記는 문교부 “로마자자의 한글화 표기 방법”(1958) 및 “국정교과서 외래어 일람표”에 따른다.

ㄷ) 다음 사항은 原語 그대로 쓴다.

① 人名

② 文獻名

ㄹ) 本文中 外來語의 表記는 첫머리자는 大文字로 하고 나머지는 小文字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고유명사인 경우

② 대문자를 쓰는 약어

③ 특별히 강조하는 경우

2-4. 專門用語

專門用語는 다음 순위에 따라 統一하여 쓴다.

ㄱ) 大韓建築學會 制定用語

ㄴ) 韓國工業規格에 쓴 用語

ㄷ) 文敎部 科學技術 用語

2-5. 數字 및 數式

ㄱ) 數 字

數量을 표시할 때에는 算用數字(아라비아 數字)를 쓴다.

ㄴ) 數 式

數式은 줄(행)을 바꾸지 않고 1행으로 씀을 원칙으로 한다.

3. 單位 및 記号

3-1. 單 位

ㄱ) 모든 단위는 미터법으로 統一함을 원칙으로 한다.

ㄴ) 前項 以外의 必要한 慣用 單位에 대하여는 그대로 쓰되 괄호 속에 주기 한다.

(例) : 페인트 1통(20l)

시멘트 1포대(40kg)

3-2. 記 号

數學記号는 KS A 0101(수학기호)

單位記号는 KS A 0102(단위기호)의 규정에 의한다.

4. 그림, 사진 및 표

4-1. 그 림

ㄱ) 그림의 작성

① 그림은 순백의 켄트지 또는 트레이싱 페이퍼에 먹 또는 점정잉크로 제도하되, 문자 기입은 모두 연필로 임시 기입한다.

② 그림 및 도표의 크기는 가급적 인쇄 크기의 1.5배 ~ 2.0배(선 확대율)로 확대한 크기로 정한다.

③ 그림의 제도 중 KS F 1501 건축제도(통칙)에 규정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른다.

④ 그림의 첨부 방법

모든 그림은 그 그림의 번호를 연필로 기입하되 원고의 본문 중에 삽입될 자리에는 1행을 비우고 그 그림의 번호와 表題(또는 설명)를 기재한다. (例: 그림 1. 에너지 감소에 대한 받침대의 방진 효과)

4-2. 寫眞

7) 사진의 製作

모든 원고의 사진은 선명하게 印刷될 수 있는 것을 첨부한다.

1) 사진 첨부 方法

모든 사진은 그 사진의 번호를 연필로 기입하여 원고의 본문 중에 삽입될 자리에는 1행을 비우고 그 그림의 번호와 表題(또는 설명)를 記載한다.

4-3 表

7) 表는 本文 原稿紙에 직접 記載하거나 別表에 作成하여 제자리에 붙인다.

1.) 모든 表의 상부에는 그 表의 번호를 붙이고 반드시 表題(또는 설명)를 記載한다.

(例: 表 1. 公共住宅 年度別 現況表)

2.) 表 中の 註記는 그 表의 바로 밑에 記載한다.

5. 参考文献의 記載方法

参考 文献의 記載는 그 원고의 本文뒤에 일괄 記載한다.

奇稿의 受理

1. 本協會 出版部에 接受된 원고는 그 掲載 如否를 編輯委員會에서 決定하되 違背如否를 檢討하기 위하여 各 編輯委員會에 按配하여 決定할 수 있다.
2. 原稿의 送達을 받은 編輯委員은 寄稿 內規에 對한 違背 如否를 檢討한 후 受理 可否에 對한 所見을 붙여 返送한다. 다만, 그 所見이 否일 때에는 再次 이 節次를 反復할 수 있다.
3. 編輯委員長은 前條의 結果를 綜合하여 編輯委員會에서 受理 如否를 議決한다.

稿料의 支拂

1. 稿料의 基準

稿料는 당해 年度의 予算의 범위 안에서 그 基準을 定한다.

2. 稿料의 算出 方法

受理된 原稿의 枚數를 基準으로 한다.

3. 稿料의 支拂時期

稿料(자료수집비 포함)는 그 原稿가 掲載된 후 支拂 結제가 필한 3日以内に 支拂함을 원칙으로 한다.

※ (本誌에 꼭 掲載하여야 할 寄稿원고는 受理와 同時에 支拂할 수도 있다.)

新刊

建築技師 및 技能士를 爲한

建築設計製圖

延 濟 振 著

4 · 6 倍版 195面

附錄製圖例, 칼라판 삽입

定價 1,800원

發行處 産業圖書出版公社

建築學總覽

監修 工學博士

洪 鵬 義

建築家

金 在 哲

執筆

延 濟 振

1975 年 4 月 10 日 發行 값 15,000 원

發行處 産業圖書出版公社

TEL. 26-0509

大韓建築学会

創立 30週年 紀念事業 趣旨文

祖國解放과 同時に 1945年 9月 發足한 大韓建築学会는 이제 30週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創立 當時의 會員數는 不過 30名 内外였읍니다만 現在는 2,000名으로 增加하였읍니다. 學會는 年 6回의 学会誌 發刊을 爲始하여 建築에 關한 各種 基準作成, 建築用語制定 및 建築에 關한 圖書出版에 注力하였으며, 隨時로 學術講演會, 講習會 및 見學會를 開催하여 會員의 資質向上에 努力하여 왔읍니다.

이것은 오로지 會員들의 努力과 社會 各界의 支援의 結果라고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現在 여러가지 어려운 問題들에 逢着하고 있습니다.

生存과 結付된 環境問題,

Energy 對策問題

住宅의 大量生産化 問題

都市 再開發 問題 등

이러한 建築에 關한 內的問題들은 建築의 概念 自体에 對해서 修正을 加할 것을 要求할 程度로 重要한 問題로 登場하였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量的 膨脹뿐만 아니라 質의 高度化 專門化를 企圖하여야 할것입니다.

建築은 한 民族의 文化의 尺度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建築学会 創立 30週年紀念事業을 契機로 하여 지금까지 쌓아올린 建築学会의 力量을 다짐하여 새로운 使命感을 가지고 後世에 남길 韓國建築文化의 傳統確立을 위한 準備作業을 하여야 하겠읍니다.

本 事業을 推進하는데는 많은 試鍊과 難關이 豫想됩니다. 會員 여러분의 總和된 努力과 奮發, 그리고 社會各界의 積極的인 協助에 依하여 成功的으로 完遂할 수 있다고 確信합니다.

1975年 8月

大韓建築学会 會長 金 熙 春

紀念事業 및 募金要領

1. 事業內容

가. 紀念行事

- (1) 創立 30週年 紀念式
- (2) 有功者 表彰
- (3) 祝賀會
- (4) 會館開館(科學技術會館 內)

나. 紀念事業

- (1) 學術講演會
 - ① 심포지움
 - ② 論文發表會
- (2) 親睦論文集 發刊
- (3) 紀念論文集 發刊
- (5) 学会誌 紀念 特輯號 및 学会史(30年史) 發刊

다. 新會館整備

- (1) 會館 什器備品 補充
- (2) 圖書室 新設

2. 紀念行事 豫定日: 1975年 9月 1~3日

3. 協助하실 金額: 大韓建築学会 會員 2,000원 以上

4. 申請方法: 同封申請書에 金額을 記入하신 後 本會에 回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申請期限: 1975年 7月 10日

※上記事業外 追加되는 事業에 대해서는 會誌上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會 員 諸 位

時下 初夏之節에 貴體錦安하심을 仰祝합니다.

이번에 本学会 定期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上記 事業計劃과 같이 創立 30週年 紀念事業을 추진하기로 되었으니, 이 趣旨에 贊同하시어 有終의 美를 견우도록 紀念事業基金調達에 積極 協助하여 주시기를 敬望합니다.

追伸: 協助하여 주신 會員에게는 紀念事業 刊行物을 無料로 贈呈하겠습니다.

會員名簿 發刊에 對하여 會員에게 알려드립니다.

創立 30週年 紀念事業의 하나인 會員名簿發刊은 會員相互間의 紐帶와 業務連絡에 正確迅速을 期하기 위하여 名簿를 單行本으로 發刊 配付할 予定입니다.

既連絡되는 會員이 라도 會誌에 添付된 葉書로 回信하기 바랍니다. 回信이 없는 會員은 名簿에서 漏落될 우려가 있어오니 留意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會費가 長期滯納된 會員께서는 8月 10日까지 會費를 納付하여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全國優秀建築資材 및 機器生産業體 製造品 總覽編纂에 즈음한 人事말씀

總力安保體制에 全國民이 總躍起하고 있는 重大한 時點에서 貴社의 事業 繁榮을 祈願하며 庶政刷新과 不條理 除去에 專念하시는 貴下의 勞苦에 對하여 敬意를 表하면서 受任된 任務의 完遂를 爲하여 當 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 支部에서는 最初로 全國 優秀建築資材 및 機器生産業體의 製品 카다로-그(型錄)集을 編纂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最近 늘어나고 있는 建築物이 社會的 要請인 現代建築物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政府에서는 關係法等 改正과 建築資材의 品質管理 및 規格化를 위한 生産業體의 免許制度實施 等 一連의 對策을 講究하고 있는 이때, 全國 建築士會員은 全國의 모든 建築의 設計와 工事의 監理를 專担하고 있는 重責을 切感하고 보다 健全하고 美麗한 建築物의 施工을 위하여 建築技術面에서나 資材使用에 있어서 格別한 關心을 傾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더 效果의으로 解決하기 爲하여 各種 優秀建築 資材 및 機器製造品의 카다로-그(型錄)集을 發刊하여 建築設計業務에 萬全을 期할 수 있도록 기여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當支部가 發刊하는 카다로-그集은 全國 建築士會員이 建築設計에 있어서 資料選採 및 示方書에 採採될 것이므로 아무리 좋은 資材 및 機器라고 해도 이 카다로-그集에 漏落될 경우에는 選採에서 除外될 憂慮가 있어온 바, 貴社에서는 優秀한 資料를 다음 要領에 依하여 生産製品의 카다로-그集을 當支部事業部로 提出하여 주실 것을 付託합니다. 아울러 이 카다로-그集은 一般에게도 널리 普及함과 同時 關係品目은 展示 等を 통해 品質의 優秀性을 立証시키도록 할 計劃으로 되어 있어오니 많은 參與있으시기 바랍니다.

一九七五年 七月 日

大韓建築士協會서울特別市支部
支部長 金 萬 盛

카다로-그集 作成要領

(A) 樣式: 1 面만을 必要로 할 시는 아래 縮小한 (A) 樣式을 使用하게 됨.

(1)항: 工程을 기재할 것.

(例) 지붕工事, 基礎工事, 內裝工事 等.

(2)항: 製品名 또는 營業種目を 기재함.

(例) 스테이트, 알미늄샷시, 스틸샷시, 본타일, 후로링, 부락, 防水 等.

(3)항: 페이지란이므로 기재 不要.

(4)항: 会社名, 所在地, 電話番號 等を 기재함.

(5)항: 製品說明(用途), 規格 및 性能, 特徵 또는 利點, 施工方法, 注意事項, 見積資料等を 기재함.

(6)항: 設計時 資料가 될 수 있는 正確한 尺寸(吋數) 等を 기재한 圖面을 켄트지에 잉킹하여 (6)항 規格에 넣을 수 있는 資料를 提出하게 됨.

(7)항: 製品 또는 施工過程을 納得하기 쉬운 사진을 可能하면 天然色으로 提出하면 됨.

※注意事項: (1)~(4)項의 規格이나 位置는 變動될 수 없으며 (6)項이 不必要할 때는 (5) (6) 2개항을 1개항으로 使用하여도 무방하며 (7)항도 不必要할 때는 같은 要領임. 但, 245mm×180mm의 範圍를 벗어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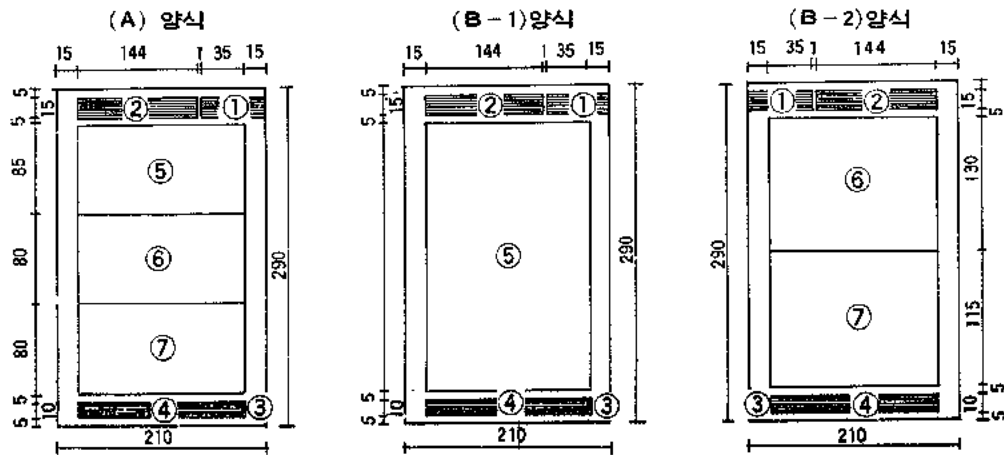
(B) 樣式: 2 面이 必要할 때는 아래 縮小된 (B) 樣式을 使用하여야 하며, 2 面이상 必要할 때에는 問議하여 주시면 됨.
(1)~(7)項까지의 作成要領 및 注意事項은 (A) 樣式과 同一함.

問議處 大韓建築士協會서울特別市支部事業部
서울特別市鍾路區瑞麟洞八九(建築士會館三層)

☎ (72) 7685, 7653

(73) 8059, 6258, 6392

양식범위 : 단위 % 표시 (NO SCALE)



카다로-그集 發行 事業計劃書

1. 經 旨 (目的)

全國 優秀 建設資材 및 機器 生産業체의 製品을 建築士, 建設業體 關係官廳 및 一般에 널리 普及함과 同時 關係品目은 展示 등을 통해 品質의 優秀性을 立證시키도록하여 不良資材를 排棄하고 優秀資材 使用으로 建設의 發展을 期하고자 함.

2. 計劃範圍

- 가. 發行計劃은 1년에 1회의 本支部가 選定하여 發行한다.
- 나. 1次年度 發行計劃은 75年 10月 30日로 한다.
- 다. 選定範圍는 全國의 建築資材 및 機器 製造業체
- 라. 掲載計劃은 全國300條 優秀 製品 業體
- 마. 各業體別 1面씩 基準하되 2面 以上도 掲載할.
- 비. 本 計劃은 1業體 1面의 計劃인바 2面以上이 必要時는 正比例로 한다.

3. 計劃明細 (配部計劃)

가. 現加入 全國 建築士協會會員 (各1部)	1,800部
나. 新入豫定 全國建築士協會會員 (各1部)	300部
다. 全國 優秀 建設業體 (各1部)	300部
라. 掲載業體 (各10部)	3,000部
마. 關係官廳 (各1部)	300部
合 計	5,700部

4. 業體別 掲載料 算出標準

- 가. 1面當 掲載料는 98,500원으로 定하고 申請應募日로 300面이 滿載될時는 追後 變更 掲載料를 通知함. (但, 印刷 3度基準)
- 나. 위 掲載料 算出根據는 本支部 事業部 幹事會議 決議事項에 依據實費에 準하였음.

5. 掲載業體의 遵守事項

- 가. 信託期間 (所定樣式) 1975年 7月 30日까지
- 나. 掲載料 納入額 (所定樣式)
 - 1次掲載料 納入金額 (掲載料의 50%) 期間: 1975年 8月 3日
 - 2次殘額 納入金額 (殘額全部) 期間: 1975年 9月 5日까지
- 다. 掲載料 納入金額은 特別한 理由가 있다고 協會가 認定한 以外는 延拂하지 아니한다.